

인제·고성 새이령 옛길

2024 강원교사·시민 인문학여행: 걷는 독서

철원 한여울길

태백·정선 고원길



#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3



강릉 바우길



원주·홍천 산소길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

2017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인문학거점센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과 연구 아젠다의 공유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인문교육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인문자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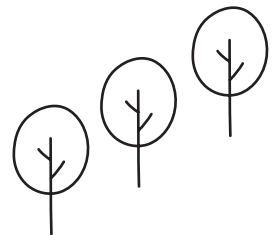
한편, 1994년 개소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난 25년 간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출판, 일본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으로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아젠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3



##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3』을 내면서



서정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 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

2007년 11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umanities Korea Plus/HK+, 인문기초학문분야) 국책사업을 시작하면서 강원도에 인문학을 확산하려는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센터’)도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센터 사업을 구상하면서 어젠다인 ‘강원도, 인문학을 품다’를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인간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류의 자산(資産)인 책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동시에 인문학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연구소가 그리고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한국도서관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학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장서가 6만 5,000권에 이르며, 이 외에 연구소 소장인 필자가 나서서 저명한 일본인 연구자의 장서 약 3만 권을 한림대학교 일송도서관에 유치해서 한림대학교를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일본학 자료의 보고로 만드는 등 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도 통하는 데가 있다.

지난 7년 동안 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일반인과 시니어, 새터민과 군인 등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왕성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매년 약 400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루에 하나씩 소화해도 365일이 모자라는 숫자다. ‘강원학생 인문학여행’, ‘책으로 이어지는 on(溫)세상’, ‘작은 책방 &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포문동’, ‘별빛청소년토론축제’, ‘골목골목 인문학여

행’, ‘비블리아 독서문화캠프’, ‘우리 고장에서 시작하는 동아시아’ 등 무작위로 떠올려도 많은 프로그램 이름이 나온다.

기억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되돌아봐도 이들 프로그램은 센터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하나의 생각으로 뭉쳐서 움직인 멋진 시간이었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함께 배우며 우리의 시간을 만들고 꾸며가는 유익한 과정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다. 센터 역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지면을 빌려서 고백한다.

작년 2학기 강의 시간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대학생도 역사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강생에게 “역사 공부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라고 물었더니, 모든 학생이 역사를 싫어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전멸은 아니겠지’라는 희망이랄까, 미련이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내 생각은 보기 좋게 짓밟히고 말았다. 그래서 수강생에게 다시 물었다. “자신이 역사를 정말로 싫어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접해 보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그러나 결과는 한 명도 없었다. 즉 역사를 싫어한다는 수강생 모두가 사실은 역사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제대로 임해보지도 않았는데 싫어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렸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수업, 그 가르치는 방식과 공부해야 하는 방식이 싫은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반이 넘는 수강생이 수긍했다.

우리는 일본이 자국 학생에게 근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물론 이 비판은 맞다.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데 교육을 이용한 아주 잘 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본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당당한가? 우리 학생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일본 학생보다, 배웠는데도 관심이 없고 하기 싫어하는 한국 학생을 지적하고 자성하는 자세이어야 하지 않은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서 암기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아주 역설적으로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두 나라 젊은 학생들이 서로 역사에 무관심하고 역사를 모르면, 100년쯤 후 미래 세대에서는 양국 간에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진공상태가 되어 아주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역사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교환하면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사회를 알아가는 흥미로운 과목임을 제대로 알려주고 물려줄 책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역사를 접하고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와 문학 등이 그 중심이 되는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찾고 생각하고 쓰고 대화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근래에 들어서는 인공지능(AI)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담론과 더불어 언제부턴가 '학제적' 연구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학계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다음에는 '융합연구'를 요구하다가, 그걸로는 부족한지 '융복합연구'를 하라는 요구가 강해졌다. 그런데 지금은 '융합'도 '융복합'도 자취를 감추고 'AI'라는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한

것이다. 필자가 앞에서 ‘AI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패션과 같은 유행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의 삶의 영위를 다루는 인문학이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변용, 변질하는 것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것이다.

AI는 결국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다. AI가 사람을 보조하는 것은 미래 사회에 긍정적 가치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조’가 아니라 ‘대체’로 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근래에 대학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대체’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100세 시대’라는 말은 생물학적 수명도 제대로 100세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수명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수명은 60세, 65세에 머무는 상황에서 벌이는 ‘정치적 구호’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견해는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 것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삶을 살아야 할 당사자인 우리는 이런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AI가 미래 세대에게 역사나 인문학에 관심과 생각을 갖게 하는 교육과 콘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소해 주지도 않는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이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진리와 믿음을 학생에게 느끼게 하고 전달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기능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사색의 자유와 문학을 즐기고 역사를 가까이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3』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리고 이 수기집이 나오기까지 센터가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었기에 정말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2024 강원교사·시민 인문학여행: 걷는 독서'에서 얻은 영감이나 감동을 담은 글과 사진이 참가자의 단순한 추억으로 머물지 않고, 아래로 옆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강원도라는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사색하고, 보고, 느끼고, 쓰는 인문학의 즐거움이 학생, 시민들과 널리 공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년 10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

서정완



# 여럿이 함께하여 길이 되었네

너와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31쪽

길을 열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다섯 해의 시간이 흘렀다.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은 계절이 지나가는 강원도의 옛길 곳곳을 스무 회가 넘게 걸었다. 강원지역의 삶과 문화, 역사의 숨결이 깃든 옛길을 찾아 오래된 삶, 오래된 시간, 오래된 공간 속을 묵묵히 함께 걸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로 얼어붙은 관계들은 마음까지 멀어지게 했다. 비대면은 외면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마스크 속에서 침묵했다.

2020년 봄, [책으로 이어지는 ON(溫) 세상] 인문독서동아리 ‘함께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책으로 맺어진 교사, 시민들이 책 밖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현실의 생활을 핑계 삼아 도외시했던 강원 대자연이 품은 숲길, 마을길, 옛사람들이 넘나들던 고개길을 걸었다. 그저 지나쳤던 주변과 이웃의 삶을 세심하게 느끼며 자신의 삶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걷는 독서’의 시작이었다.

5년 동안 강원도의 옛길을 찾아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간의 길, 공간의 길을 함께 걸었다. 그 길은 사람을, 삶과 삶을 이어주는 길이었다. 오늘을 진단하며 내일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했다.

2020~2021년 두 해 동안 6차에 걸쳐 함께 걸은 이야기와 글들을 모아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1』을 펴냈고, 다시 2022~2023년 두 해 동안 10차에 걸친 길 위의 이야기와 글들로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2』를 펴냈다. 올해 마지막으로 2024년 5차에 걸쳐 더불어 함께 열었던 길 위의 이야기들로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 수기집 3』을 엮는다.

2024년 4월 인제~고성 지역을 넘나들던 새이령옛길을 다시 찾았다. 이른 봄 유례없는 폭설로 쓰러진 나무숲 아래로도 여린 풀꽃들이 생명을 틔우는 골짜기를 걷고, 한국시집박물관과 기적의도서관을 탐방했다. 5월엔 철원 지역의 한여울길을 찾았다.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을 걷고 고석정, 도피안사, 옛노동당사터의 역사문화공원을 거쳐 오월의 눈부신 신록 아래서도 쓸쓸한 이태준문학비를 만났다. 그의 단편을 입체낭독하며 시대와 이념을 넘어서는 문학작품의 무한한 힘을 상상했다. 초여름 6월엔 정선-태백 지역을 찾아 백두대간을 걸었다. 두문동재~분주령~검룡소는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산상의 야생화공원이었다. 오래전 여기 폐광촌을 찾아 애뜻한 시로 남기기도 했던故신경립 시인을 기리며 숲속 시낭송회를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품고 온 한 편의 시들은 우리를 에워싸는 한 그루 나무들이 되어 어느결에 우리도 초록의 숲이 되었다.

10월, 뜻깊은 한글날에 강릉 바우길의 첫길인 선자령 풍чат길과 굴산사 터 가는 길을 걸었다. 모처럼 강릉권 책모임 시민들이 동참하여 백두대간 선자령 표지석 앞에 함께 선 것도 의미 깊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국사성황사에서 뜻밖의 무궁을 만났다. 굴산사 터의 당간지주, 승탑에 새겨진 천년의 숨결, 그 곁에 말없이 우뚝 선 오백년 소나무의 기운은, 안개 속 한 치 앞만 보고 바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요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했다.

2024 마지막 인문학여행은 가까운 원주~홍천 지역을 걸으며, 그간 '함께 읽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춘천-원주-강릉권 책온 팀리더 몇분들과도 따스한 공감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아름다운 공간 '뮤지엄산' 특별체험과 천년 고찰 수타사의 문화재 답사, 가을빛 짙어가는 산소길을 함께 걸었다.

지난 5년 동안,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지역에 발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다섯 해 전, 희뿌연 안개 속에서 길을 잃

고, 깊은 성찰과 질문으로 길을 찾아 나섰던 '걷는 독서'가 굳건한 연대의 목소리로 다시 열어 간 길 위에서 우리도 어언 길이 되었다. 여럿이 함께 걸었던 길목에서 느닷없는 마주침과 만남의 순간들이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책모임으로 만나 더없이 좋은 도반들과 함께하여 든든했다. 우리는 더 속 깊은 만남으로 모이고 나누고 마주하며, 오래된 시간, 오래된 공간, 오래된 삶속으로 걸어 들어가 '앞선 과거'로 돌아나오는 길을 찾아나섰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루쉰, 『고향』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득하고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언제라도 어디라도 묵묵히 걸어야 할 이유이다. 나와 그대가, 우리가 되어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야 할 이유이다. 그동안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을 따듯이 지원하고 격려해주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서정완 소장님 외 여러분께 깊숙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강원교육연구소, 강원인문독서교육공동체 대표

한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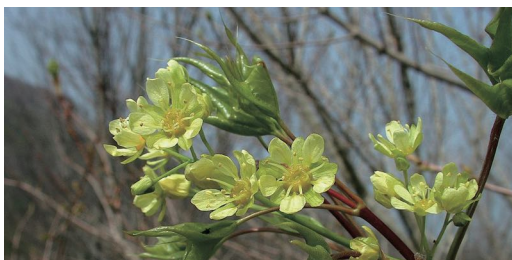
002 여는 글  
007 감사의 글

---

2024 인문학여행  
STORY 1  
인제·고성  
새이령 옛길

---

018 **intro**  
버스 영화관, <퍼스트 카우>를 소개합니다  
020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024 처음 가는 마장터 옛길  
025 마장터 길에서  
026 박인환 시인과의 재회  
028 마장터 옛길을 걸으며  
029 봄눈에 스러진 나무들  
030 내려갈 때 본 그 꽃  
032 산 따라 물 따라 옛 자취를 따라  
033 새이령, 마장터에서  
034 산이 고플 때, 마장터 가는 길  
036 강원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준 시간  
037 마장터 가는 길에서  
038 걷는 독서를 함께했습니다  
040 마음속 씨앗 하나 꽃으로 피어나는 걷기  
042 처음 참여한 '걷는 독서', 마음을 빼앗기다  
044 고로쇠나무, 새이령에서  
046 들꽃과 서부 개척 시대의 두 남자  
048 제1차 인문학여행 다녀왔습니다



---

2024 인문학여행  
STORY 2  
철원 한여울길

- 052 intro  
시민기자가 '강원 교사·인문학여행'을 소개합니다
- 054 버스 영화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소개합니다
- 056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060 철원에서의 걷는 독서
- 061 이태준에게 길을 묻다
- 062 이태준 문학비 앞에 서서
- 064 도피안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 066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
- 068 나의 추억에서 우리의 기억으로
- 070 1945, 2024 철원
- 072 철원 주상절리
- 074 물 따라 걷는 독서
- 076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5·18에 스치는 철원과의 만남
- 078 철원에서 평화를 그리다
- 080 철원 인문학여행을 다녀와서
- 082 한여울길에 대한 단상
- 084 주상절리길을 걸으며
- 086 '평온한 어떤 다른 날'에 다다를 수 있기를
- 088 제2차 인문학여행 다녀왔습니다





---

**2024 인문학여행**  
**STORY 3**  
**태백·정선**  
**고원길**

- 
- 092 intro**  
태백 고원길을 소개합니다
- 094** 버스 영화관, <나의 올드오크>를 소개합니다
- 096**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100** 하늘이 열린 곳
- 102** 빨강으로 곱게 물들다
- 104** 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답사 그리고 장미 한 송이
- 106** 초여름의 걷는 독서
- 108** 신경림 시인의 시(詩)와 산(山)은 참 닮았다
- 110** 태백, 아련한 그곳
- 112** 생태지킴이 꿀벌에게, 마을지킴이 친구에게
- 114** 태백 두문동재, 분주령, 검룡소를 다녀와서
- 116** 신경림 시인과 함께 걷는 태백 고원길
- 118** 초록이 초록초록했다
- 120** 두문동재 백두대간을 걸으며
- 122** 추억을 만지며 걷는 독서
- 124** 제3차 인문학여행 다녀왔습니다



---

## 2024 인문학여행 STORY 4 강릉 바우길

- 128 **intro**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 130 버스 영화관, <퍼펙트데이즈>를 소개합니다
- 132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136 선자령에서 굴산사지 가는 길
- 138 강릉 바우길을 걸으며
- 139 걷기 인문학을 만나다
- 140 산경표 표지석을 만나다
- 141 선자령은 살아 있다
- 142 염원-국사성황당, 석천, 오백년 소나무, 굴산사
- 143 안개 속의 첫 만남, 선자령 풍чат길
- 144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146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 148 길에 이르는 길
- 150 선자령-국사성황사-굴산사지 답사
- 152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의 별칭
- 154 선자령과 「풍의 여행」
- 156 동행
- 157 선자령의 선자들
- 158 안개 속에서 대관령 옛길을 걷다
- 160 나아가다 보면
- 161 강릉 바우길, 선자령(仙子嶺)을 걸으며
- 162 선자령 풍чат길, 안개의 술렁임 속을 온몸으로 걷다
- 164 2024 가을, 강릉 바우길을 걷다
- 168 가을날, 함께 바우길을 걷다
- 170 걷는다는, 행복
  
- 172 제4차 인문학여행 다녀왔습니다





---

**2024 인문학여행**  
**STORY 5**  
**원주·홍천**  
**산소길**

---

<b>176</b>	<b>intro</b>
	버스 영화관, 다큐멘터리<안도 다다오>를 소개합니다
<b>178</b>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b>182</b>	여행의 이유
<b>183</b>	건축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물들다
<b>184</b>	물 위의 박물관, 뮤지엄산
<b>186</b>	자신이 되는 시간
<b>188</b>	우고 론디노네를 만나다
<b>190</b>	삶은 흐르는 대로
<b>192</b>	벚꽃, 청기와, 월인석보
<b>194</b>	가을을 만끽한 시간
<b>196</b>	쉼의 공간, 뮤지엄산
<b>198</b>	다른 것을 보는 우리, 그 모습이 같은 우리
<b>199</b>	빛이 말한다
<b>200</b>	오늘이 '퍼펙트 데이'다
<b>202</b>	오늘 여기서 행복할 것
<b>204</b>	예술과 자연 한가득 가을 나들이
<b>206</b>	뮤지엄산에서 우고 론디노네를 만나다
<b>208</b>	시월의 어느 멋진 날
<b>210</b>	가을의 빛깔 속으로
<b>212</b>	제5차 인문학여행 다녀왔습니다
<b>214</b>	참여하신 분







# STORY





# 인제·고성 새이령 옛길



버스영화관

인문학여행과 함께한

## 영화 &lt;퍼스트 카우&gt;를 소개합니다



퍼스트 카우

감독, 각본 켈리 라이카트(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

원작 『The Half Life』, 조너선 레이먼드

주연 존 마가로, 오리온 리, 토비 존스

“새에겐 새집이, 거미줄엔 거미집이, 인간에게는 우정이”

- 윌리엄 블레이크, 『지옥의 격언』 중에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들 혹은 ‘주변’으로 불리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중심’과는 반대된 곳에 있는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사는 주변이 아닌 중심에 존재하는 이들의 서사로 가득함을 알 수 있지요. 영웅 서사가 그러하고 영화의 서사가 그러하니 말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주변부는 희미해지고 가끔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지워진 것이나 다를 바 없죠. 지워지다 못해 아예 인식 자체에 없는

존재, 때론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주변이야말로 오히려 무수히 많고 많은 이 땅의 작은 역사일 겁니다. 중심에 의해 지워져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퍼스트 카우>는 조금은 생경하지만 주변으로 불리는 것들, 흐려진 개별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고 기억하고자 하는 감독의 진심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누구의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불렸으니까요.

미국 개척 시대 은유를 적극적으로 품은 서부극의 시작이, 만약 영웅 이야기가 아닌 ‘영웅이 아니었던 자들’의 이야기라면 과연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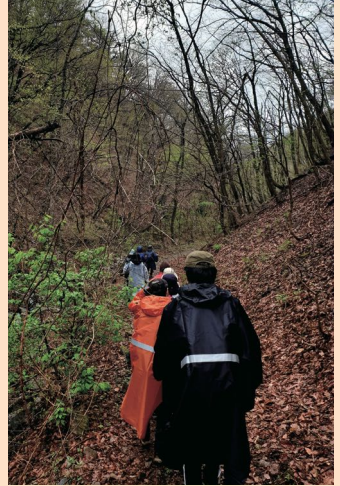
<퍼스트 카우>는 살육과 총성의 세계를 보살핌과 연대로 대체한 새로운 서부극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하대하고 자본이 권력을 움켜쥔 이 거친 서부의 한가운데에서 쿠키와 킹 루는 더없이 상냥한 사람들입니다.

<퍼스트 카우>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옥의 격언> 일부로 시작합니다. 주변인들로 불리는 이들이 보여준 우정과 신뢰로 다시 써 내려간 서부 역사를 상상한 것이지요. 선의와 친절, 베품, 교감, 우정을 토대로 하는 어떤 기원을 다정하고 섬세하게 상상한 것입니다. 개척과 정복으로 물든 강자들의 역사 속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단조로운 것들을 주목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품는 일이고요. 그래서 잊히는 개별 존재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따사로운 풍경을 담은 영화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주변부에서 스러져가는 생명들을 속절없이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풍경의 한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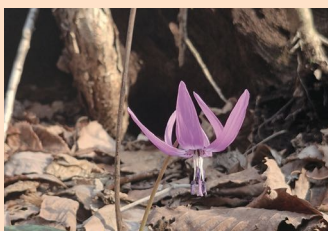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영국 화가, 삽화가. 블레이크는 우아한 선과 선명한 색채, 기상천외한 형상과 영동한 상상력으로 매혹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존 밀턴의 『실락원』 삽화로도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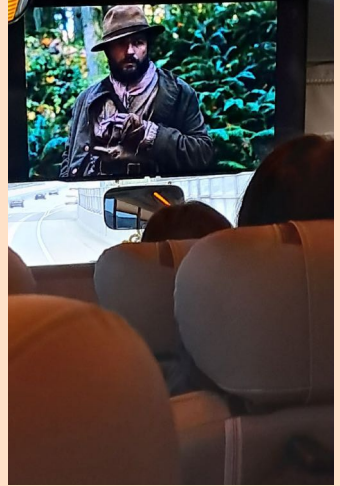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처음 가는 마장터 옛길

김택성(시민)

아침부터 비가 내려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슬비 정도로 비는 약하게 왔고, 약간은 음침하면서 스산한 분위기에 산을 올랐다. 비 오는 날, 오랜만에 입은 우비... 이렇게 낯선 산행을 시작했다.

마장터? 처음 듣는 말이지만 시골 장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 장이 열렸던 작은 시장 같은 것 말이다.

마장터에 도착해 간식을 먹은 뒤 사진을 찍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 완전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나무를 태워 나온 재를 화장실에 두고 뒤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에서는 벧짚이 그걸 대신했다.

어렸을 때는 등산이 재미없어 보여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등산 같은 걸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걷는 독서' 모임에 참여한 걸 보면 나도 뭔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임에 다녀온 뒤 아내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미있다고기보다는 더할 수 없는 만족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아주 활동적이었거나 경치가 아주 멋졌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잔잔하면서도 즐거웠던 산행이었다.



## 마장터 길에서

김산(시인)



오동통한 피나물꽃과 나는 함께 비를 맞았다.  
강가에 함께 누운 <퍼스트 카우> 친구들처럼.  
'어떤 계산도 없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박노해, 『걷는 독서』

귀엽게 돌돌 말린 고깔제비도 여럿 봤다. 바람꽃도 지천이었다.  
비가 와서 기분 좋게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걸었다.  
상쾌했다.  
무거운 눈에 쓰러진 소나무들도 있었다. 누워 자는 것 같았다.  
'봄산에 어느 새 소리도 다른 소리를 누르지 않고 어느 꽃 하나도 다른 꽃과  
다투지 않는다.' -박노해, 『걷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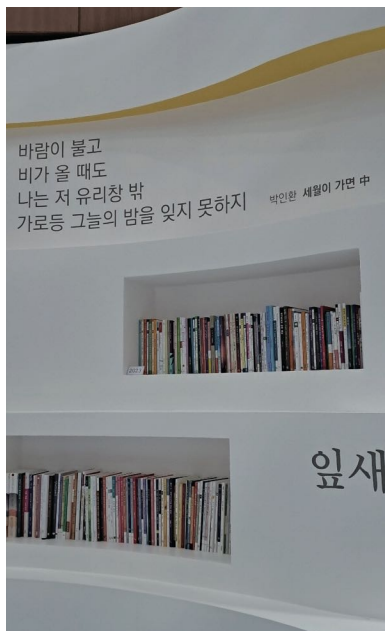


## 박인환 시인과의 재회

김선희(시민)

아침 8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날이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합강정휴게소에 정차했는데 그 옆에 박인환 시비가 보였다. 이 시비는 1988년에 건립된 것으로, 인제 출신인 박인환은 1950년대를 극명하게 살다 간 시인이다. 비록 31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온몸으로 불태운 그의 시혼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 쉰다. 시비 뒷면에 시 ‘세월이 가면’이 원고지에 자필로 새겨져 있었다. 음색이 청량한 가수 박인희가 불러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 ‘세월이 가면’의 노랫말이다.

“지금 그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우산을 쓰고 시비 앞에 서서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가만가만 불러보았다.  
 마장터 옛길을 다녀온 후 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박  
 인환 시인과 재회했다. 1층 로비에 박인환 시인의 시 ‘세월이 가면’ 일부가  
 큰 글씨로 소개되어 있었고, 2층 상설전시실에서는 1950년대 대표 시인, 시  
 와 삶 코너에서 그의 젊고 잘생긴 얼굴 사진과 함께 ‘세월이 가면’ 시 전문을  
 만났다.

나도 세월이 흘러 박인환 시인이 산 나이의 거의 2배만큼 나이를 먹었다. 아  
 침에 일어나 맨발 걷기를 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  
 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다. 오늘 박인환 시인을 만  
 난 인연으로 세월이 가면 나에게도 잊지 못하는 무언가가 풍성하게 남아 있  
 길 기대해 본다.



어둠 속을 떨며 걸어온 인생은 알리라.  
 아침에 눈을 뜨면 눈부신 세상이 있고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경이인지.

- 박노해, 『걷는 독서』, 59쪽

## 마장터 옛길을 걸으며

김선희(아트북싱 책모임)

박달나무 아래에서 출발한  
 내 붓집 속에는 나뭇잎이 가득 들어 있다.  
 장터에 도착하면 이 곡식을 팔아  
 생선과 소금을 사 올 생각이다.  
 어린 자식은 며칠 전부터 비린 생선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안사람은 장 담글 소금이 필요하다 하였다.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니  
 길에 핀 피나무, 죽두리풀, 미치광이풀 등  
 야생화가 계절을 가늠하게 하였다.  
 어느덧 소간령에 도착하였다.  
 서낭나무에 가족의 안위를 기원하며  
 돌무덤에 돌을 던졌다.  
 조금만 더 가면 마장터이다.  
 장터 주막에서 탁주 한 사발 들이킬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볍다.



홀로일 때 충분하지 못하면  
 함께일 때 충분하지 못하다.  
 - 박노해, 『걷는 독서』, 545쪽

## 봄눈에 쓰러진 나무들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사전답사(2024. 4. 7)와 본답사(4. 20) 보름 사이에 눈이 다 녹았다. 눈물이 녹아내린 3월의 계곡물은 계속 분다가 4월이 되면 준다. 보름 사이에 한 뼘이나 줄어 징검다리가 온전하게 드러났다. 이제 완전한 봄이다.



서낭당을 넘어서니 산허리에 나무 수백 그루가 쓰러져 있다. 나뭇가지에 쌓인 젖은 눈이 얼어붙어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맥없이 쓰러졌다고 한다. 이 시기 춘천 대룡산 신갈나무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들도 쓰러졌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위기인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비가 계속 내려 새이령은 포기하고 마장터에서 하산했다. 굴피집 건너편에는 오래된 초가집이 있고 사람이 산 흔적이 있다.



## 내려갈 때 본 그 꽃

김희선(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첫 인문학여행길은 인제 용대리 박달나무 쉼터를 지나 인제천리길 이정표를 시작으로 용대삼거리, 소간령, 마장터, 대간령을 넘어 고성 도원리에 이르는 설악산국립공원 북설악의 옛길 중 마장터까지 가는 여정이다. ‘마장터’는 진부령과 미시령 길이 생기기 전에 인제와 고성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로 인제와 고성의 보부상들이 물목을 교환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비옷을 입고 과거 보부상들의 자취를 따라 빗속의 숲길을 걸으면서 올라가다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노란색 꽃은 줄기를 자르면 피처럼 빨간 물이 나온다는 피나물이었다. 피나물에 이어 5개 꽃잎 모양이 별 같은 별꽃, 고깔제비, 고산지대에서 피는 잎 모양이 심장형인 노랑제비, 보랏빛의 꽃잎이 노래 부르듯 입 벌린 모양의 현호색이 반겨주었다.

시내를 몇 번 건너고 물굽이 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나무와 약초들 사이를 흘러온 약수가 졸졸 나오는 곳에 도착했다. 약수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고 소간령을 지나니 서어나무 군락지가 나왔다. 헬스를 열심히 한 근육질 남성의 몸을 보는 것 같은 서어나무 군락지를 지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바람꽃, 열매가 익으면 깊게 갈라져 고양이 눈처럼 보인다는 팽이를 자주 만났다.

아름드리나무가 폭설에 쓰러져 길목을 막은 곳을 조금 더 오르니 산속에 넓은 마장터가 나왔다.

마장터는 고성의 소금이며 수산물을 교환하던 곳으로 한창일 때는 화전민 3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지 집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그 집 마당에서 잠시 쉬다가 되돌아서 박달나무 쉼터로 돌아왔다. 내려오는 길에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커다란 얼룩무늬잎 속에 수줍게 핀 족두리풀꽃을 만났다. 생전 처음 보는 꽃이 아주 특별해 보여 ‘그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산행에서 조용히 피었다가 지는 꽃들을 만난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내려갈  
 때 그 꽃을 발견하길 바라본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51쪽

## 산 따라 물 따라 옛 자취를 따라

박형미(시인)



‘걷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모임의 성격을 잘 알지도 못했고, 가벼운 산행 코스라는 생각에 단순히 등산을 즐기고자 함께하게 되었다. 출발 버스에 오르니 오늘 일정에 안성맞춤이 될 다과를 준비해준 진행팀의 세심한 배려와 챙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인제가 낳은 시인 박인환의 시비 앞에 잠시 머물다가 인제 북설악마장터 옛길로 들어섰다. 가끔 혼자 산행할 때면 정상에 올라가 내려다보이는 풍경과 정상에 도달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이번 ‘걷는 독서’에서는 걷는 내내 꽃이나 나무의 군락지는 물론 마장터 셋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산행을 경험했다.

내려와서는 인문학여행답게 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 서예박물관에 들러 국내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시의 역사, 대표 시인들을 접하며 어릴 때 교과서로만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감동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학여행으로, ‘걷는 독서’라는 모임의 이름으로 새롭게 접해본 이번 산행과 견학이 잔잔하게 일상의 기억으로 남을 듯하다.

## 새이령, 마장터에서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4월 20일. 인제 새이령 마장터 가는 길.  
2022년 5월 초 첫걸음 이후 세 번째다. 마장터는 유난히 애잔하다. 골짜기에 흐르는 계곡물이 그렇고,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도 자리를 지키는 야생화가 그렇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모양내지 않은 징검돌(징검다리라고는 할 수 없다)이 그렇다.

그 길을 걸을 때면, 속세(俗世, 이 단어가 참 어울린다)와 단절된 착각이 일고, 야생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휴대전화도 필요 없을 듯도 하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이곳에선 맥을 못 춘다. 그래서 이 길에서 나는 겸손해진다. 다른 것 없이 그냥 길을 뿐, 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감탄밖에는 없다.

이곳을 처음 갔을 땐 비가 조금 더 내렸다. 조금 더 초록이었고, 눈 녹은 물이 고인 짙고 깊은 계곡물에 하얀 바위나리꽃으로 그야말로 조출한 풍경이 눈에 선했다. 그곳을 잊지 못하고 5월 말 평일에 다시 갔었다. 봄나물 가마니를 이고 오는 동네분 두엇을 마주쳤을 뿐 산새 소리와 물소리만 들리는 그곳을 일흔 살이 넘는 어머니와 함께 걸었

었다. 적막한 바위나리꽃 계곡에서 외치는 ‘야호’ 소리에 마주친 ‘산사람.’ 적막한 산에서 속세의 사람을 만난 탓인지 산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산속의 집까지 구경했던 기억에 빙그레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더 익숙한 발걸음. 피지 않은 은방울꽃의 새싹 군락도 반갑고, 연령초라는 하얀 꽃이 피었던 계곡 옆의 나무 아래도 한번 들여다본다. 오늘의 발걸음은 조금 더 조출한 삶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 그것이 나를 더 인간답게 한다.(\* 조출하다: 아담하고 깨끗하다. 행동이나 형식 따위가 깔끔하고 양전하다.)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한데.

- 박노해, 『걷는 독서』, 724쪽

## 산이 고프를 때, 마장터 가는 길

심금순(금산초등학교 교사)

4월이다. 잎보다는 꽃을 먼저 피우는 봄꽃들을 맞이하며 설렘던 봄이 가고 있다. 산 아래 도시는 매화, 벚꽃이 지고 다른 꽃들이 앞다투어 핀다. 그리고 연둣빛 어린 잎들이 돋아나고 있다. 빨리빨리 피워내는 그 꽃들과 나무를 보고 있으면 텅달아 마음도 바빠지는 것 같다. 맨 처음 피워내는 꽃들을 보는 설렘도 좋지만 나는 연둣빛 세상이 펼쳐지는 4월의 산이 좋다. 도시는 벌써 새잎이 초록으로 짙어지려고 할 때 뭔가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연둣빛 새잎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인사도 못 하고 보내는 것 같다. 이럴 때 산에 가고 싶다. 연둣빛 가득한 산이 고프다. 이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빛깔을 보러 산으로 가고 싶다. 봄을 맘껏 느끼고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마침 인제에서 고성을 넘나들던 새이령으로 간다고 하니 아침부터 설렘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아직 남아 있을 산벚꽃과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를 기대하며 버스는 인제로 향했다. 가는 길에 합강정휴게소에 들렀다. 이곳을 수십 번 지났을 텐데 주황색 번지점프대에만 시선이 쏠려 그곳에 박인환 시비와 미륵불이 있는지 몰랐다. 가수 박인희의 속삭이는 듯하면서 울림이 있었던 '세월이 가면' 노래가 떠오르고 만년 30세에 머물러 있는 박인환 시인을 떠올렸다.

합강정에서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짧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마장터 입구로 향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좋았던 날씨가 오늘 하필 비가 내린다. 그래도 산은 언제나 좋다. 초입부터 반겨주는 현호색, 이미 지천으로 피고 지고 있는 진달래와 벚꽃이 여기는 이제야 한창이다. 꽃이 한꺼번에 정신 없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시간이 한 걸음 뒤에서 천천히 오는 느낌이다. 멀리 구멍 뚫린 바위를 기점으로 마장터 가는 길이 시작된다.

징검다리 계곡을 건너는데 길이 생각보다 완만하여 걷기에 좋다. 노란색 산 괴불주머니, 풀밭에 내려앉은 개별꽃, 너도바람꽃. 눈으로 보면 하얀색이 도드라져 별같이 아름다운데 사진이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쉽다. 하얀색 남산



제비꽃, 노랑제비꽃, 고깔제비꽃, 금꿩이눈, 미치광이풀, 족도리풀. ‘걷는 독서’에서 야생화를 알아가는 재미도 크다. 뿌리로 있다가 이파리 하나 내고, 또 하나 있을 내며 7년 만에 꽃을 피우는 얼레지. 양구 편치불 돌레길 ‘걷는 독서’ 연수 때 얼레지가 지천에 피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남보라색 처녀치마, 풍차같이 잎이 사방으로 뻗어 있던 개감수. 나만 보라고 돋보이려 하기보다는 군락을 이루며 서로 조화를 이룬 모습이 자연스럽고 더 예쁜 풀꽃들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네 민초들과 닮아 있는 듯하다.

소간령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돌 하나를 정성스럽게 올리며 무언가를 빌었듯이 우리도 돌 하나를 던지며 각자의 소망을 빌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니 평평한 마장터가 나왔다. 마장터에는 아직 산벚꽃이 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간식으로 준비한 김밥과 떡을 맛있게 먹고 다시 마장터 입구로 향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축축한 봄비를 맞으며 걷는 것도 좋았다. 다음에는 날씨가 더 좋을 때 벗님들과 마장터 가는 길을 다시 걸어보고 싶다.



‘바빠서’라는 건 없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닐 뿐.  
- 박노해, 『걷는 독서』



# 강원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준 시간

이창래(모두의부엌 춘천 대표)

열한 살 어린 산골 소년이 진부령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접한 탁 트인 바다의 광활함과 형용할 수 없는 푸르름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충격 그 자체였고, 5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게 동해 푸른 바다는 소년의 감성을 갈망토록 만든 존재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다시 찾은 동해의 푸르름은 내게 삶의 열망과 같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후 연례행사로 동해 푸른빛을 찾았고, 수십 차례 미시령을 거쳐, 진부령을 거쳐 허겁지겁 바다로 치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의 추억을 갈망하며 치닫던 길목의 인제(麟蹄)이기에 ‘합강정’이란 내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흥물스러운 번지점프대마저 바다가 곧 펼쳐진다는 희망의 이정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인제를 이번 ‘걷는 독서’에서 걸으며 마주했습니다. 합강정, 중앙단, 미륵불, 박인환 시비, 한 국시집박물관, 여초서예관, 기적의 도서관 등의 인제는 어린 시절 추억에 갇혀 지나쳤던 내게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난과 질병 등으로 스러져간 민초를 기리는 중앙단에 깃든 조상들의 애민정신, 합강정 한편에서 묵묵히 못 생명의 염원을 보듬었을 미륵불, 박인환의 서정을 잉태해 낸 산과 강, 마을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살고 있는 사람들….

50여 년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이 마주한 인제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자 강원도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삶터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혼한 비극이다.

자기마저 모르는 삶은 더한 비극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65쪽

# 마장터 가는 길에서

정미자(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여행은 일, 사람, 기타 등등으로부터 빗겨나 홀로 나를 만날 수 있어 좋다.

오늘,  
나무, 풀 냄새를 맡고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홀로 피고 지는 꽃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좋다.



먼 옛날,  
미국 북서부의 요리사 쿠키와  
중국인 킹 루를 만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마장터 새이령은 인제 용대리 옛 미시령길에서 고성군 도원리로 넘어 옛길인 대간령(새이령) 길입니다. 진부령(520m)과 미시령(826m) 사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셋령(새이령)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간령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진부령, 한계령과 함께 동서교통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큰 셋령은 대간령(大間嶺), 작은 셋령은 소간령(小間嶺)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장터는 새이령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사람과 말이 쉬어가던 마방과 주막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 대간령 안내문 참고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경험하느라,  
내면의 느낌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박노해, 『걷는 독서』

# 걷는 독서를 함께했습니다

이하나(소양중학교 교사)

‘걷는 독서’가 반가웠습니다.

오는 비도 반가웠습니다.

산길에 만난 개울과 징검다리가 설렘했습니다.

서로의 발걸음을 쫓으며 천천히 천천히 마음으로 걸  
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기다려주신 마음도 잊지 않  
겠습니다.



눈이 막 녹은 4월의 산에는

야생화가 으쓱으쓱 피어 있었습니다.

봄 빗방울을 달게 맞는 피나무꽃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아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겨울은 위로부터 으슬으슬 내려왔지만

봄은 아래로부터 으쓱으쓱 밀어옵니다.

겨울은 얇은 자에게 먼저 몰아쳐 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견딘 자에게 먼저 옵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달려가는(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뿐이었습니다.  
 여기 산에서도…  
 달려가지 않는 꽃을 보며,  
 온전히 받아내는 삶을 생각해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피워내는 삶을 갈망해 봅니다.

‘지금 완전히’

오늘의 걷는 독서가 그랬습니다.  
 작은 개별꽃을 보며 온전히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다 담겼습니다.  
 영원을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 마음속 씨앗 하나 꽃으로 피어나는 건기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걷는 독서’로 여러 곳을 다녔지만, 마장터 옛길을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장터 옛길을 걸을 때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날씨마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듯 하루 종일 가랑비와 함께 걸어야 했다. 그래도 길 양쪽에 온갖 야생화가 마중 나와 꽃길을 만들어 주어 내리는 비가 야생화와 나를 하나로 이어주는 느낌이였다.

소간령을 넘어 마장터로 가는 길가에 피어 있는 갖가지 야생화. 피나물꽃(노랑매미꽃), 현호색, 미치광이풀, 팽이눈, 남산제비꽃, 처녀치마, 너도바람꽃, 개감수...

이름 모를 꽃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더 많았지만, 이번 길에 만난 꽃 중 가장 마음에 다가온 꽃은 ‘피나물꽃’, 다른 이름으로 노랑매미꽃이었다. 노란 꽃 봉오리가 꼭 매미처럼 보이는데, 줄기를 꺾으면 붉은색 액체가 나온다는 피나물꽃. 꽃말은 ‘보이는 게 다가아닙니다’라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걷는 독서’는 늘 보이는 그대로가 다가 아니다. 오고 가는 버스에서 보는 깊은 울림의 영화, 길을 걸으며 만나는 야생화의 이름과 꽃말들, 함께 걸으며 나누는 삶의 이야기와 함께 걷는 사람들 곳곳에 숨은 배려와 희망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걷는 독서’는 늘 설레고, 다녀오면 나도 훌쩍 성장한 마음이 된다.

2024년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4월에 시작된 걷는 독서는 가랑비 속에서도 멋지게 막을 열었다.

우선, 영화 <퍼스트 카우>. 미국 서부 개척 시기 초기인 비버 무역의 시대, 18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데, 서부 개척의 총소리 난무하는 기존의 서부극이 아니었다.

“새에게는 등지, 거미에게는 거미줄, 인간에게는 우정”이라는 메시지가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쿠키와 킹 루의 우정이 서부 개척의 공간을 정과 연대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기존 서부극의 욕심에 따른 총질만 난무하지 않고, 우정으로 엮히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가랑비 속에도 야생화 길을, 계곡을 여러 차례 가로지르며 소간령을 지나 마장터까지 걸었고, 합강정의 박인환 시비와 시집박물관, 여초서예관, 기적의 도서관까지... 특히 사람들로 가득한 기적의 도서관 모습은 다른 때와 달리 더욱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왔고, 함께했던 ‘모두의 부엌’ 운영 자님의 희망을 주는 배려의 이야기도 가슴 깊이 남았다. 내게 ‘걷는 독서’는 마음속 씨앗 하나 꽃으로 피어나는 걸기이다.



마음씨는 마음의 씨앗.  
 지금의 마음가짐이 씨앗이 되어  
 그 모든 결실을 뒤바꾼다.  
 - 박노해, 『걷는 독서』, 133쪽

## 처음 참여한 ‘걷는 독서’, 마음을 빼앗기다

지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4월 20일 토요일, 늦게까지 자고픈 유혹을 뿌리치고 일찍 일어나 8시 전까지 호반체육관에 도착했다. 진행팀이 준비해주신 김밥, 취떡, 꿀, 생수, 견과류와 김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해오신 오이를 받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아침을 든든히 먹고 <퍼스트 카우>라는 우정의 감동을 그린 잔잔한 영화를 보면서 목적지인 마장터 옛길로 향했다.

첫 번째 신 곳은 합강정휴게소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나무 밑에 모여 동행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 퇴직하신 선생님들, 같은 복싱장을 다니며 책모임을 하는 몇몇 분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곳에서 박인환 시비와 별여제가 지내졌다는 중앙단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뒤편에 미륵불이 있었고, 꽃사과나무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사진에 남겼다.

다시 차를 타고 목적지 입구에 도착했다. 비가 약하게 내렸기에 우비와 우산을 챙겨 일단 출발하고 날씨 상황을 보며 대처하기로 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새이령길이며 옛날 장돌뱅이나 보부상들이 짐을 지고 다니던 길이라고 했다. 산길로 들어서면서 계곡물을 건넜고 계속 계곡물을 따라 난 길을 걷고 또 물을 건넜고 했다. 길옆으로는 키 작은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피어 우리를 반겼다. 노란색 피나무꽃, 흰색 별꽃과 나도바람꽃, 연보랏빛 얼레지, 처녀치마꽃 등을 보았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꽃들이었다. 줄줄 계곡물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새로 돌아난 연둣빛 나뭇잎과 커다란 나무에 울창하게 핀 연분홍빛 벚꽃, 새하얀 돌배나무꽃 등을 둘러보며 숲속을 걸었다.

걸으며 나무껍질이 남성의 근육질 같은 서어나무도 많이 보았다. 목적지 가는 중간쯤에 소간령이 있었다. 이곳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큰 나무 밑에 성황당이 조그맣게 지어져 있었다. 이 길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안녕을 빌던 곳이라 했다. 이곳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나무줄기에 흰색 얼룩이

드문드문 있는 물푸레나무도 보았고,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린 때문인지 쓰러진 나무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다.

드디어 널따란 마장터에 도착했다. 그곳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옛날에는 인제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과 고성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팔던 장이 선 곳이라 했다. 여기서 단체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었다. 꽤 오래 걸은 것 같은데 그리 힘들지 않아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처음으로 참여한 걷는 독서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주신 주최 측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비바람 속에서도  
명랑한 얼굴로 피어나는  
눈부신 꽃들에 경배!  
- 박노해, 『걷는 독서』



## 고로쇠나무, 새이령에서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영원한 사랑.” 꽃말이 절실하다. 한 그루 쓰러진 나무였다.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개울가로 쓰러진 그는 20여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였다. 4월의 보슬비에 젖어 어린 가지들에선 연두 새잎이 아련하고 잎보다 먼저 가지 끝에선 연녹색 꽃눈들이 움트고 있었다. 그는 안간힘을 쓰며 빗속에서도 꽃들을 피워 올리는 중이었다.

보름 전 골짜기에 수없이 쓰러진 나무들 중 한 그루였다. 이상 기후라 했다. 잎도 꽃도 없이 실없이 쓰러진 나무들을 지나치며 그저 막연히 마음이 아팠다.

지난 2, 3월은 유난히도 찰진 눈이 많이도 내렸다. 산골사람들은 근래 볼 수 없었던 ‘찰눈’이라 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녹지도 않고 나뭇가지 우듬지에 내려앉아 몰아닥친 꽃샘추위에 얼음이 되어버렸다. 비탈진 곳의 나무들은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넘어지고 말았다. 쓰러진 나무의 밑동을 피해 이리저리 기어가고 넘어서다 가지 끝에 걸려 아예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길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한참 누워 있었다. 나도 잠시 쓰러진 나무가 되었다. 사전답사를 하며 다리에, 허벅지에 남겨진 생채기를 고스란히 안은 채 다시 찾은 골짜기에서 뜻밖에 온몸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나무를 다시 만났다. 버둥대며, 안간힘 쓰며, 진땀을 뻘뻘 흘리며 가지 끝마다 꽃눈을 틔우고 있는 나무 앞에 서니 마음 한쪽이 서늘했다. 안쓰러움과 숙연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무도 몸이 있는 생명체이니 마음도 있는 것일까.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가 꽃 피워 올리는 저토록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황갈색 단풍잎, 아가 손처럼 잎사귀 펼치고, 잠자리 날개 열매 갈바람에 휘날리며 그이의 '영원한 사랑'을 퍼뜨릴 수 있을까. 그가 왔다는 먼 데 아무르, 사할린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식물도감에서 꽃말을 다시 찾아보고 그 이름의 어원도 다시 찾아본다.

“도선국사가 좌선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근처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그 부러진 나뭇가지에서 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받아 마시니 무릎이 펴지고 원기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나무를 뼈에 유익한 나무라는 뜻으로 골리수(骨利樹)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새봄, 새이령 가는 옛길에서 만난 쓰러진 나무 한 그루,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자꾸만 떠오른다.



별이 자신을 불태우며 빛나듯  
사랑은 자신을 다 사르는 것.  
- 박노해, 『걷는 독서』, 131쪽

## 들꽃과 서부 개척 시대의 두 남자

함광연(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바람꽃, 얼레지, 현호색, 처녀치마, 노랑제비꽃, 금괭이눈, 너도바람꽃, 죽도리풀꽃, 쇠뜨기, 미치광이풀...

들꽃의 이름을 적어 보았다. 생긴 모양보다 아름다운 이름도, 이상한 이름도 있다.

들꽃과 함께 걸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를 축축이 맞으며 마장터 옛길을 걸었다. 큰길보다 개울 따라 난 작은 길을 택해 오갔던 백성들, 장돌뱅이들. 그들이 짐을 지고 넘나들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과 닮아 있는 들꽃과 만났다. 오대산에서도 들꽃을 접했지만, 이번이 가장 많은 들꽃과 함께하고, 하나하나의 들꽃 이름이 기억나는 날이었다. 장미축제, 튜립축제... 봄이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이름 있는 축제들과 대비되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들꽃 잔치였다.





마장터 가는 버스 안에서 감상한 <퍼스트 카우>라는 독립영화도 평범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영화를 보며, 쿠키가 젖소의 우유를 흡칠 때 주인에게 들킬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흠친 우유로 만든 빵을 팔아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우유를 넣은 빵을 먹어본 젖소의 주인이 영국의 맛이 난다고 했을 때, 우유를 흠친 일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는 킹 루와 맛있는 빵을 만들던 쿠키는 결국 100년 뒤 강가를 산책하던 여인에게 두구의 유골로 나란히 발견된다.

들꽃과 서부 개척 시대의 두 남자.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둘이 닮아 보여 마음이 아렸다. 서부를 개척하던, 강한 백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었던 원주민들과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살다 간 평범한 사람들...

우리 민족의 아픔이 떠올랐고, 이름 없이 싸우다 어딘지도 모를 골짜기에서 죽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역사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같은 영웅보다 들꽃같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50쪽

## 제1차 인문학여행

##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명	제1차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참여 단체	남춘천여자중학교, 봉내중학교, 서상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우석중학교, 유봉여자중학교, 창춘중학교 등		
일시	2024. 04. 20.(토) 07:30~18:00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 고성군 마장터옛길 및 인제군 한국시집박물관 - 여초서예관 - 기적의도서관		
참여 인원	초·중등 교사 및 시민 21명		
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인제~고성 지역의 옛길 탐방과 인문학여행</li> <li>• 세부 진행 일정과 활동 내용</li> </ul>		
	시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07:3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 인사, 버스영화관 : <퍼스트 카우>
	08:30	인제군 역사와 문화 탐방	인제 합강정, 중앙단, 미륵불, 박인환시비 탐방
	09:30	인제 마장터 옛길 입구 도착	새이령 옛길에 서린 역사와 삶 탐구
	13:30	마장터 옛길 답사	
	14:00	점심식사: 인제 향토음식체험	향토음식체험
	15:00	한국시집박물관 - 여초서예관 탐방	박물관 체험 및 탐방
	16:00	인제 기적의도서관 탐방	기적의도서관 체험 및 탐방
	17:00	인제읍 출발	버스영화관: <퍼스트 카우>
18:00	춘천 도착, 귀가	소감 나누기	
참여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한명숙, 김희선, 박혜진, 심금순, 함광연, 이하나, 장만순, 주민주, 정연실, 정미자, 지명숙, 황현정 / 12명</li> <li>• 시민: 김효문, 김덕성, 김선희1, 김선희2, 김산, 김현호, 이창래, 박준영, 박형미 / 9명</li> </ul>		

프로그램  
사진



인제 합강정 역사 해설



박인환 시비 탐방



마장터 옛길 새이령 서낭당



마장터 화전민촌



옛길에 어린 봄꽃 야생화 탐방



한국시집박물관 탐방



# STORY

---



# 철원 한여울길





## intro

#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다 시민기자가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을 소개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존재다.

희망은, 인간의 영원한 불치병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지난 8월 18일, 함께 책 읽고 함께 길을 따라 답사하는 교사·시민들의 '2024 걷는 독서' 2차 인문학여행이 진행됐다. 이번 철원 한여울길~DMZ '꽃지뢰길' 여행은 이태준 문학을 중심으로 철원의 역사와 문화, 생태 현장까지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고석정·도피안사를 거쳐 두루미평화관에 있는 이태준 문학비와 역사문화공원까지 둘러봤다. 이번 답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답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모두 박노해의 『걷는 독서』 시구를 인용해 한 편의 글을 쓴다는 것이다.

답사의 시작은 언제나 달리는 버스 영화관이다. 일행은 버스 안에서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관람했다. 심금순 교사는 "잉글랜드와 우리는 닮아 있다"라며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해방의 그날, 혼란과 소용돌이 역사 속의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감상평을 전했다. 이번 여행에 대해 임효정 교사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큰 여울이라는 뜻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오르내리며 오랜 세월 바람과 물과 돌이 함께한 합작품이 바로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하는구나. 가끔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했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걸었다."

이 길을 만드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외로운 바위, 고석정의 풍경도 아름다웠다. 한탄강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 신기했다.”

일행은 두루미평화관 앞에 있는 이태준 문학비 주변에 빙 둘러서서 그의 단편소설 『돌다리』를 입체 낭독하는 교사 세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태준 문학비와 그의 조각상을 만난 김선희 교사는 “한국 단편문학의 완성자로 1930년대 우리 문단을 주름잡던 소설가가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맑은 하늘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듣고 있노라니, 1946년 8월 월북한 이후 한국전쟁 뒤 숙청당해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의 비극적 운명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분단과 전쟁 속에 한 시대를 살다 간 천재 소설가를 철원이 영원히 기억해주길 바란다.”*

강원교육연구소와 독서인문교육연구회 VISTA,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강원지역에 대한 인사이트 답사를 통해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는 강원도 옛길 관련 주제 도서를 함께 읽고,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현장을 인사이트 답사한다. 지난 4월 20일에 1차로 인제~고성의 마장터 옛길을 다녀왔고, 다가오는 6월 8일(토)에는 정선~태백 지역 고원길을 걸어볼 예정이다. 교사뿐 아니라 뜻있는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

답사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다’라고 외친다. 유튜브와 OTT 시청률은 몇백만을 기록하면서도 책을 읽는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요즘 시대에 독서와 답사, 글쓰기를 함께 하는 교사·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강원도 교육의 미래가 든든하다. 책 속을 걷는 이들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진보할 것임을 다시 믿어 본다.



〈춘천사람들〉 제420호에 소개된 김정민 시민기자의 글을 옮겼습니다.



## 버스영화관

## 인문학여행과 함께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소개합니다



###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감독 켄 로치

주연 킬리언 머피

제작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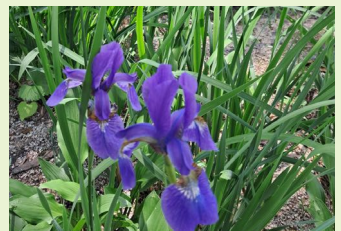
- 2006년 19회 유럽영화상(유러피안 촬영상)

- 59회 칸영화제(황금종려상)

1920년 아일랜드, 젊은 의사 데미옌은 아일랜드인에 대한 영국 군대의 횡포를 목격하고 형 테디와 연인 시니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마침내 영국과 아일랜드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일부 지역 자치만 허용한다는 영국의 발표에 데미옌은 테디와 심하게 대립하고, 시니드와의 애정 관계마저 이상이 생기는데... 조국의 자유를 위해 청춘을 바친 형제의 엇갈린 운명이 시작된다. 아일랜드 독립 전쟁 및 아일랜드 내전을 배경으로 한 형제간의 갈등을 통해 아일랜드 현대사의 비극을 그린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와 8.15해방 직후 한국 사회가 겪은 상황이 연상되기도 한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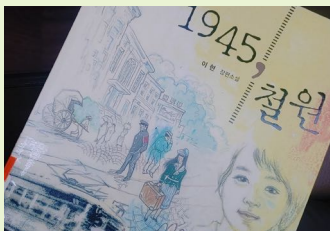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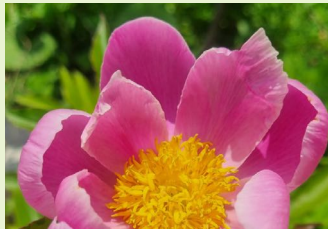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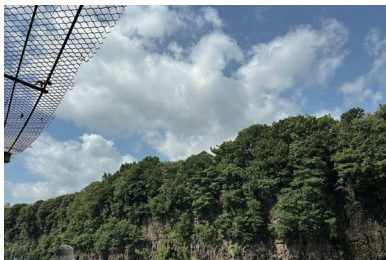
## 철원에서 걷는 독서

김미지(소양중학교 교사)

철원이라는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살면서도 처음 방문하게 되어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주상절리길을 걸으며 철원의 한탄강이 왜 한탄강인지를 듣게 되었고 협곡과 다양한 암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책에서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접하면서 실습 학습법의 중요성을 직접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두루미평화박물관에서 이태준 작가의 작품을 낭독하며 작품 안에 숨겨진 아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읽고 공부했던 이태준 작가의 작품을 철원박물관 앞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는 순간은 매우 특별했고 인상 깊었다. 『엄마 마중』을 함께 되새김질하며 문학은 한 시대를 담는 역사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내가 깨달은 이러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철원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 철원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남과 북이 벌인 전쟁으로 철원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수많은 아픔을 겪으며 철원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철원박물관에서 본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는 교육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시대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참고사와 제자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번 걷는 독서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 것에서 더 나아가 역사의 현장 철원을 몸소 체험하며 역사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회였다.



# 이태준에게 길을 묻다

김 산(시인)

철원에 다녀와서 책을 한 권 찾았다. 새로 찾고  
가려 뽑은 겨레아동문학 선집 1 『엄마 마중』이다.  
책에는 이태준의 글이 몇 편 실렸는데,  
그중 『꽃 장수』를 소개하려 한다.

한 아기가 꽃분 앞에 서서 어머니더러,

“엄마?”

“왜?”

“꽃 장수 용치?”

“왜?”

“이렇게 이쁜 꽃을 만들어 냈으니까!”

“어디 꽃장수가 만들었다든. 길르기만 했지.”

“꽃 장수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이쁜 꽃을 누가  
만들었수?”

“만들긴 누가 만들어……. 씨를 땅에 심으면  
땅속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면 절루 꽃이  
되는 거지.”

“절루 퍼? 땅에 씨만 묻으문?”

“그럼?”

“땅속에 씨를 묻었드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흙을 눅눅하게 적셔 주어야 하고, 또…….”

“또 뭐?”

“또 하늘에서 햇빛이 따뜻이 비춰 주어야 싹이  
터져 자라는 거야.”

“그런 걸 난 꽃 장수가 모두 만들어 내는 줄

알았지……. 그럼 엄마, 저 풀두, 오이두, 호박두,  
나무들두 모두 그러우?”

“그럼.”

“아유…….”

아기는 땅을 한 번 보고 얼굴을 들어 끝없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명랑한 얼굴로 피어나는  
눈부신 꽃들에 경배!  
-박노해, 『걷는 독서』

## 이태준 문학비 앞에 서서

김선희(시민)

5·18 항쟁기념일... 2차 '걷는 독서'는 철원을 향해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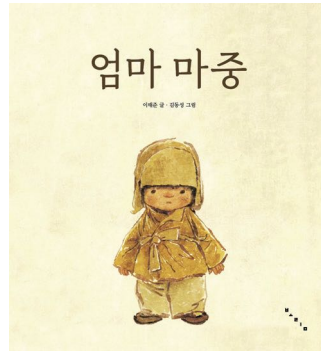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정민 선생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르던 '오월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점심식사 후 두루미평화관 앞에서 이태준 문학비와 그의 조각상을 만났다. 한국 단편문학의 완성자로 1930년대 우리 문단을 주름잡던 소설가가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의 서자이자 고아로 자란 그는 20대 중반까지 굶주림과 노숙, 밀바닥 생활을 전전했다. 그러나 소설가로서 서정적인 문체와 치밀한 묘사, 가난한 민중에게 사랑이 담긴 소설로 인기를 얻게 되고 1933년 서울 성북동에 '수연산방'이라는 작은 한옥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도 카페로 남아 있다. 작년 6월 걷는 독서 서울편에 그곳을 방문하여 정원을 거닐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이태준 문학비 주변에 빙 둘러서서 그의 단편소설 『돌다리』를 입체 낭독하는 세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맑은 하늘과 실랑실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듣고 있노라니 1946년 8월 월북한 이후 한국전쟁 뒤 숙청당해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의 비극적 운명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분단과 전쟁 속에 한 시대를 살다 간 천재 소설가를 철원이 영원히 기억해주길 바란다.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 하나 있다.

사람의 마음 문이다.

힘으로 그를 꺾을 수는 있어도

힘으로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박노해, 『걷는 독서』, 53쪽



# 도피안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김선희(아트북싱 책모임)

## 도피안사

규모가 크지 않은 사찰 도피안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금칠한 화려한 불상이 아닌 자비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아이돌 철불상이다. 그런데 왜? 철로 만들었을까? 통일신라 말기 혼란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기존과는 다른 철을 소재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남 보기에 화려함이 아닌 불교의 목적, 즉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함이 목적이기에 그러한 듯하다.

## 가장 좋았던 이태준 님의 『돌다리』 낭독회

땅의 본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아버지와 자본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이 담겨 있다. 아버지의 고집에 화내거나 삐질 만도 한데 군말 없이 물러서는 아들. 두 사람 모두 착하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감독 켄 로치는 영국인이다. 함께 독립운동하던 동지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모습과 닮았다. 데미언이 개업의가 되려고 런던으로 떠났더라면 친구 크리스를 직접 처형할 일도 없었을 텐데, 형이 동생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텐데…. 하지만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살지 않았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행동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행동하지 않는 자로 남을 것인가? 5월 18일이어서 더 생각하게 만든다.



정말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나는 순간부터  
나만의 영화가 시작된다.  
-박노해, 『걷는 독서』, 388쪽

#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 한탄강(漢灘江)

클 漢, 여울灘, 강江. 큰 여울이 있는 강으로 궁예가 왕건의 쿠데타로 밀려나 이 강을 건너며 한탄했다는 민간설화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도 한다. 한탄강은 길이 136km로 평강군에서 흘러 철원, 연천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해서해로 나간다.

## 주상절리(柱狀節理)

기둥 모양(柱狀) 암석이 갈라져 생긴 틈(節理)의 합성어. 화산 폭발 때 땅 위로 솟은 용암이 냉각과 응고를 거듭하며 생긴 다각형 모양의 돌기둥. 한탄강 주상절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이다.

### 잔도(棧道)

사다리 棧, 길 道. 험한 벼랑에 선반을 매듯이 만든 길. 잔도는 과거 험산준령을 잇는 길로 일정한 수준의 사람, 가축, 물자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은 잔도 옛길을 수리·보수하여 관광 자원화하였고, 한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곳에서 상업용 잔도를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던 벼랑길 잔도는 이제 많은 사람이 양방향으로 건을 수 있게 되었다. 잔도 길은 철골로 만든 기둥과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암벽에 많은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으며, 이때 주상절리는 균열이 생겨 언제든지 무너져내릴 수 있다. 불안한 잔도 길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숨 쉬는 옛길이 좋다.’





# 나의 추억에서 우리의 기억으로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5월 18일,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으로 철원을 방문했다.

순담에서 드르니로 이어지는 주상절리길을 걸었고, 고석정, 도피안사를 거쳐 이태준 문학비에서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를 낭독하기도 하였으며, 역사문화공원에서 변사가 들려주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관람한 후 춘천으로 돌아왔다.

이른 아침, 철원으로 향했다. ‘철원(鐵圓)’, 쇠둘레. 그 이름만으로도 나의 마음은 몽글몽글해진다. 난 어린 시절, 정확히는 다섯 살부터 열다섯 살 여름까지 철원에서 살았다. 오롯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철원의 것이었다. 명성산의 옆얼굴을 손가락으로 그려보았고, 거센 밤바람 소리는 궁예의 울음소리였다. 최전방 지역답게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는 인근 부대의 탱크와 장갑차 전시가 있었고, 군인 아저씨의 행군을 도로변에서 박수 치며 맞이했으며, 전단을 주워 경찰서에서 학용품으로 바꾸기도 했다. 은하수가 가로지른 하늘 위로 높이 쏘아 올린 조명탄을 불꽃놀이로 알고 장독대에서 방방 뛰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의 철원.’ 여름휴가 내내 텐트 치고 물놀이하던 순담계곡은 이제 사람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까마득히 높아 보이던, 임꺽정이 숨어 있었다는 고석정의 절벽은 출입금지 팻말이 둘러 있고, 소풍 갔던 모래밭도 다 깎여나가 이젠 초승달처럼 남았다.

‘나의 추억.’ 어린 시절에도 경험한 바 없는 오래된 무성영화가 마치 나의 오랜 추억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변해버린 철원의 풍경 속에서 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다시 내가 태어나기도 더 전에 사람들과 철원역의 기차 소리로 북적이는 철원의 풍경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속의 추억이 된다.

‘우리의 기억.’ 고려의 유신이었던 길재의 시조 한 편이 떠오른다.(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디 없다./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흥망성쇠(興亡盛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한명회가 갈매기와 놀며 지냈다는 압구정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富村)이 되어 있고, 한국전쟁 이전 인구 10만 명에 달했던 철원은 이제 그 반 토막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 궁예의 도망치는 비참한 뒷모습과 조선 명종 때인 1561년 '왕정의 잘못(王政之失)'으로 봉기했던 임궽정의 최후를 떠올린다.

오늘 철원의 풍경은 '나만의 철원, 나만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산하(山河), 우리의 기억'이다.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철원의 풍경을 상기시킨다.



산정(山頂)에 올라야 산맥(山脈)이 보이고  
산(山)에서 나와야 산이 보인다.

-박노해, 『걷는 독서』, 417쪽

# 1945, 2024 철원

심금순(금산초등학교 교사)

달리는 버스 영화관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잉글랜드와 우리는 닮아 있다.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해방의 그날

혼란과 소용돌이 역사속의 사람들.

1945, 철원

보이지 않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철원에 남은 경애와 공산주의자 도련님 기수,

콧대 높은 양반집 딸 은혜

서울 가는 기차는 끊겼지만

‘철원애국청년단’의 도움으로 난 월남할 거야.

2024, 철원

큰 여울, 한탄강

화구로부터 분출한 뜨거운 용암이 굳어

수직절벽의 절경을 만들어내니,

아침부터 관광객이 줄을 서네.

의적 임꺽정이 숨어 지내다 잡혔다는 고석정 바위

한탄강과 어우러져 여전히 아름다운 명승지.

어제의 전쟁을 잊은 듯 고요한 철원

27만 발이 넘는 포탄이 고지에 투하된 탓에

산 정상부가 1m나 낮아졌다는 백마고지전투

드넓은 철원평야를 빼앗긴 김일성은

고암산에서 사흘을 통곡했다지.

철마는 달리고 싶다. 나는 시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노동당사에서 철원역까지  
 전국 판소리 대회가 열리곤 하던 철원극장,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던 관전리 장터도  
 삼팔선으로 경원선이 반 토막 나자  
 변화의 물결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지.  
 폭격으로 무너진 노동당사는 철원역사문화공원을 굽어보며  
 지금은 가림막에 가려진 채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 이현, 『1945, 철원』, 창비에서 인용



오직 인간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존재다.  
 희망은, 인간의 영원한 불치병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793쪽



# 철원 주상절리

이하나(소양중학교 교사)



푸른 산길을 걸어 오른다.

오랜 세월을 살아내며  
흐르는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주상절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강 옆에 철제 길을 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어서 오라고  
잘 다녀가라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무심히 나를 쳐다보고 있다.

피고 지는 꽃처럼  
왔다 가는 인의 물결

스치는 바람처럼 찰나의 순간  
가만히 바라보는 너의 눈과 마주친다.

너의 눈이 천천히  
나의 삶을 한 바퀴 돌아본다.

멈추기 위해 여기에 온 내가  
멈추지 않고 서 있는 너를  
바라본다.  
소망한다.



삶을 허겁지겁 살지 않기.  
생의 정수만을 음미하며 살기.  
-박노해, 『걷는 독서』, 435쪽

## 물 따라 걷는 독서

임효정(시민)

오랜만에 좋은 분들과 함께 걷기 위해 철원에서 태어난 이태준 작가의 『무서  
록』을 읽어보았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하면 이의  
맑은 덕, 남의 더러움을 씻어는 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이  
이에게 있는 것이다. 이를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이를 사괴일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 중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물을 바라보던 이태준 작가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많이 걸었다.

큰 여울이라는 뜻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오르내리며 오랜 세월 바람과 물과  
돌이 함께한 합작품이 바로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하는구나 생각했다. 가끔 밑  
을 내려다보면 아찔했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걸었다. 이 길을 만드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외로운 바위, 고석정의 풍경도 아름다웠다. 어릴 때 임꺽정이라고 놀림을 받  
았는데(가끔), 그의 은신처였다고 하니 괜히 친근하게 느껴졌다. 한탄강 한  
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 신기  
했다.

도피안사는 철조불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한  
다. 한 선생님께 김 선생님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 더 귀하신 부처  
님 같아 보였다. 화려하게 피어난 작약에 반하여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두루미평화관에는 이태준 문학비와 조각상이 있었는데, 황량하고 쓸쓸해  
보였다.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훌륭한 소설가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예술가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세 분 선생님이  
단편소설 『돌다리』를 낭독해주셔서 귀가 호강했다. 다른 소설도 더 찾아 읽  
어봐야겠다.

역사문화공원에서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1인 낭독극 공연을 보았다. 무성

영화인데, 젊은 변사가 흥미진진하게 낭독해서 내심 감탄하며 보았다.  
 돌아오는 버스 영화관에서 아침에 보던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마  
 저 보았다. 전쟁은 평화로운 마을과 이웃 사람들, 친구들, 연인, 심지어 가족  
 까지 분열시키고 처참하게 망가뜨린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  
 지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켄 로치 감독의 다른 영화도 더  
 찾아서 보고 싶다.  
 ‘물 따라 걷는 독서’ 철원 여행을 다녀와서 더 찾아보고 싶은 책과 영화도 생  
 기고 나무와 꽃 이름도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발길 닿는 곳마다 반짝이는  
 새로움을 발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았다.



오늘은 다르게.

나날이 새롭게.

-박노해, 『걷는 독서』, 165쪽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5·18에 스치는 철원과의 만남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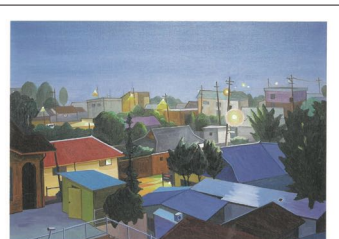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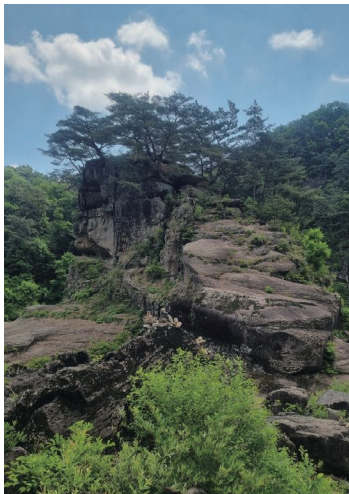
44주년 5·18 기념일,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을 보며 철원을 만났다.

철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아일랜드의 비극적 역사만큼이나 비극적인 우리 역사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철원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찍어대던 제주의 아름다운 곳들이 사실은 학살의 현장이었고, 비극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5·18기념일에 만난 철원도 아름다운 풍경 속 비극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곳이었다.

오전에 한탄강 순담매표소에서 드르니까지 걸었

던 주상절리길은 길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모처럼 날씨 좋은 휴일에 사람들로 붐벼서 좁은 길을 따라 오고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에 떠밀려 걷다 보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와 보리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다만 잠시 쉬어가는 전망대 앞에서 해설사에게 한탄이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한탄(恨歎)’이 아니라 ‘한탄(漢灘), 한여울, 곧 큰 여울’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고석정(孤石亭)은 세 번이나 갔던 곳으로 새로 만들어진 계단 옆으로 양쪽에 두루미 암컷과 수컷이 각각 철원 지역 지질을 대표하는 화강암과 현



전시제목 : 스치는 풍경  
전시장소 : 철원역사문화공원 전시관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 5월 30일 - 6월 2일, 매주 화요일 휴관  
전시료 : 무료 (5월 30일(금) 오전 11시  
작가와의 만남 :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스치는 풍경  
풍경이란 바람과 빛의 조화를 의미한다.  
시작을 가지고 보는 중재의 존재가 바람과 빛에 의해서 만들어낸 광림까지 많은 대상과 마주할 때 우리는 풍경과 만나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용기는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관계성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바라본 고개의 모습을 풍경은 광림한 풍경 고개면, 자연과 내가 만난 순간을 그린 것이라 하였다.

무암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오늘은 질이 다른 화강암과 현무암이 ‘분단’을 더욱 실감하게 했다. 아래에서 전설의 영웅 ‘임격정’의 은신처였다는 말에 고개 들어 고석정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 느껴졌다.

도피안사에 들러 만난 철제 비로자나불은 한 손의 검지를 다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너와 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하며 아담하고 잘생긴 얼굴로 맞아주었다.

점심을 먹고 들른 두루미평화관에는 이태준 문학비와 조각상만이 쓸쓸해 보였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작품을 낭독하고, 오래전 읽은 동화 『엄마마중』을 떠올리며 생생하게 다시 만났다.

옛 노동당사는 사진 천막으로 가려진 채 여전히 복원 공사 중이었고, 그 근처에는 역사문화관이 있었다. 옛 철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관과 옛 철원의 모습들로 꾸며진 부스들, 인력거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와서 찾아보니 윤대룡 감독의 이 영화는 1948년에 개봉했으며,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4호로 제정된 한국 영화 최후의 무성영화이자 마지막 번사 공연작으로, 1948년 서울의 전차, 철도, 골목, 책방, 법정 등 도시 풍경을 영상으로 담은 기록적 가치가 인정되는 영화라고 한다. 실제로는 1시간 분량이 조금 넘는데 우리가 본 내용은 20~30분 정도로 요약된 것으로, 신파 가득한 내용보다는 젊은 번사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남아 있다.

역사문화관 안에서 열린 배병규 작가의 ‘스치는 풍경’ 전시도 기억에 남는다. 이 전시장에 있던 구절 중 “내가 바라본 고향의 마을 풍경은 평범한 풍경 같지만, 자연과 내가 만난 순간을 그린 것이라 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의 철원은 철원과 내가 만난 순간, 역사의 현장을 ‘스치는’ 그런 만남이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감내했는가.

그리하여 얼마나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박노해, 『걷는 독서』, 272쪽

## 철원에서 평화를 그리다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걷는 독서’ 답사로 철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버스 영화관에서 보았던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내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를 전 영화감상반 학생들과 함께 영국의 실업과 복지 문제를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감명 깊게 보았는데 이날 감독의 숨겨진 명작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1920년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과 내전을 다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아일랜드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았다. 아일랜드는 70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영국의 지배에 반대해 독립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무장투쟁이 일어났으나 내분으로 영국령이 되는 북아일랜드와 독립국인 남아일랜드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찾았으나 냉전체제가 심해지면서 남과 북에 체제를 달리하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형제가 이념대립으로 갈라서고 영국군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밀고한 친구에게 충구를 겨누기 전 “조국이란 게 정말 이렇게 행동할 가치가 있는 거겠죠?”라며 질문을 던지던 주인공은 결국 자신이 지지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목숨 걸고 항일투쟁을 한 우리 선조들과 6·25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고 DMZ(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이 생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겹치면서 영화에 몰입해 인상 깊게 보았다.

철원은 6·25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후 남한 땅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후 6·25전쟁 전까지 공산 치하 5년 동안 북한이 관리하던 조선노동당 철원군 당사가 지금도 남아 있다. 2년 전 철원을 찾았을 때도 총알 자



국이 흥터처럼 남아 있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허물어져가던 노동당사를 볼 수 있었다. 그날 나는 70년 전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노동당사를 바라보며 전쟁의 실상과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니 노동당사는 새롭게 단장하려고 가림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다시 철원을 찾게 된다면 노동당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하다.

경성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던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철원 월정리역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강렬한 팻말과 객차 잔해가 남아 있다. 서울에서 경원선 기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소풍을 다녀오던 때가 있었다. 지금 북한 땅은 두루미와 황조롱이, 독수리 등 새들만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철원에 오니 하루빨리 통일되어 끊어졌던 기찻길이 이어지고 북녘으로 기차여행을 갈 날을 꿈꾸어 본다. 그날이 오면 나는 기차를 타고 우리 아버지 고향에 가보고 싶다. 나는 어느새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 된 그날을 그려본다.





## 철원 인문학여행을 다녀와서

최경화(사내중학교 교사)

철원 출신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돌다리』의 낭독을 들은 후 관심이 생겨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다시 차분히 읽어보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나 집에는 물질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다. 자본주의 시점으로 보면 땅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여 돈을 버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땅을 돌보고 돌다리를 고친다.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는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소설을 읽고 40년 이상을 살아온 낡은 집이지만 그동안 쌓여온 추억을 소중히 여겨 불편하지만 계속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떠올랐다.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철원역사공원에서는 예전의 극장, 우체국, 거리 등을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무성영화 공연이 인상 깊었다. 영상에 변사의 소리 효과가 들어가니 훨씬 의미 전달이 잘되었다. 예전 시대의 문학이나 문화를 살펴보니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풍요로웠고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다.



## 한여울길에 대한 단상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그랬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도간 발령! 25년 전이었다. 그 시절에 도시를 마다하고 굳이 강원도를 선택하여 도간 발령 신청을 하는 나를 두고 당시 교육청 장학직에 있었던 사촌 오라버니 그리고 뜻밖에 만난 중학교 은사였던 교감은 물론 다른 동료 교사들은 나를 별종처럼 생각했다. 오지 산골을 염두에 두었던만 생각지도 않게 강원도에서 첫 교단생활은 신철원에서 했다.

갓 20개월 된 아기와 맞는 철원의 새봄은 정말 추웠다. 관사 배정도 되지 않아 벽돌로 둘러친 곁방살이에 낮설고 추운 방을 견디려고 아장거리며 걷는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자마자 혹은 주말마다 철원의 곳곳을 누비며 다녔다. 이제는 우람한 새 다리 옆에 유적지로 남아 있는 승일교를 건너 옛 철원 땅인 동송읍을 향해 달리다 보면 시원스레 펼쳐진 철원평야가 늘 마음을 씻어주곤 했다. 모내기 철 왈차하게 밤을 울리던 개구리 떼 울음을 따라, 초록으로 눈부신 여름 들판 그리고 가을날 논이 풍성한 황금물결, 무엇보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가 기억하는 늦가을 저물녘, 나락논의 동치만 남은 빈 들판에서 새떼와의 만남... “새야~” 뒤통대며 쫓아가던 아이의 뒷모습과 우르르 날아 올라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곡선의 비행을 하던 새떼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장맛비 그치고 한탄강 여울물에서 동료들과 래프팅을 하며 보트의 선수에 앉아 물벼락을 다 받으면서도 주상절리 아름다움에 눈길을 거두지 못했던 일, 명성산 역새발 사잇길에서 도토리 잔에 한잔 술을 돌리며 궁예의 설움을 느꼈던가. 보름달이 뜨면 달려갔던 삼부연폭포 아래서 새벽이 오도록 나누었던 길고 긴 이야기들. 늦은 밤까지 학급문집 탈고를 마치고 순담계곡 지나 편집장 학생을 집에 내려주고 귀가하며 달려든 밤동물을 피하려다 자동차가 그대로 논바닥에 떨어져 꼼짝없이 갇혀 칙흑의 밤을 맞았던 일...

오늘, 언제 가도 고즈넉했던 도피안사도, 철골만 남은 황량함으로 생각에 젖

게 했던 노동당사도 간데없어지고…. 절집 마당 가 나이 든 느티만이, 말없이 내려다보시는 철불 비로자나불상만이 옛 기억을 불러낸다. 한탄강 고석정에서 민영 시인의 ‘영경귀꽃’을 읊조려보고, 이태준 문학비 앞에서는 그의 단편소설 『돌다리』를 입체 낭독했다. 김소진, 이현, 박서련 작가로 이어지는 철원 땅은 분명 한국문학의 근원지이며 진행형이다. 오늘의 꽃지뢰길이 우리 역사의 한복판을 부여잡고 현재진행형으로 내일을 향해 지평을 넓혀가길, 이 땅의 온전한 한여울길로 이어질 날을 고대해본다.

영경귀야 영경귀야 철원평야 영경귀야  
 난리통에 서방 잃고 홀로사는 영경귀야  
 갈퀴손에 호미잡고 머리위에 수건쓰고  
 콩밭머리 주저앉아 부르느니 님의이름  
 영경귀야 영경귀야 한탄강변 영경귀야  
 나를두고 어디갔소 쑥국소리 목이메네.

-민영, 「영경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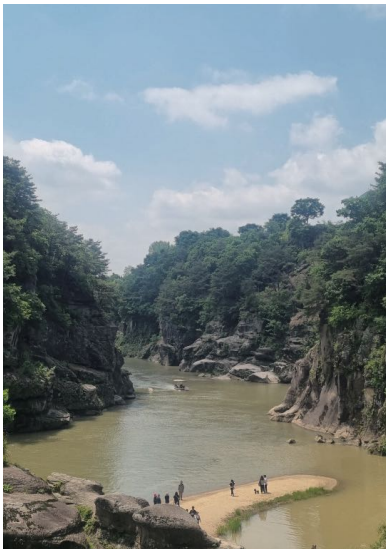
경험은 소유하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체험 속에서 나를 소멸해가는 것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123쪽



## 주상절리길을 걸으며

함광연(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철원에 서너 번 가보았지만, 매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상절리길을 못 가서 못내 아쉬웠다. 이번에 ‘걷는 독서’ 모임에서 주상절리길을 간다고 해서 반갑고, 기대가 컸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걷기에 좋은 계절 탓인지 철원에 몰린 인파로 주상절리길 3.6km를 걷는 동안은 사람에 치여서 좀 정신이 없었다.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을 방불케 했다. 바위와 폭포, 시원한 강바람이 없었다면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 지난달 마장터 옛길을 걷던 때가 생각이 났다. 그때는 비가 와서, 사람이 적어 호젓한 산길을 우리 일행만 오롯이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었다.

가는 동안 버스 영화관에서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감상했다. 보는 동안 여러 번 울컥하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동료들 고발한 크리스를 향해 충을 겨누는 데미엔에게 크리스가 주인과 같은 곳에 묻지 말라는 말과 무섭다고 말했을 때, 데미엔은 런던에서 의사로

일할 기회를 버리고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싸우는 걸 선택하여 고초를 겪는다. 내심 시니드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의견이 다른 형의 명령으로 데미언이 죽음(총살당함)을 맞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군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떠올랐다. 형제가 남과 북으로 갈려 싸워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아일랜드 사람들과 우리 민족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어 가슴이 아렸다.

두부촌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철원역사문화공원으로 향했다. 철원의 인구가 6·25전쟁 전 9만 명이었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지금의 인구는 4만 명이라고 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 도시를 재건하며 살게 됐다고 한다. 관광지로 철원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사는 건 대도시를 선호하는 세태를 꾸짖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철원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니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만감이 교차하였다. 그럼에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철원에서의 걷는 독서는 유익하고 보람찬 여행이었다.



# ‘평온한 어떤 다른 날’에 다다를 수 있기를

황현정(동내초등학교 교사)

이번 철원 인문학여행을 다녀와서 오래전 읽었던 『1945, 철원』을 다시 펼쳤다.

그저 아주 작은 꿈을 품었을 뿐인 소녀, 경애.

“나는 그저 아주 작은 걸 바랐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평온한 어떤 다른 날에 다다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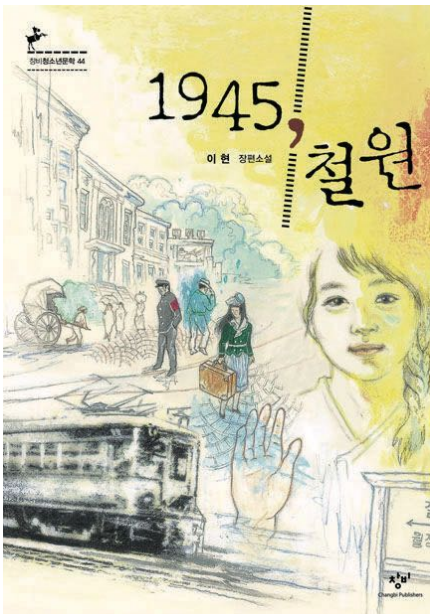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던 소년, 기수.

“… 묻고 싶었다. 꼭 그랬어야 했느냐고… 그날은 어디로 간 걸까… 어디서  
부터 길을 잃은 걸까…”

버스 안에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보았다.

처형을 앞둔 데미언이 사랑하는 연인 시니드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이상  
한 존재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아이러니. 그것이 전쟁이다.

아일랜드의 ‘보리밭’, 그곳은 다름 아닌 1945~1947년의 ‘철원’이다. ‘서로 다른 이념’이라는 ‘바람’ 속에서 평범한 꿈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소리 내어 불러본다. 경애, 기수, 홍정우, 서화영, 은혜, 미자, 봉아 그리고 봉아들. 데미엔, 테디, 시니드 그리고 시니드들. 그들이 ‘평온한 어떤 다른 날’에 다다를 수 있기를.



평온한 저녁을 위하여.

For a Peaceful evening.

-박노해, 『걷는 독서』, 333쪽



## 제2차 인문학여행

## 다녀왔습니다

<b>프로그램명</b>	제2차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b>참여 단체</b>	동내초등학교, 서상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봄내중학교, 봉의중학교, 사내중학교, 우석중학교, 유봉여자중학교, 강원교육연구소		
<b>일시</b>	2024. 05. 18.(토) 07:30~18:00		
<b>장소</b>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상절리길 - 고석정 - 도피안사 - 이태준 문학비 - 노동당사 외 철원역사문화공원 일원		
<b>참여 인원</b>	초·중등 교사 및 시민 21명		
<b>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강원 철원 지역의 옛길 탐방과 인문학여행</li> <li>• 세부 진행 일정과 활동 내용</li> </ul>		
	<b>시간</b>	<b>활동 주제</b>	
	<b>활동 내용</b>		
	07:3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인사
	09:30	버스영화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감독)	아일랜드영화를 통해 본 분단조국의 현실
	10:00	한여울길 - 주상절리길 답사	한탄강과 한여울길, 주상절리길에 서린 역사와 삶 탐구
	12:00	고석정 - 역사문화재 탐방	
	13:00	점심식사: 철원 향토음식체험	향토음식체험
	14:00	이태준문학비 탐방	입체낭독회: 이태준 대표작
	15:00	철원역사문화공원 탐방	철원의 옛 역사 탐구
16:00	철원읍 출발	소통 나눔 공감 - 소감 나누기	
18:00	춘천 도착, 귀가	후기 쓰기 안내	
<b>참여자 명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한명숙, 김미지, 김정민, 김희선, 박혜진, 심금순, 유희순, 이하나, 주민주, 정미자, 정연실, 최경화, 함광연, 황현정 / 14명</li> <li>• 시민: 김효문, 김선희1, 김선희2, 김산, 김현호, 임효정, 이창래 / 7명</li> </ul>		

프로그램 사진



한탄강 주상절리길 답사



주상절리길 자연생태 해설



한여울길-고석정 역사 해설



한여울길-고석정 답사



두루미평화마을-이태준문학비 탐방



평화마을 입체낭독회



# STORY



# 태백·정선 고원길





## intro

## 태백 고원길을 소개합니다

두문동재에서 시작해 금대봉(1,418m), 분주령(1,080m), 대덕산(1,307m)을 거쳐 한강발원지인 검룡소로 이어지는 능선은 야생화 군락지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 구역은 가꾼 듯, 가꾸지 않은 듯 아름답게 핀 들꽃이 천지다.

### 두문동재(짜리재)

본래 두문동은 고려 말기 유신들이 조선에 반대해 벼슬을 거부하고 은거하여 살던 곳으로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의 골짜기에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가 넘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는 만항재(1,330m), 그다음으로 높은 고개가 이곳 두문동재(1,268m)이다.

두문동재(杜門洞峙)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 고한읍의 경계에 있는 해발 1,268m의 고개로 짜리재라고도 하며, 국도 제38호선과 백두대간이 통과한다. 개통 당시에는 2차선의 구불구불한 도로로 그대로 고개를 넘어갔으나, 2001년 두문동재터널이 확장 개통됨에 따라 산을 넘어가던 기존 도로는 폐지되었다. 근처에 용연동굴, 추전역, 금대봉, 함백산 등이 있다.

### 금대봉

금대봉은 금대화해(金臺花海)라 하여 태백12경 가운데 하나이다.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에 들어 있는 금대봉은 5월 15일 이후라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예약제에 구애 받지 않고 탐방이 가능하다.

금대는 검대에서 온 말로 ‘신(神)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 또 금이 많아서 ‘금대(金臺)’라고도 하는데, 금대봉에는 금을 캐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금맥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 분주령

태백시 창죽동과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대덕산과 검룡소, 두문동재로 가는 길은 뚜렷하나 하장면 한소리 방향으로로는 목책으로 막아놓았다. 우측으로는 검룡소와 주차장으로 가는 등로가 보이고 이정표와 안내판이 있다. 1,000m가 넘는 고원 능선을 걸으며 길옆 야생화를 구경하다 보면 시야가 탁 트이고 파란 하늘이 눈에 닿을 듯 다가온다. 고원 데크 계단을 내려가면 숲길로 이어진다.

### 금대봉

금대봉은 두문동재 북쪽에 있는 '양강발원봉'이다. 서쪽 물은 검룡소(儉龍沼)를 출발해 한강으로 흐르고, 동쪽 물은 용수골에서 시작해 낙동강 천 리 물길로 이어진다. 정상 부근은 '산상의 야생화원'으로 불린다. 금대봉과 북쪽의 대덕산 일대 126만 평은 환경부가 지리산 노고단과 함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금대봉 정상은 10평쯤 되는 평지로 통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경관은 별로이고, 시시티브이(CCTV)와 기상관측장비, 작은 표지석만 있다.

### 대덕산

'턱스러운 산봉'이라는 이름을 지닌 산답게 웅장함과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산으로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과 삼척시 하장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정상부에는 초지가 넓게 펼쳐지며 양증맞은 정상석과 삼각점이 있고, 주위의 모든 산이 다 보이는 그야말로 일망무제인 산이다. 대덕산의 북쪽 사면에서 발원한 수계(水系)는 남한강의 지류인 동대천(東大川)으로 흘러들고, 남쪽 사면에서 발원한 수계는 골지천(骨只川)의 최상류를 이루며 북쪽으로 흐른다. 보호야생종인 삶과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발견되었다.



야생화 트레킹을 하려면 코스를 정한 뒤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해야 한다. 검룡소 구간(주차장~검룡소)과 백두대간 구간(두문동재~금대봉~매봉산)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버스영화관

인문학여행과 함께한

## 영화 &lt;나의 올드 오크&gt;를 소개합니다



나의 올드 오크

감독 칸 로치

주연 데이브 터너, 에볼라 마리

제작 2023년 영국 프랑스 벨기에 합작

- 2024, 35회 팜스프링스국제영화제(Bridging the Borders 특별 언급)
- 2023, 50회 겐트영화제(관객상)
- 제76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영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 예전엔 광산의 광부들로 활기찼던 마을이었지만 폐광 이후로 떠나지 못한 일부 주민들만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의 집값은 떨어지기만 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는 어느 날, 영국 정부에서 허가한 시리아 난민들이 마을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한 시리아 여성과 마을에서 유일한 술집을 운영하는 한 남자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야”

〈나의 올드 오크〉는 항상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의 약자를 대변해 왔던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26번째 장편이다. 그의 무수한 전작들처럼 이번 작품에서도 사회적 이슈를 다루지만, 그 가운데 힘겹게 솟아나는 인간애가 강조된다.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는 켄 로치 감독의 열정은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거장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 \*올드 오크(The Old Oak)

영국 북동부의 어느 폐광 마을에 있는 오래된 술집. 주인공 TJ 발렌타인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매기와 교대로 바에서 일한다. 마을 사람들이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름처럼 입구에 녹색 바탕에 큰 참나무가 그려진 팻말이 걸려 있다.



**켄 로치(Ken Loach, 1936년~ ):** 영국 영화감독 겸 각본가.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레이닝 스톤》, 《빵과 장미》[1] 등 노동 계급, 빈민, 노숙자 등의 주제를 사실적으로 그린 사회적 사실주의 영화를 많이 제작했다.

1970년 《케스》로 카를로비바리 영화제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제영화제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1977년에는 대영 제국 훈장 4등급(OBE) 수훈자로 지명되었으나 이를 고사했다.

- 2006년 제59회 칸 영화제에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황금종려상

- 2014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곰상 수상자로 선정

- 2016년 제69회 칸 영화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황금종려상 수상.

**주요 작품** 나의 올드 오크 (2023) / 미안해요, 리키 (2019) /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 / 자유로운 세계 (2007) / 그들 각자의 영화관 (2007) /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2006) / 빵과 장미 (2000) / 랜드 앤 프리덤 (1995) / 하층민들 (1990)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하늘이 열린 곳

김산(시인)

하늘이 열린 곳으로 비가 내린다.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도록 주룩주룩 온다.  
범의꼬리 꽃이 좋다고 사랑사랑거린다.  
내내 앞서 걷다 점차 뒤에서 걸었다.  
박노해는 말했다. '홀로일 때 충분하지 못하면 함께여도 충분하지 못하다.'

홀로 비 내리는 숲길을 걷다 보니 커다란 박새풀이 나도 혼자 피어났다며 반  
긴다. 힘을 내서 사람들을 쫓아갔다.  
박노해가 다시 말한다.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그 어떤 길도 멀지 않은 법이다.'

박노해의 두 문장을 덧대어 본다.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  
하는 혼자로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걷는 독서'와 함께 걷는 길에는 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었다.



## 빨강으로 곱게 물들다

김선희(시민)

태백고원 산소길 답사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경림의 시 40편을 읽었다. 지난 5월 향년 88세로 타계한 그는 한국 문단의 대표적인 민중 서정시인으로 평생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 도시에서 밀려난 서민, 정처 없는 유랑민 등 민초의 애환과 굴곡진 삶의 풍경을 질박하고 친근한 생활 언어로 노래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드디어 시 두 편을 골라 필사했다.

분주령을 내려오다 숲속에서 둥글게 자리를 잡고 앉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신경림 시낭송회를 열었다. 나는 그가 귀천하면서 유언장처럼 남긴 시 『집으로 가는 길』을 낭송했다. 가볍게 걸어가고 싶다. … 내가 스쳐온 모든 것들을 묻으면서/ 마침내 나 스스로 그 속에 묻히면서/ 집으로 가는 석양 비낀 산길을.

태백으로 향할 때 내 마음의 색이 분홍의 설렘이었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빨강으로 곱게 물들었다. 신경림의 시 『길』 중 3연을 버스 안에서 낭송했다.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산길 강길 들길을 가다가/ 내 손에 가득 들린 빨간 열매를 본다./ 내 가슴속에서 퍼덕이는 하얀 새/ 그 날갯소리를 듣는다.





김 선생님이 나눠주신 신선한 토마토 한 조각, 검룡소에서 산길을 내려올 때 한 여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건네준 새콤한 산딸기 하나, 공원 정자에 둘러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쪼개어 나누어 먹은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드디어 춘천에 도착했을 때 스파이더맨 버스 기사님의 감동적인 깜짝 이벤트 빨간장미 한 송이... 나는 빨강으로 곱게 물들었다.



오늘도 길을 걷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와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힘든 발자국들은  
 한 줌 이슬처럼 바람에 흩어지니,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 고독한 길을 지금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박노해, 『걷는 독서』, 857쪽



# 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답사 그리고 장미 한 송이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 옛길에서 자연과 문학을 만나다

4월 새이령 옛길, 5월 철원 옛길, 6월 두문동재-검룡소 옛길을 걸으며 2024년 세 차례 옛길 답사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옛길을 걸으며 숲과 어울리고 이태준 기념비 앞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두문동재 고원길에서는 신경림 시 낭독회를 열어 고인을 추모했다.

## 버스 영화관에서 연대와 평화를 새기다

가고 오는 길, 버스에서 보는 영화는 답사의 또 다른 볼거리. 아일랜드 독립 투쟁을 다룬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폐광촌 지역민과 이주 난민의 갈등과 연대의 힘을 다룬 <나의 올드 오크>는 켄 로치 감독의 작품으로 다시 보고픈 명작이다.

## 장미 한 송이에서 새로운 만남을.

스무 차례 옛길 답사를 마무리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건네준 장미 한 송이는 이별의 아쉬움보다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 선물이었다.

새로운 만남, 인문학과 함께하는 역사문화답사를 다시 꿈꾼다.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흐름이 되어가는 사람  
-박노해, 『걷는 독서』, 615쪽

## 초여름의 걷는 독서

김희선(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6월 15일 마지막 걷는 독서 구간은 태백 두문동재~금대봉 야생화밭~분주령~검룡소 구간이었다.

조선 개국 후 고려의 마지막 신하들이 태조 이성계의 눈을 피해 자리 잡은 곳으로 알려진 오지 중의 오지라는 두문동재를 시작으로 걸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 천국으로 알려진 금대봉은 태백시와 정선군, 삼척시에 걸쳐 있는 1,418m의 산으로 동쪽은 매봉산, 남쪽은 함백산, 북쪽은 대덕산으로 둘러싸여 허락된 사람들의 접근만 가능한 곳이었다.

금대봉 구간을 지나서 만난 분주령은 해발 1,000미터 이상의 고지대로 태백산맥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고개로, 예전 정선과 태백 사람들이 만나 분주하게 물건을 교환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정상구간에 평탄한 숲길이 형성되어 야생화 감상 포인트가 인상적이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두문동재 입구부터 만난 잎이 큼지막한 함박꽃, 노란색을 띤 미나리아재비, 범꼬리, 꽃쥐손이풀, 대성쓴풀을 만나고 전망대에 오르니 전호 군락이 초록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기를 머금은 하늘이 같이 맞이해준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산속의 꽃과 나무들도 비와 햇

빛과 바람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점심식사 후 신경림 시를 후식으로 맛본 뒤 검룡소로 향했다. 한강의 발원지  
 인 검룡소는 금대봉 기슭의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으로 13년 전 초여름 저녁  
 무렵, 수많은 반딧불이가 환하게 춤을 추던 모습이 기억난다.  
 작년부터 참가하게 된 걷는 독서로 많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 마  
 음이 들었고, 마지막이어서 많이 아쉬웠다.  
 어릴 때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생기는 것 같았던 독서 습관이  
 밀레니엄 시대로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밀려 서서히 사라질 때,  
 걷는 독서는 나를 다시 예전 습관으로 조금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감  
 동과 울림이 있는 문장을 만나게 해주었다.



사막의 어린 나무는 한번 비가 내릴 때  
 그 짧은 몇 날 동안 훌쩍 자라버린다.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  
 나를 훌쩍 성숙시키는 도약의 때가.  
 -박노해, 『걷는 독서』, 6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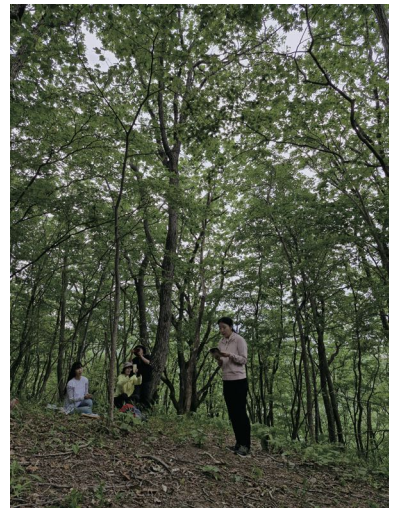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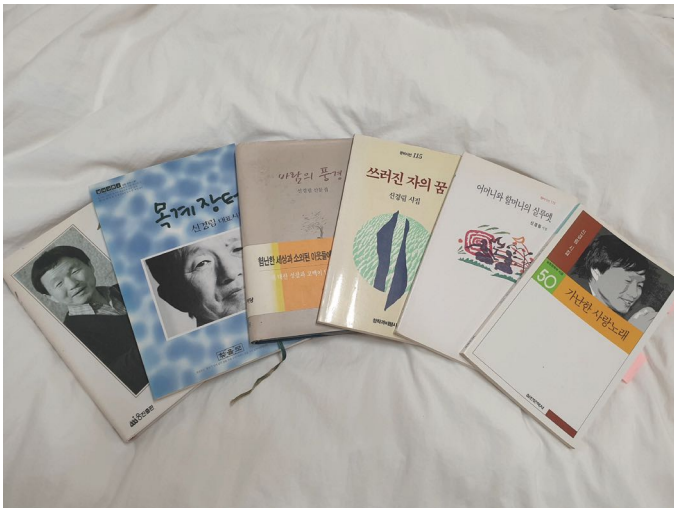


# 신경림 시인의 시(詩)와 산(山)은 참 닮았다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6월 15일, 교사 시민 인문학여행은 태백 대덕산의 금대봉으로 향했다.

버스에 올라앉아 간식을 먹으며 어젯밤 책장을 뒤져 챙겨간 신경림 시인의 시집을 읽기 시작했다. 예전에 시인의 소박하고 담담한 어조에 이끌려 시집을 사서 챙겨 읽곤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 시절 나는 왜 이 시에 메모지를 붙여놨을까? 여기에 밑줄을 그은 이유는 무엇이지? 시인의 시를 읽고자 했는데, 순간 현대시를 공부하던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펼쳐 든 시인의 시가 낯익다. 지난밤 책장 앞에 서서 읽었던 신경림 시인의 몇몇 산문을 떠올리며, 시집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에 실린 도중환 시인의 발문처럼, 시인의 목소리는 “사과꽃 위에 쏟아지는 달빛, 먼 길을 갈 때마다 만나는 구절초의 위안, 창밖에 와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시 낭송은 시집 『가난한 사랑 노래』에 실린 『산에 대하여』로 해야겠다. 신경림 시인. 이분의 시를 꼭 대덕산의 품 안에



서 읽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인에게 바치는 나만의 헌사인 듯 느껴졌다.

대덕산 금대봉. 17, 18년 전쯤 친구들과 여름 산행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는 예약제가 아니라 생태보존을 위한 허가제였는데, 문학전공 친구 6명이 ‘야생화탐방’이라는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1호 숲해설가이신 김부래 선생님과 함께 야생화 공부를 하며 산에 올랐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이지만, 고목나무 샘(한강발원샘이라고도 한다), 분주령 삼거리 그리고 숲길과 초록 산 위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이 낮익다. 마치 이제 왔냐며 답답히 맞아 준다.

금대봉을 오르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흥가분했다. 버스 안에서 시집을 한참 읽은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 차에 두고 버스에 올랐음을 알았다. 시집을 챙기는 대신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버스에서도, 산행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나의 시선으로 풍경을 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초록은 초록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소리는 소리로 발걸음이 닿는 대로 숲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오히려 나무를 한번 쓰다듬어 보고, 범꼬리를 손으로 살살 간지럽히며 걸었다.(어린 범꼬리는 조금 흘쭉하지만, 활짝 피어난 범꼬리는 제법 토실토실 부드러워서 자꾸 손이 간다.) 사진으로 찍지 않아서인지 비비추와 범꼬리 군락지를 지날 때마다 만개한 모습을 상상하며 걷는 것도 더 자연스러웠다.

신경림 시인의 시와 대덕산은 참 닮았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낮익게 나를 맞아 준다.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히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가난한 사랑노래』에서

## 태백, 아련한 그곳

심금순(금산초등학교 교사)

태백, 내 첫 발령지이며 어리숙했던 나의 아련한 20대의 한 시절이 생각나는 곳이다. 그곳에는 광부 사택에서 사는 학생이 많았다. 달리는 버스 영화관에서 <나의 올드 오크>를 보며 태백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석탄산업 합리화로 광업소가 몇 개 남지 않았던 2000년대 초, 학교에 돈이 없다고 난로의 기름을 주지 않아 추운 겨울에 한 어머니가 무거운 기름통을 손수 들고 오셨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6학년 담임을 할 때 아이들과 '생명의 숲'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그 아이들과 태백의 여러 숲을 다녔다. 그때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랐다. 그래도 아이들과 태백의 산과 숲을 여기저기 다닌 게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 것은 예쁜 야생화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이 속으로는 폐광으로 토양·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많다고 숲 해설하시는 분이 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정화시설이 들어선 뒤에 수달이 찾는 1급수로 바뀌었다는 등의 보도는 희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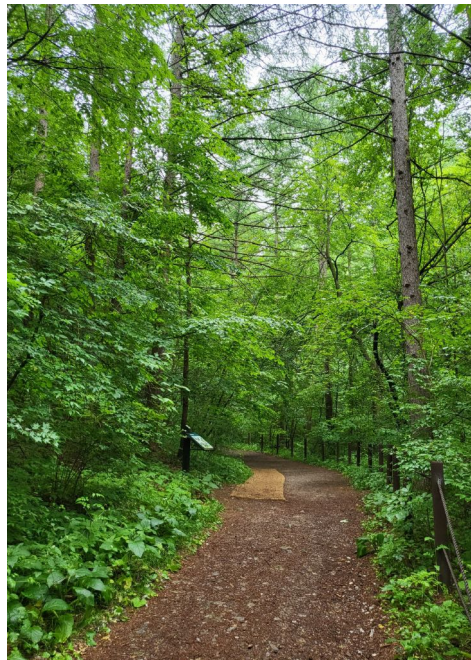
태백을 간다는 설렘에 일찍 눈이 떠졌다. 질어가는 녹음 속에 야생화가 얼마나 피었을까 기대도 하면서, 두문동재를 시작으로 금대봉까지 숲이 차도록 걸었다. 아담한 금대봉 표지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금대봉에서 내려와 부지런히 숲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탁 트인 풍경이 나온다. 인제 곰배령 느낌도 난다. 태백고원의 침엽수림을 지날 때는 눈이 시원시원해진다. 한참 더 걷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숲속에서 맛난 점심 만찬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타계하신 신경림 시인의 시 낭송을 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덕산과 검룡소로 가는 분기점, 분주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잠시 번잡스럽다. 우리는 검룡소 방향으로 내려갔다. 태백에 근무할 때 갔을 때는 데크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지금은 데크길이 놓여 검룡소의 신비스러운 느낌은 덜한 것 같다.

올해 '걷는 독서'는 인제 마장터길에서 시작하여 철원 지뢰꽃길을 거쳐 정선

태백 고원길로 마무리하였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한 뼘 더 성장했다. '걷는독서'를 갈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스파이더맨 기사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서운함으로 끝날 뻔했던 이날을 빨간 장미를 한 송이씩 건네주는 깜짝 이벤트로 감동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림, 「갈대」 중에서





# 생태지킴이 꿀벌에게, 마을지킴이 친구에게

이창래(모두의부엌 춘천 대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아는 만큼 관심이 더 간다는 뜻이겠지요.

이번 ‘걷는 독서’는 청정자연에서 만나는 들꽃의 싱그러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옹송그리는 벌들의 날갯짓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이 함께했습니다.

이유인즉, 친구가 오래도록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과 함께 외지 생활을 하다가 제2의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강원도 오지의 하나인 홍천 내면에 자리 잡고, 토종벌 초보 농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종벌만큼이나 토종스러운 그 친구의 주름진 얼굴에 가득한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더구나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벌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들꽃과 더불어 벌들에 대한 생각으로 산길을 걸으며, 행운인지 불행인지 벌을 한마리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 벌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산이 높은 곳이라 토종벌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더니 토종벌 여부는 벌의 뒤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벌 중에서 특히 일벌은 할 일이 많은 계절에는 체력 소모가 심해서 1~2개월 밖에 살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겨울에는 6개월 정도 산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일벌의 날갯짓 속에는 고된 노동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며 생태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 헌신의 여정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높은 산 외진 곳에서 만난 일벌의 수고로움에 고마움을 전하며, 고향 마을 지킴이로서 친구의 새로운 인생 여생 여정을 응원합니다. 친구와 벌 사진을 두고 통화하는데, 내면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영종도로 첫 여행을 왔다는 친구의 들뜬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 추신

음식점을 하는 제계 버스에서 함께한 영화 <나의 올드 오크>를 제 음식점에서 함께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움의 인사 전합니다. 식당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고 단체 카톡방에도 소개하니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공간이 협소해서 일간 다른 장소에서 여럿이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얻는 일은 '걷는 독서'의 또 다른 매력인 듯합니다. 아울러 그간 모임을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전합니다.

## 태백 두문동재, 분주령, 검룡소를 다녀와서

이현숙(주봉초등학교 교감)

태백까지 왕복 6시간 걸리는 먼 길이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걷는 독서’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내게는 오늘 함께 걷는 좋은 분들이 계실 뿐이다.

숲길을 걷는 내내 초록초록한 싱싱함에 도취했고, 점심 이후 비가 조금씩 내리기는 했어도 산속에서 약간의 비와 함께 걷는 길은 촉촉함을 더해주는 좋은 길이었다.

새순이 돌아나는 봄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가득했는데 6월의 초록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

초록을 온통 눈과 마음에 담고 와서 숲길을 다녀온 것에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에서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과 닿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좋은 세상은 없는 것  
나빠지는 세계를 거슬러 나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뿐’  
‘좋은 사람에게  
좋은 벗이 걸어오고  
좋은 일이 찾아온다’  
‘삶은 단 한 번이다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의 시간  
지금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인연’  
-박노해, 『걷는 독서』



## 신경림 시인과 함께 걷는 태백 고원길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2024년 6월 15일, 태백 고원길을 고 신경림 시인의 시와 함께 걸었다.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이 있던 그날이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하여 5년째 이어진 걷는 독서는 주로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날이나 그 전후로 진행되었다. 그래서일까? 내게 걷는 독서는 몸과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길'이었다. 신경림 시인의 시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시구를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살아 숨 쉬는 체험이었다.

대학 시절 '농무'로 만났던 시인의 시를 교사가 되어 '가난한 사랑 노래'와 '신의주-단동에서'를 교과서에서 가르치며, 시구 '오래간만이라고 왜 이제서 왔느냐고/ 다가와 잡는 손들도 있을 거야'처럼 통일이 금방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으로 두근거리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현실은 통일이냐 평화와는 자꾸 틈이 벌어지고, 노래하던 시인은 '낙타가 되어' '가장 가없는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 떠났다.

이번 걷기에서는 시인의 시낭송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아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어 다시 시집을 들여다보고, 시를 찾아보고, 시인의 연보를





찾다 보니, 신경림 시인이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버스 영화관에서 본 <나의 올드오크>의 감독 켄 로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걷는 독서 길에서 처음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익숙하지 않아 걷기에 거추장스러웠다.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 스틱이 걷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사용하는 스틱은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하다. 3년 정도를 걷는 독서에서 함께하던 스틱을 나는 태백 검룡소주차장공원에 가지런히 두고 왔다. 부디, 그 스틱이 다른 누군가의 걷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해본다.

두문동재에서 분주령으로 또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까지, 스며드는 이슬비와 하나가 되어 걸으며, 나는 함박꽃과 속단꽃, 미나리아재비꽃, 범의꼬리 등을 만났고 수박을 닮은 초록 숲속에서 신경림 시인의 시들을 멋진 음성으로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검문소 한강의 발원지를 다녀왔으니 아마도 걷는 독서는 여러 해를 거쳐 큰물이 되어 흐를 것이라 믿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받은 맑은소리를 내는 '풍경' 선물과 '장미' 한 송이는 앞으로도 내 삶을 맑고 아름답게 살리는 선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버스 안에서 낭송된 신경림 시인의 시 속 구절 중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역사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로 고원길 걷기의 소감을 마무리해본다.



마음씨는 마음의 씨앗,  
지금의 마음가짐이 씨앗이 되어  
그모든 결실을 뒤바꾼다.  
-박노해, 『걷는 독서』, 132쪽

## 초록이 초록초록했다

최영숙(시인)

‘초록초록한 여름의 마음과 몸으로 만나요~’ 푸짐한 안내 글귀와 함께 전해진 마지막 구절에 이미 나의 몸과 마음은 온통 초록으로 물들었다. ‘비가 와도 갑니다’라는 단호함에는 가슴이 땀 뚫리는 통쾌함마저 느껴졌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지쳐가던 차에 ‘걷는 독서’의 여정은 퇴임 3년 차인 나에겐 커다란 행운이었다.

집이 외곽에 있으니 조금 일찍 서둘러 출발지에 도착했는데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 ‘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부랴부랴 지인에게 전화를 거니 건너편에 버스가 있단다. 꼼꼼하게 살펴지 않은 내 탓이다. 더듬이를 앞으로 쪽 뺀고 온몸을 검은색으로 뒤집어쓴 버스(흡사 거대 곤충처럼 생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버스 안은 이미 도착한 시민들로 꽉 찼고 다행히 뒷자리에 하나 남은 1인석이 나를 반긴다. 버튼을 누르면 누워서도 갈 수 있다는 호화로운 버스와 함께 감동의 하루가 시작된다. 긴 여행을 위해 집행단에서 준비했다는 식량 꾸러미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회원들을 배려한 정성이 엿보인다.

드디어 23인의 아름다운 님들과 태백고원길로 향한다. 떠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찬찬히 내리는 빗길 안으로 스며든다. 부드러운 승차감은 한껏 부푼 가슴을 더욱 부채질한다. 출발지를 떠나면서 버스는 영화관

으로 변신한다. <나의 올드 오크>(감독 켄 로치) 자막을 읽기엔 거리가 멀고 영어 대사를 알아듣기에는 능력이 안 되니 대충 감으로 감상할 수밖에. 한참 걸려 도착한 두문동재 길목 여기저기엔 먼저 도착한 버스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다. 조금 붐비겠다 싶지만 그 또한 즐거운 일이다. 산행 전 화장실은 필수라 이미 줄지어 있는 사람들 뒤로 순서를 기다리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은 터라 시간이 한참 걸릴 듯싶다. 눈치 빠른 누군가가 남자 화장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쩍싸게 여자들의 줄이 이어진다. 잠시 후 나타난 한 남성, “아니, 남자들도 볼일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이 쓰는 건 아니지?”라고 투덜거리며 뒤쪽으로 사라진다. “여기까지 끊고 이제부터 남자들이 쓸게요.” 이어진 남자의 소리로 마침내 화장실은 제 주인을 찾아가고 여성 혁명(?)은 끝이 난다.

금대봉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가 계속 이어진다. 야생화가 피지 않아 아쉬웠지만 길 양쪽에 활짝 필 야생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풍족하다. 이따금 모습을 보이는 야생화 한 점 한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덤이다. 금대봉을 지나 분주령으로 향하려던 우리는 생태 보존을 위해 막혀 있는 길 덕분에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야 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 아니던가. 예상을 넘어서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행은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금대봉을 내려와 분주



령, 검룡소 가는 길을 안내에 따라 걸으니 녹색으로 물든 산 풍경이 눈앞에 활짝 펼쳐진다. 그 속에 몸을 맡기니 온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듯 황홀하다.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분명 이런 메시지가 전달 되었으리라. 분주령 가는 길에 만난 귀한 야생화 몇 점은꽃에 대한 나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한참을 이어가던 우리의 산행은 넓은 숲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맛있는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나니 지난 5월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 시낭송회가 우리를 기다린다. 한명숙 선생님의 축축하면서도 단아한 목소리가 시인의 첫 시집 『농무』를 소개하고, 곧이어 시인의 시낭송회가 열린다. 아침에 일어나 부랴부랴 시집을 챙긴 나는 준비가 안 되어 감히 낭송하지 못했으나 준비해온 님들의 목소리로 시인을 오롯이 만나니 지난날 아이들과 함께 시를 암송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이 불현듯 머리를 스친다. 아, 시를 너무 멀리하며 살았구나!

오락가락하던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다. 노란 우비를 입고 걸으니 ‘후드득, 툭툭’ 소리를 내며 우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우중산행.’ 언제 또 비를 맞으며 산행을 하겠는가? 비가 와서 더욱 즐거운 여행이다. 녹색의 산속에 비가 내리고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시라도 읊을 판

이다. 분주령을 지나 검룡소에 닿으니 한강 발원지라 쓰여 있다. ‘어, 한강이라고? 낙동강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당당하게 전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 이렇게 또 하나 흠을 남기면서 내 인생은 흘러가리. 낙동강 발원지는 황지연못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으니 그 걸로 감사해야지. 나의 거만한 지식(?) 자랑 때문에 귀가 오염된 분들 모두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검룡소 깊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저 멀리 한강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니 신기할 따름이다.

검룡소주차장에 도착하니 수박 파티가 우리를 기다린다. 근처 정자를 찾아 수박 조각을 받아들고 수박씨 멀리 보내기 시합을 하며 한바탕 웃어 본다. 내년 이맘때 다시 온다면 수박이 참외만 하게 열렸을지 모를 일이다. 귀가를 위해 버스에 오르니 온몸이 노곤하다. 영화 <바튼 아카데미>는 저 멀리서 웅웅거리는데 내 눈은 잠에 빠진다.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며 몽롱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니 기사님의 장미꽃이 마지막까지 감동의 늪을 헤매게 한다.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즐거움을 결정한다는데 오늘 여정은 사람과 장소가 모두 완벽하니 더 말할 여 무엇하리?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지.



## 두문동재 백두대간을 걸으며

한명숙(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버스가 느릿느릿 고갯길을 오른다. 정선 고한 구공탄시장길을 지나 구불구불 두문동재를 넘는 버스도 숨차다. 고한읍에 들어서면서부터 버스영화관〈나의 올드 오크〉의 깊은 여운이 폐광촌의 배경 풍경과 겹치며 먹먹하게 번져갈 즈음, 두문동재 정상에 도착한다. 초록의 바람에 나부끼는 범꼬리꽃 무리가 반갑다. 두문동재 이름의 유래인 '두문분출(杜門不出)' 고사성어가 무색하게 탐방센터 앞이며 표지석 주변에는 생태계보존지역 탐방로를 사전 예약한 탐방객들로 붐빈다.

오늘 걷는 길은 백두산으로부터 금강산·오대산·태백산 등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이다. 두문동재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양강발원봉'인 금대봉까지 이어지는 1.2km의 능선을 '짜리재' 또는 '불바래기' 능선이라 한다. '불을 바라본다'는 뜻의 불바래기, 과거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기 위해 산 아래에서 놓은 불을 이 능선에서 맞불을 놓아 진화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란다. 화전민이 낫설지 않았던 가난의 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산간에 무장 공비가 출몰하던 시절을 지나며 태백산 일대에는 나무가 사라졌고, 나무 없는 양지에서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났다. 슬픈 역사의 아이러니는 폐광촌이 되어 쓸쓸한 오늘 이 지역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되살려 물려드는 못사람들을 줄지어 걷게 한다.

가는 비에도 말라버린 고목나무샘 가는 산길에는 꽃쥐손이가 만발이다. 여리디여린 청초한 분홍꽃잎들이 한들대는 길 위에서 아픈 역사를 떠올리는 건 미래를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 우리의 지난한 삶과 역사는 산상의 야생화 꽃밭처럼 슬픔과 기쁨, 옹고 그림, 삶과 죽음이 얽히고설키며 피고 지는 것이리라. 오래전 몽골평원에서 만났던 꽃쥐손이 군락, 국경도 이념도 없이 산 넘고 강 건너 헤이룽강, 우수리강 그 너머까지 무리 지어 피어날 꽃들의 세상을 잠시 그려본다.

풀꽃들과 눈 맞추며 분주령에 다다르니 코끝이 먼저 반긴다. 환한 흰꽃무리 고광나무 꽃내음이다. 오래전 정선, 태백, 삼척 지역을 넘나들던 옛사람들



은 이 고개에서 붓짐을 풀고 봄이면 미나리아재비 노랑꽃밭에서, 여름 길목에선 은방울꽃, 함박꽃, 고광나무 꽃향기에 시름을 날리며 잠시 다리섬을 했을까.

분주령. 세 지역 주민들이 만나 물물교환을 하며 분주했다는 설, 물이 갈라지는 지역이라고 해서 분수령이 변음(變音)되었다는 설, 경상지역 방언인 정구지(산부추)가 많이 나는 고개라는 설을 떠올린다. 언제쯤 다시 이곳에서 보라보라 피어나는 산부추꽃도, 먼데 북방에서 날아온 귀한 대성쓴풀꽃도 마음에 실컷 담아가리라 생각한다.

는개 내리는 초록숲 산상낭송회로 얼마 전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의 시가 다시 살아 올려 퍼진다. 훗날, 다시 이 길 위에서 가슴속에 새겨진 시구 하나, 꽃잎 하나, 그윽한 숲 내음에 도란대며 함께 걸었던 얼굴들을 천천히 다시 그려보리라.



아름다움은 치열한 앓음에서 탄생한다.

-박노해, 『걷는 독서』, 297쪽

## 추억을 만지며 걷는 독서

함광연(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훌륭한 프로그램인 줄은 알았지만 시간을 낼 수 없어 참가하지 못했던 걷는 독서. 작년부터 합류한 나에게 걷는 독서는 추억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이었다. 월정사의 탄허스님을 마주했을 때 대학 강의실로 돌아가고, 철원 이태준 시비 앞에서는 『돌다리』를 가르치던 40대로, 태백고원길을 간다고 했을 때 첫 발령지인 고한이 생각났다. 춘천 오는 버스 안에서 ‘가난한 사랑 노래’를 낭송하며 고한중학교에서 시구절마다 열심히 밑줄 치며 해석을 해주던 장면이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50여 명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었던 나날이었다. 이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교사들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신청했다. 다행히 대학 동기와 같이 의지하며 4년을 버텨내고 춘천으로 와서 여학교에 배정받았다. 그해에 결혼하고는 학교와 가정을 양립하는 게 힘들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신 선배, 동료 교사와 함께하여 내 교직생활을 돌아보게 된 태백고원길이었다. 올해 걷는 독서는 비를 몰고 다니는 모양이다. 지난번 마장터 갈 때는 비를 맞으며 우리 일행만 호젓하게 걸었는데, 이번엔 알려진 곳이라 그런지 모임에서 등산을 많이 와서 산행의 고즈넉함을 느끼기 힘들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장소도 사람을 피하느라 고심하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신경림 시인의 시 낭송 시간 후 출발하려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옷을 꺼내 입고 우산도 챙겼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도 그냥 맞다 보면 옷이 다 젖기 때문이다. 뜨겁지 않아서 좋긴 한데 습하고, 비옷 안에 입은 옷이 땀으로 젖는다. 이번 산행은 다른 때보다 경사가 있는 고개가 좀 있었다. 작년부터 다닌 걷는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번 산행이 가장 힘들었다. 그날은 힘든지 몰랐는데 다녀오고 나서 다리가 딱딱하고, 더위와 싸우느라 지친 탓도 있겠지만 기운이 달리는 걸 느꼈다. 내가 늙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울여름이 더워서인가도 생각했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좋은 프로그램의 기회가 와도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퇴직 후

삶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팁이다.

올해의 걷는 독서를 마치며 다음부터는 스스로 계획하여 걷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걷는 독서 프로그램을 여러 해 동안 운영해온 분들과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행복한 시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 제3차 인문학여행

##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명	제3차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참여 단체	동내초등학교, 서상초등학교, 흥천반곡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봄내중학교, 봉의중학교, 우석중학교, 유봉여자중학교, 양구방산중학교, 강원교육연구소, 책온시민모임																													
일시	2024. 06. 15.(토) 07:30~18:00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두문동재 - 금대봉 - 분주령 옛길 - 검룡소 일원																													
참여 인원	초·중등 교사 및 시민 24명																													
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강원 태백~정선 지역의 옛길 탐방과 인문학여행</li> <li>• 세부 진행 일정과 활동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활동 주제</th> <th>활동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07:30</td> <td>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td> <td>만남인사</td> </tr> <tr> <td>10:00</td> <td>버스영화관: 〈더 올드 오크〉(켄 로치 감독)</td> <td>영국 폐광촌의 현실과 공동체의 삶</td> </tr> <tr> <td>11:00</td> <td>두문동재 탐방과 옛길 걷기</td> <td rowspan="3">태백~정선 고원길에 어린 삶과 역사</td> </tr> <tr> <td>12:00</td> <td>숲속 시낭송회</td> </tr> <tr> <td>13:00</td> <td>풀밭에서의 행동식 나눔 식사</td> </tr> <tr> <td>14:00</td> <td>분주령: 태백~정선~삼척의 길목</td> <td>옛길의 역사와 삶</td> </tr> <tr> <td>15:00</td> <td>검룡소 답사</td> <td>한강 발원지</td> </tr> <tr> <td>16:00</td> <td>버스영화관: 〈바튼 아카데미〉</td> <td>〈소통 나눔〉 소감 나누기</td> </tr> <tr> <td>18:00</td> <td>춘천 도착, 귀가</td> <td>후기 쓰기 안내</td> </tr> </tbody> </table>	시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07:3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인사	10:00	버스영화관: 〈더 올드 오크〉(켄 로치 감독)	영국 폐광촌의 현실과 공동체의 삶	11:00	두문동재 탐방과 옛길 걷기	태백~정선 고원길에 어린 삶과 역사	12:00	숲속 시낭송회	13:00	풀밭에서의 행동식 나눔 식사	14:00	분주령: 태백~정선~삼척의 길목	옛길의 역사와 삶	15:00	검룡소 답사	한강 발원지	16:00	버스영화관: 〈바튼 아카데미〉	〈소통 나눔〉 소감 나누기	18:00	춘천 도착, 귀가	후기 쓰기 안내
	시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07:3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인사																											
	10:00	버스영화관: 〈더 올드 오크〉(켄 로치 감독)	영국 폐광촌의 현실과 공동체의 삶																											
	11:00	두문동재 탐방과 옛길 걷기	태백~정선 고원길에 어린 삶과 역사																											
	12:00	숲속 시낭송회																												
	13:00	풀밭에서의 행동식 나눔 식사																												
	14:00	분주령: 태백~정선~삼척의 길목	옛길의 역사와 삶																											
	15:00	검룡소 답사	한강 발원지																											
16:00	버스영화관: 〈바튼 아카데미〉	〈소통 나눔〉 소감 나누기																												
18:00	춘천 도착, 귀가	후기 쓰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한명숙, 김경은, 김희선, 박혜진, 심금순, 유희순, 양혜숙, 이하나, 주민주, 정미자, 정연실, 함광연, 황현정 / 13명</li> <li>• 시민: 김효문, 김선희1, 김선희2, 김산, 김현호, 이운옥, 이현숙, 원소연, 임효정, 이창래, 최영숙 / 11명</li> </ul>																													
참여자 명단																														

프로그램  
사진



태백~정선 옛길: 백두대간 두문동계



분주령 가는 옛길



백두대간 숲의 생태 해설



숲속 시낭송회



한강 발원지, 검룡소 가는 길



따뜻한 감동, 장미꽃 버스기사님과 함께

# STORY

---



# 강릉 바우길





intro

## 인문학여행 20회차 이야기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오늘도 길을 걷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와서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힘든 발자국들은 한 줌 이슬처럼 바람에 흩어지니.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 고독한 길을 지금 우리 함께 걷고 있으니.”  
 -박노해, 『걷는 독서』, 857쪽

코모레비! 버스영화관 <퍼펙트 데이즈>의 엔딩곡 ‘필링 굿(Feeling Good)’이 흐르며  
 마지막 화면에 이르러서야 한 단어가 자막으로 잠시 멈춘다. 가만히 응시한다. 코모  
 레비(木漏れ日, こもれび),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지극히 감성적인 일본의 고유  
 어이다. 문득 우리말의 ‘별뿔’도 생각난다.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의 아름다움!

지난 8월 말로 30여 년의 학교 현장을 떠났다. 퇴임을 실감하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  
 다. 몸은 떠나왔지만, 함께 길을 걸으며 아직껏 마음은 동료 교사들 곁에 머물고 있음  
 을 느낀다. 새롭게 열어 갈 삶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노랫말을 따라 흐른다. 알 듯 모  
 를 듯 다양한 표정으로 굴곡진 삶의 희로애락을 전하는 주연배우의 아릿한 표정이 내  
 마음에 접친다.

*새로운 새벽, 새로운 날. 새롭게 주어진 삶이야. 자유는 내 것이 됐어. It's a new  
 dawn,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freedom is mine.*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은 2020년 봄길을 걷기 시작하여 올가을까지 5년 동안,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아래 곳곳을 20회에 걸쳐 함께 걸었다. 강원지역의 삶과 문화  
 의 숨결이 깃든 옛길을 찾아, 이어지는 남도 땅으로, 울릉도로, 서울로 역사의 현장을  
 찾았다. 오래된 삶, 오래된 시간 속을 묵묵히 걸었다.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시간의 점’  
 으로 새겨지는 ‘코모레비’였다. 선자령의 운무길, 굴산사터에 어린 이름 모를 석공들  
 의 손길이 이룬 간절함에 오늘 우리의 바람들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시간의 점’을 찍  
 느니, 삶이 지치고 힘들 적마다 불현듯 다시 떠올라 우리를 위로하는 따스한 힘으로  
 솟구치리라 믿는다. 저물녘, 원창고개 마루에서 어둠이 깔리는 도시를 차창 너머로  
 바라본다. 우리의 떠남은 늘, 현재로의 돌아옴이다.

한명숙(강원교육연구소)

버스영화관

## 인문학여행과 함께한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소개합니다



퍼펙트 데이즈

감독 빔 벤더스

주연 야쿠쇼 코지

제작 2023년 일본-독일 합작

- 2024년: 17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남우주연상),  
47회 일본 아카데미상(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 2023년: 16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최우수작품상),  
76회 칸영화제 (남자연기상)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히라야마'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살아간다. 오늘도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올드 팝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찍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 식당에 가서 술 한잔을 마시고, 헌책방에서 산소



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영화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주는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감미로운 올드 팝과 함께 보여주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히라야마의 일상적인 순간,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풍경과 고독, 도쿄의 빛과 그림자, 작은 소리들, 그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영화 전체에 깊이를 더한다.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는 시종일관 관찰자의 역할인데, 소소한 일상들에 집중하게 하며 천천히 질문을 품게 한다.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뤄져 있어.*

*서로 연결된 세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지.”*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 영화속에서 히라야마가 읽은 세 권의 책

-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

-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11>

- 고다야의 <나무>



영화 속 공공 화장실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한 ‘2020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의 일환, 시부야구의 공공 화장실을 보다 아름답고 접근성이 좋은 17곳의 장소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안도 다다오, 쿠마 켄고, 시게루 반을 포함한 열여섯 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해 총 17곳의 공공 화장실을 설계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선자령에서 골산사지 가는 길

김정은(강원교육연구소)

무엇을 해도 최적인 계절, 특히 여행하기에 더 좋은 계절 10월, 인문학여행 계획이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 바쁜 일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는지 진행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참가자 명단을 보니 익숙한 이름도 보이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있어 더욱 기대가 되었다. 약간 날씨가 흐렸다. 햇살이 쨍쨍하기보단 산행에는 훨씬 좋은 날씨다. 해골까지 먹어 치울 것 같던 울여름 더위를 생각하면 요즈음 어떤 날씨라도 축복인 것 같다.

대관령 옛길은 여러 갈래라고 한다. 몇 차례 왔었는데 올 때마다 다른 길이었다. 이번에는 바우길 1코스인 선자령 풍차길부터 걷기 시작한다.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지만 야생화가 간간히 보였다. 대관령이나 오대산에서는 큰 나무 아래서도 생태계가 풍성하다. 오손도손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정겹다. 인문학여행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곳에 핀 야생화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 정원에서 자라는 꽃 이름 부르듯 부르며 아끼고 사랑한다. 가을이라 봄보다는 적었지만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꽃들이 보였다. 자옥한 안개 속에서도 예쁜 꽃들을 볼 수 있어 기뻐다. 특히 용담이 기억에 남았다.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꽃말이 더욱 인상 깊었다.

날씨가 맑으면 강릉, 동해가 보인다고 하는데 안개 커튼으로 시계 100m 정도도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걷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함께한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았다. 멀리 희미하게 풍차가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선자령 정상쯤에 도착하니 안개가 걷히자 초원 같은 구릉들이 보이고 풍차가 공기 중에 거북이가 곡예를 하듯 느릿느릿 돌고 있었다.

한식당에서 맛있는 쇠고기 두부전골을 먹었다. 주인장 아주머니가 산악인인가 보다. 액자에 암벽등반 복장 사진이 보였다. 춘천사람들을 보면 친구 생각이 난다며 무척 반갑게 대해 주었다.

오전에 2만 걸음 이상을 걷고 점심을 먹고 나니



몸이 나른해져 잠깐 눈을 감았을 뿐인데 굴산사터에 도착했다. 거리에, 집집마다 노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또한 굴산사터 일대에서는 가을 견이를 하느라 한창이다. 노란 들판을 보면 내고향 무안의 들판이 생각난다. 십 리 들판을 걸어 중학교 등하교를 하며 사계를 몸으로 느꼈었다. 농번기가 되면 모내기 봉사, 가을이면 벼 베기 봉사 활동 등 계절마다 바뀌는 들판은 꿈속에서도 가끔 배경으로 나온다. 굴산사터 들판이야 무안 들판의 5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노란색은 나와 50년의 긴 세월을 이어주는 물결 같다.



굴산사터는 매우 넓은데 사찰이 저토록 컸을까 의문이 갔다. 당시 사람들은 절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불교가 곧 사람들의 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 같다. 두 사람 팔을 벌려야 안아질 것 같은 소나무가 구릉에 홀로 우뚝 서 있었다. 500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당산나무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기운이 느껴져 한참을 두 팔 벌려 나무를 안았다. 투박하고 단순한 당간지주는 들판을 지키는 것 같다. 저 육중한 바위를 어떻게 이동했을까 궁금했다.

아침 출발 때 자기소개를 하며 나태주의 시로 내 마음을 대신했었다. 하루를 함께 걸으며 오늘 함께 한 모든 분이 이 시처럼 새삼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꽃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은 듯 기쁨이겠습니다.’

## 강릉 바우길을 걸으며

김선희(아트북싱 책모임)

굴산사지 승탑에 새겨진 천상인의 악기연주 조각 중에 '공후'를 타고 있는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오래전 그 옛날에 공후를 타며 불렀다는 <공무도하가>를  
떠올리며 5행시로 오늘의 후기를 정리해 본다.

**공**칠시 삼십분 김현호 기사님의 안전 운행과 함께 대관령 마을휴게소로 출  
발! 운무에 갇힌 선자령을 향해 바우길을 걸어 올라간다.

**무**슨 소리가 들려 머리 들어 올려다보니 앞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네.  
구름 속에 갇혀 눈앞에 있는 것도 몰랐구나.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 선자  
령 정상석에 도착하니

**도**그(Dog)도 사람들도 줄지어 사진 촬영하느라 바쁘다. 여기서 같은 체육  
관 회원을 만나 더 반갑다.

**하**얀색의 구절초, 보라색의 썩부쟁이 음력 9월 9일이 되면 줄기의 마디가  
아홉 번 꺾인다니... 나는 얼만큼이나 꺾였을까?

**가**장 놀라운 건 굴산사지 범일국사 팔면에 새겨진 천상인의 악기연주 모습.  
정묘하게 표현한 것이 놀랍다.



## 걷기 인문학을 만나다

김유식(시민)



걷기 하면 운동, 인문학 하면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것을 생각했던 나에게 이번 인문학여행은 뜻밖이었다. 김 선생님의 적극 추천으로 처음 참여한 행사에서 걷기와 인문학은 함께해야 함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다.

걷는다는 것은 땅을 밟고 나아가며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느낌, 시간의 흐름에서 생기는 느낌, 현상을 섬세한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인문학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에 걷기와 인문학은 빛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자령 숲길을 걸으며 안개 속 백두대간과 독야청청 소나무의 역사와 아름다움,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곳곳의 땅에 스며 있는 선조들의 유적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은 내가 이 땅에 있어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 좋았다. 그러기에 이번 프로그램이 올해로 끝난다니 너무 아쉽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땅의 속박을 벗어나는 건 / 자유가 아닌 죽음이듯  
진정한 자유란 '함께하는 혼자'로 / 숲속에 선 푸른 나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287쪽



## 산경표 표지석을 만나다

김재순(춘성중학교 교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에서 ‘걷는 독서’는 나에게 잠깐의 선물 같은 씬을 선사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가 어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신청했다. 날이 조금 흐려 추울까 걱정되고, 안개가 가득 끼어 사진이 잘 안 나온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걷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고 우리의 답사길을 막지는 못했다.

가을빛 물드는 활엽수길, 초록의 속새밭과 산죽 사이길, 흰색 구절초와 보라 보라 야생화길, 역새능선길, 물푸레나무, 참나무숲길을 편안하게 걷는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선자령 풍차길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백두대간 선자령 표지석 뒷면의 山經表(산경표)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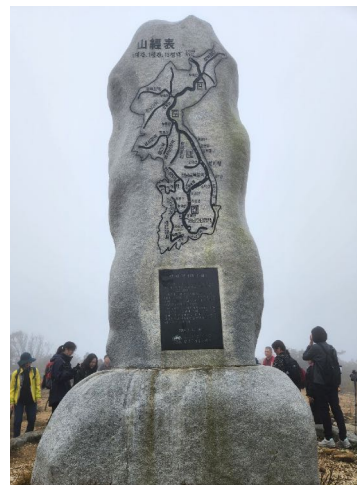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을 잇는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진 산경표를 따라가면 물을 건너지 않고 전국을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배웠던 지리적 산맥지도로는 그럴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였고, 고유의 것이 잊히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지금이라도 우리 고유의 산맥지도(산경표)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위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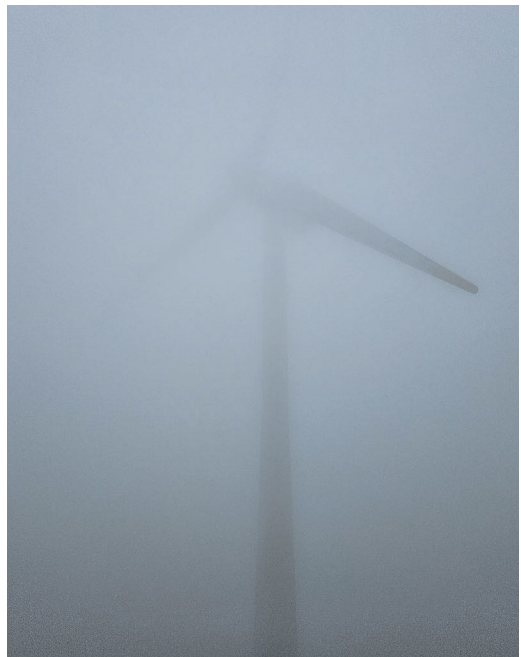
## 선자령은 살아 있다

김정민(봉의중학교 교사)

선자령은 문학이다, 상상해야 하나니까. 2024년 10월 9일의 선자령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넘었지만 고개를 넘는 것들은 모두 흐릿했다. 구절초만이 또렷하게, '여기가 선자령이다, 앞을 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대로 선자령이다' 속삭일 뿐. 희미하게 보이는 풍차의 날개가 덮칠까 봐 무서웠지만 그 기억조차 멍하게 남았다. 안개 낀 선자령에서 만난 우리는 누군가 맛있게 들어켜는 컵라면의 붉은 상표만 감각할 뿐이다. 10m, 20m 가시거리 안에 함께했던 벗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많이 외로웠을 게다. 내 눈에는 그곳의 낮익은 벗들만이 존재하였으므로. '무진기행'을 기억해 낼 만큼 진한 안개는 저 멀리 동해 수평선까지 보인다는 선자령의 위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자령은 우뚝 서 있었다. 선돌에 새겨 있는 커다란 한반도가 선자령이 백두대간 1대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백두대간 1대간'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금 선자령 위에서 있다!" 그때부터 상상이 시작된다. 문학적 상상력은 실존적이다. 선자령은 신비한 구름 사이로 거대한 풍차를 굴리며 저 멀리 동해 속에 잠든 청룡의 선잠을 깨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험찬 산맥의 허리춤에서 들숨과 날숨을 관장하며 세상 사람들을 깨어나게 한다. 버선발이 덩실덩실 칼자루가 짹짹 신기로 달아오른 국사성황당의 샤먼이 그 신비를

더해준다. 속세에서 잃어버릴 뻔한 어제의 길을 오늘 대관령 옛길 선자령에서 신내림받는 무녀의 춤사위를 보며 퍼뜩 깨닫는다. 아이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아래 있구나. 나의 실존이 살아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르막길 눈에 채였던 습지의 속새들이 내 리막길에서도 뻑뻑한 마음으로 마중해 주었다. 잘 가라, 잘 지내라, 다시 와서도 길이 보이지 않거든, 오늘처럼 또 상상하라. 여기에 늘 선자령은 살아 있다.



## 염원-국사성황당, 석천, 오백 년 소나무, 굴산사

김현숙(시민)



올해 처음으로 산행을 했다. 너무나 행복하고 벽찬 출발 길이었다. 그 첫 만남 중 하나가 국사성황당 내림굿하는 장면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의 용왕제를 늘 가까이서 많이 보았으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먹어선 안 된다. 잘못하면 귀신 들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굿집이나 무당집은 돌아서 다녔다. 이번에도 무의식적 두려움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해외여행에서는 꼭 그곳 무당이나 절집에 들어서 절을 꾸벅꾸벅하고 내 가족사를 빌곤 했다. 물론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면서 그들의 무의식적 신앙을 존중한다는 오만함, 흑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무당한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서... 영혼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이니 나의 관심사에서 저리로 밀쳐두었다. 그러다 이번 산행에서 인간이 무엇에게 절실하게 빌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에, 나무에, 짐승들에게 빌면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란 오만함을 버리게 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돌보고 간직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가장 상처받는 지점이 내가 가장 욕망하는 지점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32쪽

## 안개 속의 첫 만남, 선자령 풍차길

박영선(시민)

날씨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능선 위에 안개가 끼어 있어 제법 운치가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마음이 상쾌했고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었다. 안개 속 정상 부근 능선 위에 풍력발전기가 펼쳐진 광경은 이국적인 느낌이었다.

이 가을에 춘천에서 가까운 거리의 최적의 트레킹 코스였다고 생각한다.

굴산사터 범일국사 승탑 중간에 새겨진 여덟 천상인의 악기 연주 부조 조각도 인상적이었고, 거대한 굴산사터 당간지주의 위용에 새삼 놀랐다.

아주 보람 있는 하루였고 이 여행을 주관하시고 함께 걸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흐름이 되어가는 사람

-박노해, 『걷는 독서』, 615쪽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김효문(강원교육연구소)

4차 걷는 독서는 춘천에서 평창 대관령 옛길과 백두대간 선자령을 거쳐 강릉 구정면 굴산사지(掘山寺址)를 답사하는 여정이었다. 우리는 안개 자욱한 선자령을 내려와 산신각에 별린 무녀들의 춤판을 구경하고 강릉 구정면 학산리 마을을 찾았다.

굴산사지 답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당간지주를 본 후 고려 승탑을 꼭 찾아야 한다. 이 승탑은 신라 범일국사의 탄생 설화가 있는 곳이라 국사의 사리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승탑 중간 받침돌 팔면에는 천상의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어 놀랍다. 시계방향으로 비파(琵琶, 현악기), 동발(銅鉢, 놋쇠판), 훈(埴, 토기), 장구, 적(笛, 대금), 공후(箜篌, 하프), 생황(笙簧, 죽관), 소(簫, 피리) 등 여덟 악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중 공후라는 악기는 고조선시대 백수광부의 부인의 부른 〈공무도하가〉를 연주한 악기로 전해오고 있다. 오대산 상원사동종 비천상에도 천상인이 공후를 타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굴산사지 돌탑에서도 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다.

현장이 변하면 진실도 변한다.

- 박노해, 『걷는 독서』, 175쪽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공무도하(公無渡河) 공경도하(公竟渡河) 타하이사(墮河而死) 당내공하(將奈公何)’  
 임아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에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님을  
 어이하리오.

#### 범일국사(梵日國師)

강릉 구정리 학산에서 태어나(석천 설화) 당나라 유학 후 귀해 847년 선종 9산의 사굴  
 산파 굴산사를 창건하였다. 사굴산파는 명주군왕 김주원 세력(무열왕 직계 후손, 강릉  
 김씨 시조) 등 지역 호족의 지원으로 번성하며 세력을 키워나간다.

#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김희선(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10월 9일 강릉 바우길 1코스 선자령 풍차길을 걸었다.

선자령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경계에 걸쳐 있는 산(령)으로 대관령마을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평탄한 등산로로 경치가 좋고 걷기 좋은 코스였다. 드넓은 목장 경관과 풍력발전기가 하늘을 받들고 있는 풍경이 안개 사이로 보였다.

우리 일행이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니 쭉부쟁이와 구절초의 떠나는 발꿈치가 보였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사부작거리는 역세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을 걷는 독서 덕분에 다시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는 용담과 영경퀴, 투구꽃이 보랏빛으로 반기고 있었다.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라는 꽃말을 가진 용담과 멀어지면서 용담의 꽃말로 쓴 시가 생각났다.

내가 꽃피는 일이	가을 산자락 후미진 곳에서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그저 수줍은 듯 잠시
꽃은 피어 무엇하리	그대 눈망울에 머무는 일
당신이 기쁨에 넘쳐	그렇게 나는
온 누리 햇살에 돌리어 있을 때	그대 슬픔의 산 높이에서 핀다.
나는 꽃피어 또 무엇하리	
또한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내 그대를 사랑한다 함은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 복효근의
찬란히 꽃피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눈두덩 찍어대며 그대 주저앉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은 가쁜 숨을 가다듬고 고단함도 잊게 해준다. 선자령에서 만난 천남성은 옥수수처럼 열매를 맺고 있는 주홍빛이 매혹적인 자태로 가득했다. 하산길에 만난 주목에는 빨간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었다. 말랑말랑한 주목 열매를 입에 넣으니 달콤한 맛과 쫄득한 질감과 함께 과즙이 가득 나와서 갈증을 가시게 해줄 만했다. 씨는 독성이 있어서 뱉어야 한다. 역사를 품은 바우길과 야생화를 만난 오랜만의 산행은 정말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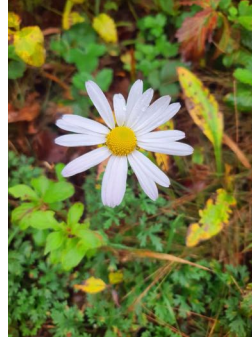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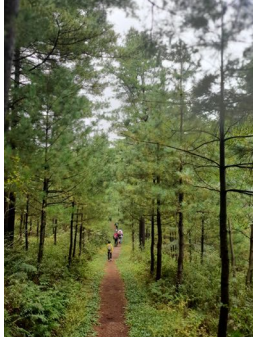


잘나고 이쁜 거야 누구라도 좋아하지만  
 결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건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  
 -박노해, 『걷는 독서』, 551쪽



# 길에 이르는 길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한 사회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  
- 박노해, 『걷는 독서』, 139쪽

몇 해 전, 선자령 옛길을 걸었던 날은 햇살이 내리고 계곡 물소리는 멀었다. 그래서인지 2024년 10월 9일의 선자령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낮설게 거기에 있었다. 길 위에서 언제든 마주하고 싶은 낮섶이었다. 안개에 가려진 풍력발전기는 우! 우! 소리를 내며 안개 너머로 언뜻언뜻 비칠 뿐이었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내내 비가 내렸다는 대관령 동쪽 계곡은 물소리가 세쳤다.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는 듯 어디에든 이정표가 서 있었다. 손안의 지도 앱이 아닌 눈앞에 실재하는 이정표를 한참 바라보며 걸었다. 때로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10월 11일, 한강 작가님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걷는 독서’를 읽다가 눈이 머문 곳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한 사회가 바로 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일어선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세계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걷는 독서』를 다시 펼치며 생각한다. ‘걷는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 그리고 걷고 읽고 느낄 수 있음의 감사함에 대해서...

올해의 마지막 ‘걷는 독서’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강원교육연구소 그리고 함께한 선생님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 선자령-국사성황사-굴산사지 답사

박병두(강원교육연구소)

전에도 백두대간 선자령 산행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다. 선자령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는 모습은 다 달랐다. 형형색색의 단풍을 품고 있는 선자령, 회색빛 감도는 흰 눈을 이고 있는 선자령, 맑은 하늘 피약별에 몸을 맡기던 선자령이었다.

이번 산행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안개를 뿜어내는 선자령이었다. 누군가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산행 중에 갑자기 드러난 안개 기둥은 풍력발전소였다. 한참을 봐야 소리를 내며 바람을 맞는 희미한 날개가 눈에 띄었다. 몇 년 전 설악산 울산바위 꼭대기에서 경험한 안개 같았다. 안개 뿜는 선자령! 두고두고 기억되리라.

‘굿곶’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무당이 주재하는 굿이 구경하기에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실로 오랜만에 국사성황당/서낭당에서 굿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다. 어려서 마을에서 하던 굿과는 많이 달랐다. 굿이라기보다는 무당이 되는 과정을 수련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땀을 흘리며 경중경중 뛰는 여





인의 복장이 트레이닝 운동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그랬다. 사진으로 남기진 못했다. 대관령에서 4월 보름부터 신을 모시는 제의를 시작하여 5월 단오에 강릉까지 이어진다는 안내를 들었다.

달마선사의 선법을 통일신라 말기에 들여왔는데 아홉 개의 교파,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 굴산사지, 범일국사 탄생설화가 있는 돌우물인 석정 그리고 보물의 하나라는 규모가 큰 당간지주 등을 답사했다. 굴산사터가 있는 학산마을은 눈이 펼쳐놓은 들판이 너른 반촌(班村)이라는 느낌이었는데, 답사 내내 후각을 자극하는 우사, 돈사에서 나오는 배설물의 짙은 냄새의 여운이 육식의 결과임을 새삼 깨달았다.

걷는 독서-인문학여행, 답사의 모든 것-준비에서부터 깔끔한 마무리까지 함께한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  
 쪽정리와 알갱이를  
 가려내는 엄정한 생의 계절”  
 -박노해, 『걷는 독서』, 4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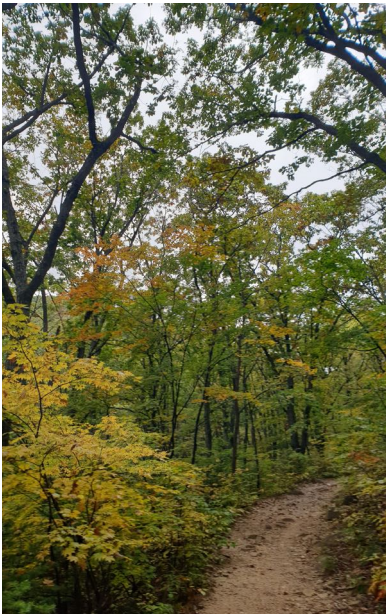
##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의 별늪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2024년 10월 9일,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의 마지막 여정 선자령.

코로나로 모두가 뽕뽕 싸매고 떠났던 첫 번째 지역 인문학여행은 2020년 5월 초 월정사 선재길로 기억한다. '가도 괜찮을까' 걱정 어린 마음으로, 낯선 선생님들의 무리에 슬쩍 발을 들였었다. 눈만 보이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긴장 속의 버스 안. 버스에 내려서도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어 썩썩거리는 숨소리와 무심한 듯 흘러가는 계곡 물소리, 바람꽃과 얼레지꽃 등 작은 봄꽃들을 찾아 가끔 터지는 탄성.

걷는 독서. 그때는 그 무거운 박노해의 『걷는 독서』 그 책을 배낭에 넣어 걸었다. 걷는 독서의 한 도반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지 은근히 고민했었다. 한두 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길을 함께 걸었다. 내가 몰랐던 길, 몰랐던 강원도의 산하. 알아도 몰랐던 그 공간과 의미.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걸었던 것도 같다.

버스영화관의 <퍼펙트 데이즈>에서 반복되어 나왔던 ‘코모레비’(こもれび,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가 떠오른다. 그동안의 걷는 독서를 지친 기색 없이 이끌어 주신 한 선생님은 코모레비를 우리말로 하면 ‘별뿔’이지 않을까 하셨다. ‘별뿔’은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빛’이나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마한 햇빛의 기운’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를 나타낸다고 한다. 별뿔. 반복하여 되뇌어보니 시조의 한 구절에서도 본 듯하다.

별뿔. 걷는 독서를 되돌아보면, 내가 걷는 길에는 언제나 고마우신 분들의 별뿔이 있었다. 알찬 인문학여행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별뿔을 내어 주신 분들께 말로 다 하기 힘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가을이 되고, 깊은 숲의 별뿔은 어느새 살짝 물든 모습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은근히 물든 여린 단풍, 별뿔의 흔적. 조금씩 물드는 깊은 숲의 단풍처럼, 고마우신 분들의 별뿔의 흔적이 나에게도 물들길 바란다.



마음이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내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 박노해, 『걷는 독서』, 828쪽

## 선자령과 「풍의 여행」

심금순(금산초등학교 교사)

2024년 한글날, 아침부터 춘천은 흐리다. 혹시나 '선자령은 맑지 않을까' 기대하며 오늘도 달리는 버스영화관에서 <퍼펙트 데이즈>를 보았다.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이 잔잔하고 주인공의 일상과 참 잘 어울렸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의 하루는 어떨지 기대해 본다.

어느덧 대관령 옛 마을휴게소에 도착했다. 선자령 바우길은 안개에 둘러싸여 신령스러운 느낌이다. 뿌연 안개 속에서도 야생화와 나무를 보며 걷는 재미가 있다. 높은 곳 찬 바람에도 굳세게 피어 있는 하얀 구절초, 너무나 빨개서 도드라져 보이는 천남성, '나 좀 보세요' 하는 것 같지만 도도한 용담이 보인다. 그래서 걷는 길이 지루하지 않다. 선자령 정상 가는 길에 무언가가 공중에서 회오리바람처럼 휘휘 돌아가고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고 나서야 그 정체가 안개 속에서 돌고 있는 풍력발전기임을 알았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다 안개 때문이다.

선자령에서 간식을 먹고 내려오는 길에 국사성황사에 들렀다. 선자령을 올 때마다 성황당에서 굿을 하는 소리에 저절로 발길이 그리로 향한다. 오늘도 굿판이 있는지 빠른 장단으로 휘몰아치는 북소리가 들리고 신내림을 받고 있는지 장단에 맞춰 경중경중 뛰는 여인이 보인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계속 쳐다보게 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소설 「풍의 여행」을 떠올렸다.

지난 6월 평창, 강원 작가와의 만남에서 「풍의 여행」을 쓰신 김도연 작가를 만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강릉 단오제. 그 단오제가 열리는 대관령 기슭 아래 늘 대관령을 품고 사는 강릉 사람들에게 단오는 어떤 의미일까? 단오제를 위해 신목으로 지정된 단풍나무가 주인공이다.

「풍의 여행」

신을 태운 대리운전 기사 풍 이야기

강릉단오제 신목에 선발된 대관령 단풍나무의 생애 첫 여행기!



때론 티격태격 때론 알콩달콩, 성황 부부의 사랑과 전쟁!  
사람과 신을 섬기는 애기무녀 단이 춤추고 노래하는 산신굿 한마당!

작가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인간들이 첨단과학을 동원해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 세상, 이런 21세기에 대관령 산골짜기에 모여 징과 팽과리, 장구를 두드리며 춤을 추는 이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한겨울에도 폭설을 헤치고 찾아와 굿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들의 직업은 세칭 무당,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교보문고 책소개에서 발췌)

단오제가 열릴 때마다 쪽진 백발에 정갈한 한복을 입고 굿판을 지켜보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 신비의 추종자들이다.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로 시작하는 단오. 나는 영동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서 단오제에 대해 익히 들었다. 선자령을 걸으며 어릴 때 단오제 장구경에 사람 구경에 정신이 없었던 그 기억. 그리고 굿판을 구경하고 있던 신비의 추종자들이 떠올랐다. 나는 잠깐 그때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고 온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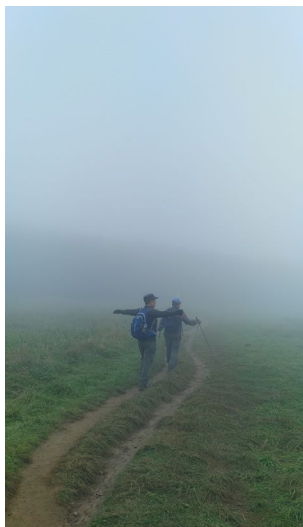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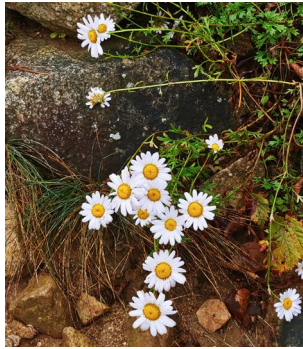
## 동행

안상임(삼척학실연 책모임)

이번이 네 번째 선자령 산행. 여행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반갑고 그리웠던 분들과 산행하니 기쁨이 배가되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챙기는 환한 미소의 동행인들.

산행 초입에 다소 숨이 찰 것 같은 평지를 만나게 되어 무난한 산행이었다. 가을 선자령 야생화를 보며 그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다. 속새, 구절초, 고려영경귀, 투구꽃, 용담, 천남성, 마타리. 발아래 낙엽이 된 층층나무잎과 팔처럼 생긴 팔배나무의 열매를 밟으며 가을임을, 흐르는 시간을 어찌할 수 없음을 느꼈다.

구름이 넘나드는 선자령은 정상 가까운 임도에서는 빗살이 한순간 후두두 내리더니 음산하기보다는 신비하고 탁 트인 전망 대신에 풍력발전기 모터 소리만 들리고 풍력발전기 날개만 희끗희끗 보여 몽환적인 분위기였다. 정상에선 바람 대신 안개가 포근하게 산행하는 사람들을 감싸주었다(이전 산행에서는 선자



령 정상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점심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안개가 걷히고 멀리 맞은편 능선이 굽이굽이 보여 이곳이 백두대간 선자령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사성황사에 처음 가서 곱하는 모습도 처음 봤다. 대관령 국사성황사 성황신은 범일국사이고,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 장군이라고 한다.

구정면 학산의 굴산사지 당간지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당간지주의 크기로 보아 굴산사지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었다. 당간지주 근처에선 기계로 벼농사 추수가 한창이다. 이곳이 해파랑코스 걷기 구간이기도 하여 다음에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함께했던 모든 분, 계곡의 물, 발아래 돌, 흙, 야생화, 이름 모를 풀들, 안개, 빗방울, 바람, 신선한 공기, 내가 걸을 수 있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

## 선자령의 선자들

유상열(시민)

김 선생이 굳은 무릎과 관절을 풀게 하셨습니다.  
 한 선생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개는 안개에 잠겼는데 바람개비는 높이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선자는 바람의 길에 선 줄기인 게죠.  
 별뉘를 그리며 걸었습니다.  
 전나무와 아직 퍼런 나무 아래를 걸으며 붉은 숲을 그렸습니다.  
 낮게 꺾꺾한 속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름 잎 다 떨구고 눈물처럼 둥근 두루미꽃 빨간 열매를 만났습니다.  
 등걸 아래, 바위 뒤에 동자꽃은 홀로 밝았습니다.  
 야윈 쑥부쟁이, 아홉 마디 구절초는 길옆을 지킵니다.  
 젖은 밤을 새운 선자입니다.  
 집에 와서 누운 채 다시 걸어 봅니다.

그새 나는 그 보라꽃 이름을 잊었습니다.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 박노해, 『걷는 독서』



## 안개 속에서 대관령 옛길을 걷다

윤선미(시민)



이슬비가 오려나 가을답지 않게 안개가 잔뜩 내려앉은 날,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친정어머니를 그리며 넘었다던 일명 신사임당길(대관령 옛길)을 10월 9일 한글날에 걸었다. 대관령 마을휴게소에서 내려 마치 구름 속을 걷듯 일행의 꼬리를 이으며 한발씩 내디뎠는데 안개가 질게 내려앉은 대관령 숲길은 계곡이 이어져 물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가을 끝자락에 우는 풀벌레 소리와 함께 내 귀를 즐겁고 시원하게 해주었다. 계곡 주변 습지마다 뾰족한 속새들이 군락을 이뤘는데 한샘의 어릴 적 속새 쓰임새를 듣고 진짜일까 그 끝을 꺾어 손톱을 갈아보았더니 앗! 진짜 손톱이 줄갈처럼 갈린다. 그런데 이 썩시개로도 딱이겠다, 싫어 혼자 웃음을 지었다. 안개를 뚫고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선자령에 올랐다. 머리 위에서 썩~썩 바람개비 모양의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소리는 위엄있게 들렸지만 짙은 구름에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자령 표지석 뒤에 새겨져 있는 우리나라 산맥지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국토의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의 사명

입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려오는 길에 안개가 걷히고 햇볕이 쨍하여 하늘을 올려다보니 버스영화관에서 <퍼펙트 데이즈> 영화에서 비로소 알게 된 반짝이는 햇빛 한 조각 코모레비(별뿔)를 볼 수 있었다. 너무 신기하고 기쁜 마음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범일국사의 위패를 모신 성황사 앞에서 합장한 뒤 산신각에서 귀청을 뚫고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내림 굿판을 보며 삶이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 길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많은 애환이 서린 곳 대관령 옛길. 따뜻하고 넉넉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크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 속도로. 깊이깊이  
- 박노해, 『걷는 독서』, 476쪽



# 나아가다 보면

이창래(모두의부엌 춘천 대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일지라도  
나아가다 보면  
나아가다 보면  
길이 이어지고,  
앞선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도 기쁨에도 끝이 있다.  
사랑에도 이별에도 끝이 있다.  
끝이 있기에 둥근 시작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831쪽

## 강릉 바우길, 선자령(仙子嶺)을 걸으며

정미자(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걷는 독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선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직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것과 같은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생각들을 털어내며 느끼는 자유의 순간,  
나와 오롯이 만나는 순간,  
버스영화관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걷는 독서』의 박노해 시인을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선자령(仙子嶺)은 산이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개 이름 령(嶺) 자가 붙었다. 동쪽 강릉에서 서쪽 한양을 오갈 때 넘나들던 대관령의 옛길이 있었던 곳이다. 경치가 좋아 선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놀다 갔다는 전설이 유래하여 오늘날 선자령이라 칭한다. (출처, 선자령-자연 속으로)



산정에 올라야 산맥이  
보이고  
산에서 나와야 산이  
보인다.

참된 독서란  
자기 강화의 독서가  
아닌  
자기 소멸의 독서다.

## 선자령 풍чат길, 안개의 술렁임 속을 온몸으로 걷다

정연실(봄내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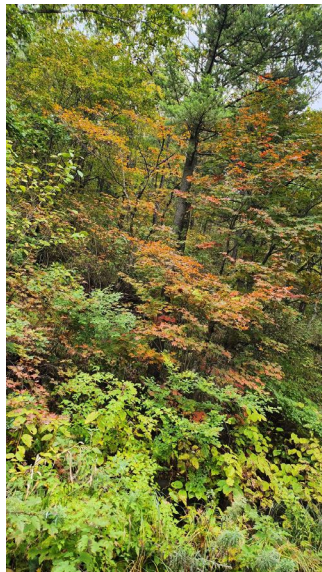
2024년 한글날, 선자령 바우길의 술렁이는 안개 속을 온몸으로 걸었다. 지난여름 지독하게 뜨거웠던 여름은 10월에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가을 단풍의 모습은 숨바꼭질하듯 숨겨놓았다. 가을에 약효가 제일 좋다는 구절초, 보라색 곤드레나물 꽃, 빨간 자태를 뽐내던 천남성의 열매를 구별하며 걷는 길은 주변에 가득한 생명에 관심을 두게 한다.

2021년 시작된 걷는 독서는 내게, 두 발로 걸으며 삶의 이야기를 듣게 했고, 온몸으로 길의 풍경과 책 속 활자가 전하는 말을 전해주며, 내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때문일까? 4시간이라는 평소보다 좀 더 긴 시간을 걸어야 했던 선자령은 차츰 안개를 걷어내며 서서히 가을 하늘의 빛으로 위로해 주었다.

지난 4년여의 걷는 독서는 내게도 계절의 향기를 스미게 하고, 바람의 속삭임과 안개의 술렁임과 새의 노래와 갖가지 야생화의 춤으로 바쁘고 힘겨운 일상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온몸으로 살아낸 하루는  
삶의 이야기를 남긴다.  
나만의 이야기가 없는 하루는  
살아도 산 날이 아니다.  
-박노해, 『걷는 독서』, 150쪽



진정한 강함은 내적 강함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무릎 꿇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마음만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186쪽



## 2024 가을, 강릉 바우길을 걷다

정재욱(강원교육연구소)

### 07:35 춘천종합체육회관 주차장 출발.

버스에서 한○○ 선생이 오늘 일정 안내. 버스 안에서 김밥과 떡 등으로 아침 식사. 참가자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오고 가는 도중 버스에서 빔 벤더스 감독, 야쿠쇼 코지 주연의 <퍼펙트 데이즈> 관람. 야쿠쇼 코지는 이 영화로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함. 나뭇잎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햇빛 '코모레비!'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창동 감독, 전도연 주연의 <밀양>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름. 카메라의 앵글이 신애(전도연)가 있는 마당 한구석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 위에 어른거리는 햇빛을 비추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密陽 - Secret Sunshine - 비밀스러운 햇빛! 그늘진 히라야마의 삶에 순간순간 비추는 '코모레비의 희망'과 절망의 최극단에 선 신애에게 그래도 조금은 남겨진 'Secret Sunshine, 密陽!' 전도연은 이 영화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음.

09:05 평창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09:50 대관령 마을 휴게소에 도착. 영동팀 3명과 합류함.

10:05 산행 들머리에서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고 등산 시작.

등산 코스: 양떼목장 → 풍해조림지 → 재궁골 삼거리 → 선자령 → 전망대 → 국사성황사 → 대관

령마을 휴게소.

처음엔 가파른 오르막이다 점차 괜찮아짐. 중간에 두 번 정도 쉬. 올라갈수록 안개가 짙어져 풍력 발전소 있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나옴. 나를 포함하여 마누라님, 황○○ 선생 등이 일행들과 한참 뒤쳐져서 올라감.

12:20 선자령(1157m) 도착. 짙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백두대간 선자령 표지석이 어른거렸는데, 문득 굴산사지 당간지주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연상됨. 아마도 그걸 본뜬 것 같음. '백두대간 선자령'이라고 쓴 표지석의 뒷면에는 산경표가 그려져 있음.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남쪽으로 달려 금강산(1,638m)까지 뻗어내리다가, 이내 휴전선을 넘어 향로봉, 진부령을 거쳐 설악산 대청봉(1,708m)으로 크게 솟구친 후 한계령, 구룡령, 노인봉을 거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선자령으로 이어짐. 그리고 산줄기는 대관령에서 태백산(1566m)까지 동해를 곁에 두고 남쪽으로 뻗어내리다가, 태백산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1614m), 노고단을 거쳐 드디어 지리산 천황봉(1915m)에서 그 대미를 장식함. 총길이가 1,625km, 휴전선 이남만도 690km에 이름. 선자령 표지석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도 찍고, 막걸리도 한잔함.

12:40 선자령 출발. 내려오다 갈랫길을 만났는데, 아차! 우리가 택한 길은 전망대를 거쳐 가는 길이 아니었음. 근데 뭐 가봐야 안개가 짙을 텐데 하고 자위함. 내려오면서 안개가 조금 걷히는데, 언뜻언뜻 목장 풍경이 보임. 양떼목장이라고 해서 내가 “아니 소를 키워야지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워서 뭘 하나?” 하니 전○○ 선생이 ‘애들 관광용’이라고 함. 통신탑 앞에서 대관령의 ‘반정’과 ‘국사성황사’로 가는 갈랫길이 나옴.

왼쪽에 국사성황사, 오른쪽에 산신각이 있는데, 북소리가 나면서 산신각 앞에서 일반 복장의 무녀가 칼을 들고 방방 뛰고 있음. 가까이 가서 구경하며 사진을 찍음. 신내림굿이라고도 하고, 새끼

무녀들 수련하는 거라고도 하고, 어쨌든 한참을 서서 구경함. 국사성황사 앞에는 탁자와 수레 위에다 제물로 쓸 돼지를 꼼찍하게 해체해 놓았음. 음력 4월 15일 산신각에서 산신제를 올리고, 성황사에서 국사성황제를 지내고 신맛이긋을 한 다음 뒷산에서 신목인 단풍나무를 베어 들고 강릉으로 행차하는데, 이걸 ‘대관령국사성황신행차’라고 함. 신목은 강릉 시내에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에 봉안했다가 음력 5월 3일 영신제를 지내고 강릉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영신 행차를 한 후 남대천 단오단 제단에 봉안하고 단오제를 치른다고 함. 국사성황사 안에는 양옆으로 호랑이를 거느리고 백마를 탄 범일국사 화상을 모심. 산신각





안에는 김유신 화상을 모셨다고 하는데, 앞에서 무녀들이 들뛰고 있어 들여다보지 못함.

**14:20** 대관령마을 휴게소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점심식사, 그리고 신사임당막걸리 한잔 함.

**15:15** 대관령마을 휴게소 출발. 대관령을 내려가다 '신사임당사친시비'를 버스 안에서 차창을 통해 봄. 한○○ 선생은 신사임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걸 애석해함. 뭐 그래도 허초희에 비하면….

**16:00** 굴산사터 도착. 먼저 범일국사 탄생 전설이 깃든 석천을 봄. 바가지에 담긴 해를 마시고 처녀가 애를 뱃다는 한국판 마리아 얘긴데, 근데 우물 앞 석천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보니 이런 전설이 삼국유사와 임영(강릉)지에 실려 있다고 함. 임영지는 내가 안 봐서 모르는데, 삼국유사에는 이런 탄생설화가 없고, 9세기 초에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귀국한 범일이 847년 귀국하여 굴산사

를 창건하고, 정취보살상을 얻게 되는 내용만 길게 나옴. 어쨌거나 범일은 신라말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파를 이 굴산사에서 일으킴. 논 한가운데 우뚝 솟은 당간지주로 미루어 볼 때 굴산사는 그 사세가 굉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원성왕한테 밀린 후손들(호족)의 지원을 받았을 것임. 그리고 범일의 보살행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고, 급기야는 강릉지역의 신으로 등극한 게 아닌가 생각함.

석천 옆에 범일국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승탑이 있음. 일제강점기에 도굴되어 무너져내린 승탑을 여러 차례 해체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 제대로 꺾맞추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임. 기단부 하대석의 상단인 구름 문양의 화반은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되었는데, 승탑 주변에 이것과 같은 부재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아 도굴 후 주변에 흩어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열기설기 꺾맞춘 건 아닌지? 하여튼 뭐 그래도 통일신라 승탑의 기본형인 팔각 원당형 승탑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기단부의 형태

가 독특한 게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보임. 근데 탑신이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전체적 균형이 맞지 않음.

승탑 앞으로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고 그 위에 장대한 소나무가 가지를 아래로 아주 장엄하게 늘어뜨리고 당당하게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음. 승탑을 보고 난 후, 일행들은 그 소나무로 달려가 저마다 부둥켜안으면서, 아니 안겨서 사진을 찍음. 한쪽으로 큰 바위들이 무더기로 있어 저게 범일국사 전설에 나오는 학산인가 했는데 아니고 학산은 여기서 산으로 한참을 올라가 있다고 함.

**14:30** ‘학산서낭당’으로 감. 음력 4월 15일 대관령 국사성황사에서 제례를 지낸 후 신목을 앞세우고 내려온 ‘대관령국사성황신행차’는 강릉 시내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 들러 다시 곳을 하고 제례를 올린다고 함. 근데 서낭당에 대개 있는 금줄은 없고, 그 대신 돌담을 빙 둘러놓음. 김○○ 선생이 한창 해설하고 있는데, 오줌이 엄청 마려워 서낭당 옆의 공중변소로 갔음. 아이고 이런, 문이 잠겨서 황○○ 선생과 나는 화장실 좌우편에서 그냥 씹! 나중에 마누라님한테 한 소리 들었음.

다시 조금 걸어서 논 한가운데 있는 당간지주로 감. 30여 년 전 겨울, 흰 눈이 쌓인 별판에 홀로우뚝 서 있는 장대한 이 당간지주를 봤을 때의 그 놀라움...이 떠오름. 저 지주에다 긴 막대기(간)를

고정해 세우고 필력이는 깃발(당)을 매단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장대함은 주변을 압도했을 것임.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달마의 선풍(구산선문)은 동쪽 신라 땅으로 와서 지방 호족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수용되었고, 그런 선종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나말여초 호족들의 위세는 이미 신라 왕실을 넘보고 있었을 것임. 그리고 부처의 사리를 모신 탑보다도 자기 선문의 개조를 모신 승탑을 더 중시하는, 바야흐로 탑(신라왕)의 시대가 가고 승탑(지방 호족의 대빵)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혁명의 시대가 신라말 9세기의 상황이었을 것임. 당간지주 앞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인 황금별판(논)에선 콤파인이 홀로 벼를 수확하고 있었음. 그래서 그런가? 풍성해야 할 가을 들판이 쓸쓸하고 허전해보였음.

**17:10** 굴산사터 출발. 버스에서 <퍼펙트 데이즈>를 계속해서 관람. 차만 타면 코를 골던 마누라님은 영화에 빠져 한숨도 못 잤다고 함.

**18:25** 흥천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19:00가 넘어서야 춘천에 도착함. 김○○ 선생이 뒤풀이로 한 잔 어떠냐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야 당연히 콜이지만 가는 세월을 무슨 수로 당할 거냐, 또 마누라님도 옆에 있고, 하여 그냥 집으로 감.



## 가을날, 함께 바우길을 걷다

정정순(시민)

가을날 아침 안개 속에서 선자령의 구절초는  
더욱 영롱하고 청아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또한 선자령 풍차길을 걷는 우리들 얼굴도  
무리 지어 소복이 피어 있는  
구절초 빛을 점점 닮아갔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당당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는 소나무

국사성황사 산신당에서 수련 중이던  
어린 무녀들

가을걷이로 한창인 널찍한 누런 들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당간지주

버스영화관에서 본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히라야마’의 눈빛

모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강릉 바우길을 함께 걸은  
우리 모두의 환한 얼굴이  
가장 예쁘고 오래오래 간직될 아름다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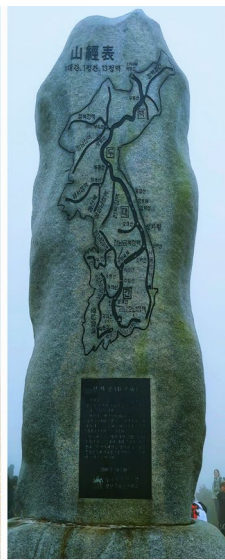
## 걷는다는, 행복

황석용(시인)

마음이 울적하거나 시끄러울 땐 숲에 들어 하염없이 걷는 게 약이었다. 선자령 가을 길을 따라나서 책을 읽듯 같은 방향으로 더불어 함께 걸었다. 힘겹던 삶의 굽이를 어찌다 돌아보면 희미하게 열린 것처럼 끈덕지던 지난여름도 이젠 마른 갈잎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답사의 고수는 폐사지를 찾아간다고 하던데, 굴산사터를 찾은 건 그 래서였을까? 바로 그 굴산사터엔 웅장한 고요와 침묵이 오래전 친구처럼 반겼고, 흥망성쇠의 덧없는 과거를 지키는 당간지주는 문지기 초병 같았다.

절이 흥(興)했던 신라부터 성(盛)했던 고려까지의 역사를 전해 들었을 오백년 수령의 소나무 한 그루, 고작 육십갑자 한 바퀴 돌아온 가소로운 이놈의 삶은 위풍당당 신령한 기운을 품고 서 있는 그 나무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걷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다. 잠시라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언제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 더불어 함께 인문학적 의미를 나누고 교감하며 걷는 것이 바로 '걷는 독서', 행복한 삶 읽기가 아니겠는가.







그냥 걸어라. 첫걸음마 하는 아이처럼  
내 영혼이 부르는 길을 그냥 걸어라.  
- 박노해, 『걷는 독서』, 147쪽



## 제4차 인문학여행

##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명	제4차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참여 단체	금산초등학교, 동내초등학교, 서상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봄내중학교, 봉의중학교, 우석중학교, 유봉여자중학교, 춘성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강원교육연구소, 책온시민모임		
일시	2024. 10. 9.(수) 07:30~19:00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옛길 - 선자령 풍차길 - 국사성황사 - 굴산사 터 일원		
참여 인원	초·중등 교사 및 시민 30명		
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강원 대관령 옛길 일원 탐방과 인문학여행</li> <li>• 세부 진행 일정과 활동 내용</li> </ul>		
	시간	활동 주제	활동 내용
	07:3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인사
	10:00	버스영화관: 〈퍼펙트 데이즈〉(빔 벤더스 감독)	일본 도쿄 시부야 공동화장실 청소부의 코모레비 삶
	10:00	선자령 풍차길 탐방과 옛길 걷기	강릉 바우길에 어린 삶과 역사, 강릉단오제 역사와 범일국사
	12:00	산경표지석 정상	
	13:00	국사성황사 답사	
	14:00	점심 식사	선자령한식당
	16:00	굴산사지 일원 답사	석천, 승탑, 당간지주 등
	17:00	버스영화관 2	〈소통 나눔〉 소감 나누기
19:00	춘천 도착, 귀가	후기 쓰기 안내	
참여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김재순, 김정민, 김희선, 박명희, 박혜진, 심금순, 정미자, 정연실, 윤선미, 함광연, 황현정 / 11명</li> <li>• 시민: 김효문, 김경은, 김두기, 김선희, 김영, 김유식, 김현숙, 김현호, 박병두, 박영선, 안상인, 유상열, 이창래, 전경남, 정재욱, 정정순, 한명숙, 황기면, 황석용 / 19명</li> </ul>		

프로그램  
사진



대관령 바우길 옛길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굴산사터 부도탑(보물)



굴산사터 당간지주(보물)



구정리마을 서낭당



굴산사 터에서



# STOR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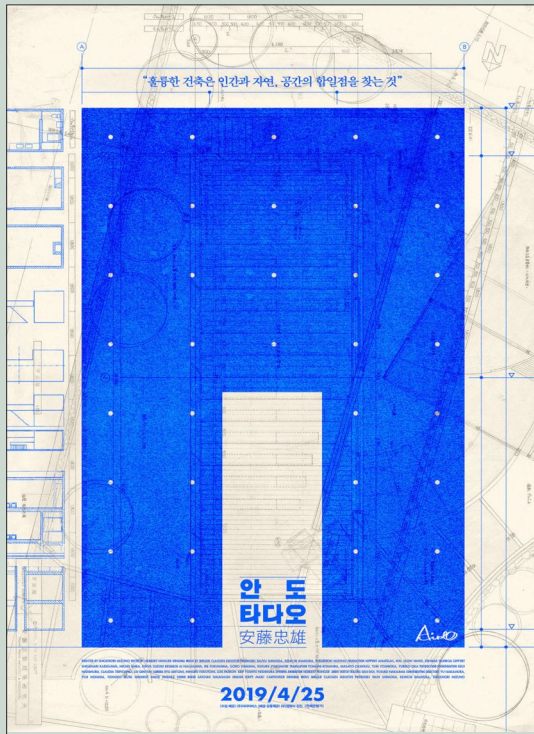
# 원주·홍천 산소길





## 버스영화관

## 인문학여행과 함께한 다큐멘터리 <안도 다다오>를 소개합니다



### 안도 다다오 다큐멘터리

감독 미즈노 시게노리

주연 안도 다다오

제작 2019년, 일본

영화 <안도 다다오>는 물, 햇빛, 그림자 등 아름다운 자연과 콘크리트 공간을 접목시킨 현대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이다. 일반 극영화가 아니라 일본 NHK 아카이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 영화이다. 안도 다다오는 치열한 현장을 경험하며 독학으로 익힌 건축 지식과 콘크리트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로 현대 건축의 거장이 되었다.

영화에서는 안도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빛의 교회', '지중 미술관' 등 매력적인 건축물을 창조한 그의 학력은 고졸이다. 아마추어 권투선수 출신인 독학 건축가 안도 다다오. 오늘날 널리 퍼진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대가가 되었고 1995년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건축이 주는 편안함과 위로와 위안. 경험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

안도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작품이며 그는 아티스트이다.

콘크리트라는 자연의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외부. 물을 통한 평안. 주변 자연과의 합일. 그 안에서 건물에 들어선 인간이 느끼는 평화. 안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의 감정. 건물의 외형보다 실제로 건물의 사용자들이 느끼는 내부의 체험과 편안함을 소중하게 여겼다. 감추고 속이는 것이 없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한 작품.

그래서 편안한 느낌.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빛나는 열정을 느끼게 한다.

*“훌륭한 건축은 인간과 자연, 공간의 합일점을 찾는 것.”*

\* 안도 다다오의 국내 건축작품

1. 원주 뮤지엄산(2013)
2. 제주 본태박물관(2012)
3. 제주 유민미술관(2017)
4. 제주 글라스하우스
5. JCC 재능문화센터(2015)
6. LG아트센터(2022)

# 사진으로 보는 인문답사길















## 여행의 이유

김경신(시민)

여행을 하는 이유는 각자 다양하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나는 풍선처럼 한없이 부풀었던 욕심과 이기심이 작아지고 작아져  
마침내 겸손과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행하며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익숙한 듯하나 낯선 자연 속에서...

이번 가을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또한 그랬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부대끼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위로와 배움을 얻는다.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존경과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번 낯선 일  
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길을 열어나가는 분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보낸다.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들어서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 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들어서 손잡고 돌아오라.

- 박노해, 『걷는 독서』, 433쪽

## 건축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든다

주민주(봄내중학교 교사)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인문주간을 맞아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을 다녀왔다. 원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도 다다오의 건축이야기가 담긴 다큐를 보았다. 안도 다다오는 빛의 건축가라 불린다. 그의 건축물에는 빛과 그늘, 물, 물에 비친 건축물 등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물의 정원 본관이 보였다. 본관 앞에 설치된 빨간색 조형물을 보니 뮤지엄산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붉은빛으로 곱게 물든 화살나무와 주변 단풍나무들이 수면 위에 비치고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먼저 싱잉볼 명상을 체험했다. 페퍼민트 오일을 목과 어깨에 바른 후 매트가 깔린 바닥에 누웠다. 소리의 진동을 따라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다음은 오로지 빛과 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제임스터렐관을 체험했다. 하늘을 향해 타원형으로 뚫린 스카이 스페이스에서 하늘에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올려다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순간이 그저 좋았다. 독일어

로 완전한 영역이라 해석되는 간츠펠트에서는 착시효과를 통한 공간감과 빛의 색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들이 마치 내가 안개 속 무한한 공간에 홀로서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홍천의 오래된 가마솥 설령탕집에서 점심을 먹고 수타사로 발길을 돌렸다. 늦가을 단풍이 곱게 내려앉은 산소길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빨갭게 익은 산수유 열매, 저 멀리 보이는 수타사 은행나무,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계곡.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단풍나무 숲길을 걷고 있으니 가을이 충만하게 느껴졌다.



아름다운 것들에는 치열함이 어려 있다.

아름다움은 치열한 앓음에서 탄생한다.

- 박노해, 『걷는 독서』, 243쪽



## 물 위의 박물관, 뮤지엄산

김정은(강원교육연구소)

무르익어 가는 가을을 듬뿍 느끼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듯 안도 다다오가 지었다는 원주 뮤지엄산을 다녀왔다. 시월의 인문학여행이었다. 뮤지엄산은 산등성이에 세워진 박물관인데, 테라스마다 물로 채워져 있어 물 위 박물관 처럼 단풍과 가을 하늘이 물속에서 어른거렸다. 안도 다다오가 만들었다는 스톤가든을 돌고 나서 돔 속에서 명상을 했다. 싱잉볼 소리가 아득히 먼 내면으로 안내해 주어 잠깐 누워 있었는데 오랫동안 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연광만으로 실내가 유지될 수 있게 디자인된 명상관이라고 한다. 돔 안에 있으니 세상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제임스터렐관은 그야말로 어둠과 침묵을 마주하는 공간이었다. 그 속에서 안내자를 따라 어두운 통로를 따라가 더듬더듬 걸어갔는데 그 안에 빛으로 창조한 공간이 있었다.

제임스 터렐은 어릴 때 정신적인 수련과 침묵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듯하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빛을 끌어내 다양한



색으로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빛과 공간 놀이의 천재이다.

평면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 색상이 계속 변했다.

조명효과로 생각되는데… 빛의 예술가이다.

이번 버스영화관에서는 마침 건축가 〈안도 다다오 다큐〉를 시청했다. 정식으로 건축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행을 하며 스스로 배운 건축으로 세계적 건축가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 스톤가든도 지었다는데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편안함을 주는 작품이다. 스스로 배운다. 스스로 자신을 가르친다. 참으로 멋진 일이다.

수타사에서 몸이 불편하여 잣나무 아래 낙엽 위에 누워 잣나무잎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니 내 삶의 조각조각들이 언뜻언뜻 보인다. 가족, 일상, 부모, 앞으로의 삶 등…. 수타사 경내를 거닐며 수행자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았다.



지상의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뼘이라도

자기만의 정원을 가져야 한다네.

- 박노해, 『걷는 독서』, 747쪽

## 자신이 되는 시간

김병임(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요즘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다는 이야기를 인사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휴일조차도 주변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다행히도 바쁜 일상을 잠시 접고, 걷는 독서의 마지막 여정에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늘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주 뮤지엄산을 직접 보게 되다니, '역시 百聞이不如一見'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유명한 멋진 박물관 건물뿐 아니라 하늘과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주변 풍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만했다.

제임스 터렐의 '스카이 스페이스'에서는 천장에 뚫려있는 원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하늘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우물 안 개구리의 이야기도 생각났다. 또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체험하며 이곳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설사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을 나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해 보았다.

우고 론디노네의 <창문>, <시계>, <수녀와 수도승>을 감상하면서 부끄럽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 빠르게 검색해 보기도 했다.

오전의 명상 체험과 제임스터렐관의 강렬한 여운을 안고 오후에는 정겨운 수타사의 산소길에 올랐다. 시원하게 흘러가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붉게 물든 단풍의 모습을 즐기다 보니 눈과 귀가 맑아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디어 정리되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自然처럼 사람도 自然스럽게!

오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나의 '자신감 갖기가 아닌, 자신이 되기' 시간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자신감 갖기가 아닌

자신이 되기

-박노해, 『걷는 독서』, 27쪽



## 우고 론디노네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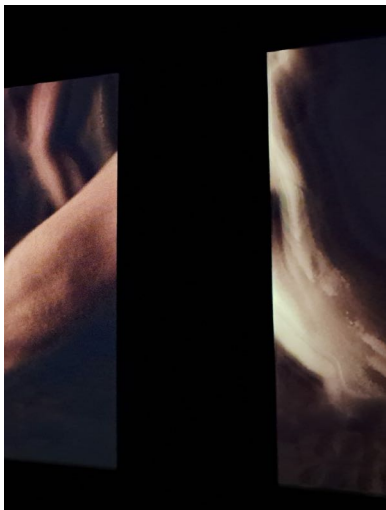
김선희(시민)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월의 끝자락에 꼭 가 보고 싶었던 원주 뮤지엄산을 방문하게 되어 기뻐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대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와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은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예술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보는 것마다 탄성을 질렀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 그곳에서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의 개인전 ‘BURN TO SHINE’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마치 일기를 쓰듯 살아 있는 우주를 기록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계절, 하루, 시간, 풀잎 소리, 파도 소리, 일몰, 하루의 끝, 그리고  
고요함까지.” - 우고 론디노네

이번 전시회 중 감명 깊은 것으로는 백남준관에서 본 <노란색과 빨간색 수도승> 조각상이다. 원형의 천장으로 내려오는 자연광 아래 중세 시대 수도승의 엄숙함이 느껴지는 4m 높이로 노란색과 빨간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와 크기에 압도되었다. 나는 원형의 빛을 따라 한 바퀴 돌며 조각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

청조갤러리3 입구에서 검은 암막 커튼 두 장을 열고 들어서니 퍼포먼스 영상 <번 투 샤인>이 상영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전통 의식과 현대무용을 결합하여 만든 작품으로 강렬한 소리와 신체의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타악기 연주자 12명과 남녀 무용가 18명이 불꽃을 둘러싸고 취한 듯 열정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삶



에 대한 축제이자 애도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다. 청조갤러리4에 들어서니 방 안 가득 커다란 직사각형 상자가 보였다. 그 상자를 따라 한 바퀴 돌아보고 상자 아래로 자세를 낮추어 들어서니 큰 공간이 있어 매우 놀랐다. <너의 나이, 나의 나이, 그리고 달의 나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3~13세 어린이 1,000여 명이 그린 약 2,000장의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 작품 한 작품 들여다보며 너와 나 그리고 달을 생각하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의 전시작품은 회화, 드로잉,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폭넓은 매체로 드러나며 삶과 자연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이로써 형성되는 인간존재와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감상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미처 보지 못한 작품들이 많아 무척 아쉬웠다.

집에 돌아와서 우고 룬디노네의 다른 전시작품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 며칠 전에 스위스로 가

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가 스위스 사람이고 나와 같은 1964년생이라 친근하게 느껴졌다. 친구로서 앞으로 그의 작품 활동을 응원한다. 그와 만남으로 에너지가 100% 충전되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었다.

2022년부터 3년간 나는 교사로서, 은퇴 후에는 시민으로서 '걷는 독서'에 참여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였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나무를 심으면 마을 전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말처럼 '걷는 독서'는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며 본다는 것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 간다.

-박노해, 『걷는 독서』, 55쪽

## 삶은 흐르는 대로

김소영(남춘천여자중학교 교사)

간밤은 밤늦도록 잠들고 싶어 하지 않는 21개월 아이가 울다 지쳐 잠이 든 날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아기에 팔려 있어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깜빡 했는데 다행히 가을 아침 스산한 공기와 함께 적당한 시간에 눈을 떴다. 옆을 보니 잠이 부족한 아이가 아빠와 뒤엉켜 누워 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절로 깊어가는 마음을 뒤로하고 종합체육관에 집결했다. 차에 타니 그리운 선생님들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신다. 나눠주신 따끈한 떡에 차를 함께 먹으며 잠기운이 턱지턱지 붙어 마른 얼굴을 살포시 푼다. 오랜만에 여행 기분을 느낀다.

올 3월,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새로운 채팅방도 많이 생겼고 잠잠했던 채팅 알림이 수시로 울린다. 어리바리 집안일 생각에 정신을 빼놓고 지내는 초보 엄마에게 과분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와중에 귀한 알림을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첫 코스는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손길이 깃든 뮤지엄산 관람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1팀은 명상관-제임스터렐관-전시관 순으로 관람을 했다. 명상관은 가장 기대했던 코스로, 자리에 놓자 웬지 모르게 찢끔 눈물이 났다. 그런데 기대가 커서였을까? 명상을 마치자 허탈감이 느껴졌다. 명상 내내 구름에서 눈 듯 즐거운 기분이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일상의 상념을 잊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순간순간 들린 코고는 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모습이 신선의 경지처럼 느껴지고, 내가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지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제임스터렐관에서 가장 재밌던 것은 색상이 바뀌는 3차원 공간 체험이었다. 그냥 보면 2차원 공간인데 그 안에 들어가자 천국에 오른 듯 환상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양 눈가를 가리고 벽면을 향해 걷는 체험도 하늘 위를 걷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상상하게 만드는 신비한 경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하늘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떠오르는 진귀한 공간감을 느꼈지만 이 공간 체험도 사후세계가 이런 걸까 생각하게 만드는



오묘한 경험이었다.

온통 환상의 공간을 체험하고 나니 아름다운 가을 정경을 더 깊이 눈에 담고 싶었다. 전시 관람을 포기하고 야외 공간에서 한때를 보내는데 문득 오색찬란한 나무가 아닌 상처 입은 나뭇잎이 눈에 들어왔다. 나뭇잎은 상처 입었음에도 다른 상처 입은 나뭇잎과 같이 아름다운 가을을 뽐내고 있었다. 혼자 떨어져도 의연할 것 같고, 이대로 겨울이 와도 그렇구나 할 것 같은 단단한 마음을 지닌 듯 보인다. 비결이 무엇일까? 불완전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연의 힘 아닐까? 육아 탈출을 꿈꾸며 참여한 인문학 기행이 욕망 탈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등교 시간을 한참 앞둔 월요일 아침, 소감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도서관 한구석에는 독서동아리 아이들의 토론이 한창이다. 이번 책은 해들리 블라호스의 『삶이 흐르는 대로』, 호스피스 간호사가 병동에서 만난 인연과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타이핑을 하는 척 멀찍이서 타자를 두들기며 죽음과 삶의 무게에 대해 재잘대는 아이들의 가벼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 인생 무엇 있겠나. 삶은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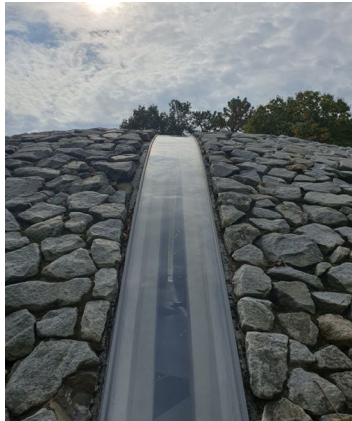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영혼이 깊어졌다.

- 박노해, 『걷는 독서』, 795쪽



## 벚꽃, 청기와, 월인석보

박명희(성수고등학교 교사)



‘버스영화관’의 영화는 다큐 <안도 다다오>였다. 다큐는 프로 복서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 안도 다다오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몇 해 전, 건축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우리반 학생이 안도 다다오 건축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이래로 건축가라는 정도만 어렵듯이 알고 있었는데, 비로소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안다’라는 오해를 하며 살고 있었을까?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버스영화관 체험 후 이어진 <뮤지엄산>의 명상관 체험은 좀더 완전한 경험에 다가설 수 있게 해주었다. 콘크리트 벽을 커다란 십자가 모양으로 잘라낸 ‘빛의 교회’를 설계하면서 안도 다다오는 십자가 틈새를 유리로 덮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건축을 의뢰한 목사는 비와 추위를 우려해 반대한다. 건축주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안도 다다오였지

만 영상 속에서 “건축은 완공됐다고 끝이 아니다. 언젠가 유리를 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삶을 대하는 그의 명료한 자세가 보이는 듯해 좋았다.

그리고 자신은 ‘벚나무가 65년 정도의 수명으로 인간과 비슷해서 벚꽃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85년쯤이 되었고 벚나무도 85년쯤이 되었다면서 인간과 수명이 같은 벚나무의 벚꽃이 예쁘게 지니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벚나무의 수명이 정말 그러한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들어본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 중 가장 멋진 이유라고 생각했다. 명상관은 노출콘크리트로 만든 완만한 둠이 구심적인 공간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을 위한 공간이 되어 주고 있었다. 오직 명상만을 위한 상설공간으로는 안도 다다오의 작품 중 유일하다고 한다. 기존 미술관에 있던 ‘스톤 가든’의 맥락에 맞

취 지름 16m에 높이 4m의 둥근 돔을 만들고 화강암의 일종인 귀래석으로 표면을 덮었다.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실내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돔 가운데에 기다랗게 틈을 냈다. 132㎡(40평) 되는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군더더기 없는 실내에 뿌려진 빛 한줄기가 풍성한 공간감을 자아낸다는 명상관에 일행의 뒤에 입장하여 슬릿으로 비치는 한줄기 빛 아래 자리에서 명상에 참여하게 된 나는 ‘태양의 움직임과 이어지는 공간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자연과 우주를 교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경주 신라 고분의 선을 모티브로 만든 스톤가든의 일부인 돔 안은 따스하고 고요하며 아늑하여 고분 속 같기도 했다.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끝도 없는’ 영원이 아닌, ‘지금 완전히’라는 의미에서의 영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여정은 공작산 자락 천 년 고찰 <수타사(壽陞寺)>였다. 강원유형문화재인 ‘대적광전’은 수타사의 중심 법당으로 내부 천장의 단집(불교) 법당의 부처를 모신 자리 위에 장식으로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에 만개(滿開)한 백련 열 송이가 조각되어 있어 우아하고 정교한 장식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당에서 올려다본 대적광전 용마루 중앙에 청기와 두 장은 함께 간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된 기쁨이 있다. 돌아와 찾아보니, 태조 이성계가 1392년 경복궁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조선의 법궁’으로 짓고 국왕의 즉위식이나 왕의 정무를 보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쓰려고 만든 경복궁 본전이 근정전이며, 1395년 경복궁 근정전 지붕이 완성되던 날 청기와를 올려, 왕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던 ‘왕궁의 청기와’였다고 한다. 이후 240년쯤 뒤 두 장의



청기와는 이곳 수타사로 보내졌고,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내용 출처: ‘월간 불교 문화’ 중 ‘문화재의 시선으로 보는 절집 이야기’) 600년을 지내온 청기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수타사 성보박물관인 보장각에는 ‘월인석보’가 있다. 두고 온 마음처럼 다시 그곳을 찾아야 할 이유로 남았다.

이번 강원 교사·시민인문학여행은 삶과 죽음, 영원에 대한 사유의 끝에서 ‘지금 완전히’ 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여정이었다. 언제나처럼 소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신 진행 선생님, 한림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와 강원교육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



삶은 짧아도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이란 ‘끝도 없이’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사는 것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35쪽

## 가을을 만끽한 시간

박영희(치악중학교 교사)

토요일부터 눈이 조금 불편하여 안과에 다녀왔는데 다래끼가 날 조짐이란다. 일요일 인문학여행을 앞두고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많이 붓지 않아하기로 결정했다. 참 잘한 결정이었다. 모니터와 핸드폰 화면을 떠날 줄 몰라 피곤하던 눈이 청명한 가을 하늘과 울긋불긋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났더니 아픔이 가신 듯하다. 제대로 눈호강 한 날이다.

학교 일이 바빠 가을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중이었는데 뮤지엄산에서 만난 가을은 너무 아름다웠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자주 와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특히 명상관에서의 체험이 기억에 남는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니 고요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소중했고 명상을 마치고는 사우나를 한 듯이 정신이 맑고 개운해졌다.

제임스터렐관도 흥미로웠다. 처음 만난 작품인 스카이 스페이스에서 하늘 빛 그림자가 내가 걷는 대로 따라 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마치 어릴 적 달님이 나만 따라오는 걸 신기해하던 동심이 살아나는 듯 했다. 빛의 입자에 관한 설명은 조금 생소했지만 빛을 이용해 착시효과를 만들어낸 작품이 신비로워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함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함을 나타낸다는 해석과 그밖에 다양한 해석들이 감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줬다.

춘천 지역에는 아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얼굴을 뵈 수 있어 반가웠고 함께 원주지역에서 참여한 이현애 선생님께서 이런 저런 설명들을 해주셔서 관람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웠다.







## 심외 공간, 뮤지엄산

안상임(시민)

2024 책온터미더 인문학여행으로 뮤지엄산을 방문했다. 야트막한 제주 오름에 오르듯이 동산에 자리 잡고 있다. 뮤지엄산은 웰컴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독특하다. 원형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차 공간 사이에 나무들이 있어 나무와 차가 공존한다. 물의 정원 입구에서 알렉산더 리버먼의 Archway 작품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아치 길 작품은 정원의 입구를 알려주듯 빨간 장미가 아치를 만들고 있는 듯하다. 동산 위에 물의 정원이어서인지 물은 하늘을 더 많이 품고 있었다.

제임스터렐관의 웨지 활동에서 공간과 빛이 주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우리가 보는 시각의 한계인 착시현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금 깨달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다. 다시금 겸손한 순간이었다.

안도 다다오 건축가의 작품인 명상관 안에는 인공조명이 없다. 중앙 천정으로로부터 긴 한 줄기 자연의 빛이 있을 뿐이다. 그 빛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내자의 말을 듣다 보니





온갖 잡념은 사라지고 한순간 잠이 들기도 한 쉼의 공간이었다. 꿀잠을 맛본 귀한 시간이었다.

뮤지엄산의 건축과 정원의 나무들도 잘 어우러져 있다. 이른 봄부터 새잎이 나오는 화살나무는 가을이면 단풍나무 못지않게 예쁜 단풍으로 눈길을 끈다. 이곳의 화살나무는 외목대로 키워져서 오롯이 꽃꽂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사람의 손길이 가서 가능했던 모습이다. 다른 정원에서는 주로 그룹으로 경계 나무나 안내 나무로 쓰인다. 내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목수국 나무가 이곳에서는 외목대 목수국으로 잘 관리되어 있다. 나무도 오래 되었고 길옆에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받아왔을 것이다. 필 때는 상아색의 꽃이 지금은 붉게 변하여 그대로 남아있다. 꽃 색은 변해도 꽃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다. 지금 그대로도 예쁘다.



삶은 어디서나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꽃이다.

-박노해, 『걷는 독서』, 763쪽

# 다른 것을 보는 우리, 그 모습이 같은 우리

박혜진(유봉여자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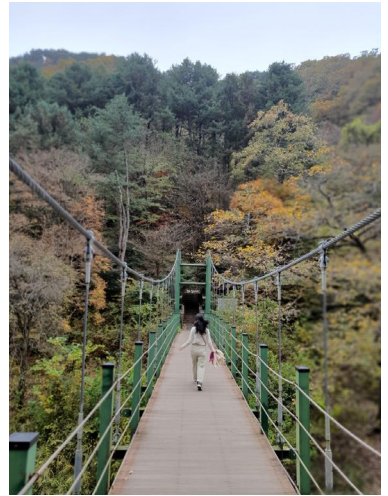
2024년 10월 27일, 책온팀의 여정은 원주 뮤지엄산으로 시작해서 흥천 수타사로 이어진다.

인문학여행을 하며 나에게 생긴 변화는 어느 순간부터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이었다. 함께 하는 순간, 익숙한 공기, 따뜻한 시선, 배려의 손길, 뒤돌아보는 이들, 답답한 일상 속에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

다른 우리가 만난다. 서로가 공유한 사진을 보니 같은 듯 다르다.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이는 하늘을 담고, 어떤 이는 작품의 전시 설명을 담고, 어떤 이는 사람을 사진에 담는다. 햇살에 비치는 단풍잎을 담거나, 잎이 거의 떨어진 나뭇을 찍고, 물에 비친 모습을 담는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담는다.

다른 시선이 아름답다.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 고맙다. 수타사 산소길을 내달려보니 내 뒷모습을 누군가 담고 있다. 아니, 바라봐 준다. 어디로 가든, 멈춰 서 있어도 어디선가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서로의 마음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확장해 나간다.

인문학은 어쩌면 다른 것을 바라봐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의 충만하고 평화로운 하루처럼.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좋은 삶이 곧 길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328쪽

## 빛이 말한다

황현정(동내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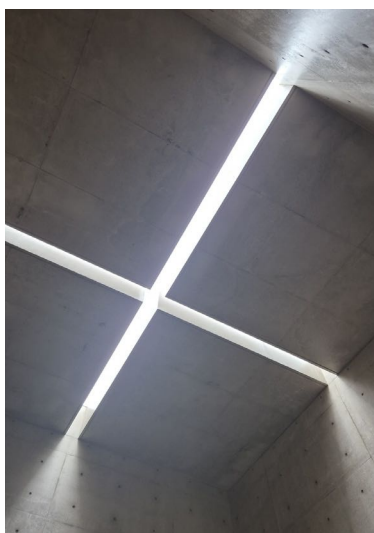
빛이 말한다. 너와 마주하고 싶어. 네 눈을 가만히 보면서  
가을을 이야기하고 싶어. 너는 들어주기만 하면 돼.  
빛을 마주해도 눈이 부시지 않다. 빛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호-흡-** 우린 폭신한 낙엽 더미에 누워 노래를 들었어. 모  
든 걸 비워주는 노래라고 해. 눈을 감았어. 숨을 크게 들이  
마셨어.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 그렇게 한참을 들숨과  
날숨으로 걸어갔다 걸어왔어. 눈을 떴어. 반짝.

**monk & nun** 모퉁이를 돌아 바위들을 마주했어. 노란색  
머리에 주황색 몸, 초록색 머리에 노란색 몸, 파란색 머리  
에 하얀색 몸... 눈을 맞추려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바로  
고개를 숙였지. 함께 갔던 누군가가 놀라워했어. 어느 방  
향에서 보더라도 뒷모습이야! 우린 그렇게 누군가의 뒷모  
습을 바라보았어. 놀랍도록 단정하고 고요했어. 쓸쓸하지  
는 않았어.

**간츠펠트(Ganzfeld)** 안개였어. 세상 끝까지 자욱한 안개.  
아니, 안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누군가가 저기 끝까지  
걸어보자고 말했어. 나는 걸으며 떴어. 뜨며 걸었어.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았어. 마음이 가벼웠어.

집으로 돌아왔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무언가 만져진  
다. 단풍잎 하나가 따라왔다. 붉은빛으로.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것.

- 박노해, 『걷는 독서』, 826쪽



## 오늘이 '퍼펙트 데이'다

심금순(금산초등학교 교사)

시월 한가운데를 지나 단풍이 절정이다. 이런 날 어디든 훌쩍 길을 나서고 싶다. 마침 책은 인문학 여행에서 뮤지엄산과 수타사 산소길을 간다는 소식에 참으로 기뻐다. 걷는 독서팀과 함께한다니 더욱 좋은 가을 나들이가 될 것 같아 기대되었다. 뮤지엄산에 먼저 도착했다. 놀이동산 오픈런은 알겠는데 미술관에서 오픈런이라니 새로운 경험이다. 휴일이라 미술관 여는 시간 전부터 사람이 참 많았다. 7년 전 딸과 왔을 때는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전시관으로 빠른 걸음으로 갔었다. 지금은 주변에 꽃과 나무들도 숲과 어울려 단풍이 들고 있어 주변을 보느라 전시관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가장 인상 깊은 나무는 화살나무였다. 담으로 촘촘히 심어 다듬어져 있는 모습만 보고 '당연히 그렇게 자라는가 보다' 생각했다. 여기 화살나무는 한 그루씩 거리를 두고 심어서 자기 풍채를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자라 곱게 물이 들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꼭 봄에 피는 홍매화처럼 짙은 선





홍색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 위로 비친 화살나무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응답하듯 그 앞에서 사진 찍기에 바빴다. 주변 풍경이 가을색으로 물들어 전시관으로 바로 가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뮤지엄산에서 제임스 터렐관 체험과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감상하면서 명상하는 체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특히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의 전시가 인상 깊다. 작가의 조각, 회화, 설치와 영상 등 40여 점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관 안에 그림을 보니 작가의 작품이 이해되었다. 매일 보는 태양, 달이 항상 같지 않음을 다양한 색으로 그때의 느낌을 표현한 듯하였다. 전시를 소개하는 문구를 보니 작가의 생각이 이해되었다.

“나는 마치 일기를 쓰듯 살아 있는 우주를 기록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계절, 하루, 시간, 풀잎 소리, 파도 소리, 일몰, 하루의 끝, 그리고 고요함까지.”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난 걷는 독서 여행에서 버스영화관에서 봤던 <퍼펙트 데이즈> 영화가 떠올랐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주인공은 말이 없지만 그 완벽한 일상 속 루틴에서 그는 자유롭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

만 따져보면 똑같은 하루는 없다. 우고 론디노네의 말처럼 살아 있는 우주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마주한 시간, 계절 하루의 끝, 고요함까지 느끼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타사 산소길에서도 나는 오늘의 순간을 만끽하며 그 시간을 누렸다. 빨리 보내고 싶지 않은 찬란한 가을을. 계곡의 물소리, 오묘한 단풍 색깔, 흐린 날에도 불을 켜놓은 듯한 노랑 은행나무, 같이 걷는 이의 숨소리, 웃음, 행복을 느끼는 소리까지 느낀 완벽한 하루였다.



# 오늘 여기서 행복할 것

- 뮤지엄산(Museum SAN) 명상관 -

원소연(시민)



복잡한 것을 간추리는 것이 명상이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뮤지엄산 명상관은 그 건물의 쓸모와 의미를 촌탁한 듯 간단하다. 왕릉을 연상시키는 완만한 돔 모양의 외관은 채사가 없다. 대부분의 진리는 간단하다는 것을 말없이 대변하는 듯하다.

명상관 프로그램은 스트레칭과 호흡을 통한 이완 명상인 '쉽 명상'과 싱잉볼 연주를 통한 '음악 테라피 명상'이 있다. 우리는 싱잉볼 명상을 체험했다. 신발을 벗고 명상관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향기가 먼저 반긴다. 요가 매트에 자리 잡고 앉으니 돔을 가로지르는 가늘고 긴 천창으로 들어오는 자연 빛이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 명상 시작 전 간단한 안내 사항을 전달받고 나누어 준 페퍼민트 오일을 어깨와 목 주변에 손으로 마사지하듯 발라 주었다.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된다. 이어 매트에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맑고 맑은 싱잉볼 소리가 명상관 안을 가득 채우고 시나브로 명상에 빠져들었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깊은 명상은 깊은 잠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명상과 잠의 경계가 모호해질 즈음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잠(아니 명상)에서 깨어났다.



‘여행’은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이 은유적 표현이 주는 울림은 깊고 강렬해서 여행을 떠날 때면 늘 나는 이 말을 되새긴다. 해야 할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한 어느 날, 나는 다시 여기서 행복하기를 다짐하며 삶의 쉽표 같은 명상관을 방문할 것이다.



혼자일 때 충분하지 못하면 함께여도 충분하지 못하다.

- 박노해, 『걷는 독서』, 539쪽



## 예술과 자연 한가득 가을 나들이

유재학(금산초등학교 교사)



상쾌한 가을 아침 공기를 가슴에 들이켜며 신나게 달려 버스에 오른다. 어느 해보다 무더워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이 시내 곳곳 가로수로 성큼 다가왔고, 고속도로에 오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에도 가을이 깊어간다.

우리 팀은 뮤지엄 끝에 위치한 제임스터렐관을 먼저 보기로 되어 있어 날쌔게 걸음으로 미술관과 야외전시물들을 가로질러 갔다. 한눈에 보아도 규모가 상당하여 누가 운영하는지 정보를 찾아보니 유명한 제지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산중에 콘크리트 덩어리의 뮤지엄이라는 발상이 뜻밖이다.

제임스 터렐의 '스카이 스페이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인공물이 자연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고, '호라이즌 룸'에서는 계단을 올라 하늘이 보이는 문을 나서면 주변 경관을 시원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고 론디노네의 'Burn to Shine'에 전시된 <창문>, <시계>, <수녀와 수도승>은 강렬한 색채로 표현되어 가을과 함께 마음에 깊게 각인된다. 암막을 걷고 들어간 곳에서는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는 아프리카 타악기에 어우러진 춤 또한 다른 전시물처럼 강렬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홍천으로 향한다. 말로만 들어도 상쾌한 수타사 산소길을 걷는다. 절을 돌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다가온 가을을 더 가까이 마주한다. 무엇보다 물이 먼저 반갑다. 요즘 어디서든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잘 모르게 잃어가는 것이다. 물가라 그런지 단풍이 다른 곳보다 선명하다. 두어 시간 전에도 물과 색채들을 마주하였다. 커다란 콘크리트에 갇힌 물과 그 물에 반영된 산도 참 멋있었다. 인공이 담아낸 자연과 있는 그대로의 자연,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인공으로 담아낸 자연은 한번 '와' 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연처럼 편안하지는 않다.

예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미술, 음악, 문학, 건축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 위로, 감동, 공감을 선사하지만 자연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뮤지엄산에서 이름난 예술가들의 강렬한 작품들로 즐거웠고 수타사에서 물과 단풍을 마주하며 보낸 편안한 하루였다.

## 뮤지엄산에서 우고 론디노네를 만나다

윤선미(시민)

덤으로 얻은 크나큰 행복이다. 가까이 두고도 가보지 못했던 뮤지엄산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맘속으로 몇 번이나 계획했던 뮤지엄산에 더구나 우고 론디노네 작품이라니 무조건 가고 싶어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원주로 향했다. 가늘길 내내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져서 수학여행을 떠난 듯 마음이 설렸다.

오크밸리 산속에 감춰진 뮤지엄산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대가인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시작해서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2013년에 개관하였다는데 버스 영화관에서 안도 다다오의 삶과 건축에 대한 열정을 미리 영상으로 만난 덕분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가 설계한 뮤지엄산을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아는 척하고 싶어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명상관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돌의 정원은 신라의 고분을 모티브로 설계된 9개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된 스톤 가든인데 늦가을 붉게 물든 화살나무의 타오르는 화려함과 어우러지니 돌의 차가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늘과 햇빛의 따사로움과 맞닿아 있어 오히려 아늑하고 정겹다. 아치형의 천장으로 들어오는 하늘빛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들어간 신라 무덤 속 같은 형상의 명상관에서 진행자가 이끄는 대로 매트에 누

우니 온몸이 이완되며 노곤해져 진행자의 말소리를 ASMR 삼아 나도 모르게 잠깐 단잠을 자는 실례를 범했다.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는 커다란 창을 통해 무지갯빛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화려한 색채의 공간으로 전시장 안에 유리로 구조되어 저마다 다른 푸른색을 띠는 말 11점과 함께 보는 내내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느린 걸음으로 시작해서 빠른 걸음으로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를 둘러보고 막 출발하려는 버스에 승차하면서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가까운 시일에 가족과 함께 하루 종일 느린 걸음으로 마음을 따라 산책하며 미처 둘러보지 못한 공간이나 작품들과 기분 좋은 만남을 다시 해야지.



몸은 점점 늘어가는데  
마음은 영영 짧다는 건  
저주인가 축복인가.

- 박노해, 『걷는 독서』, 5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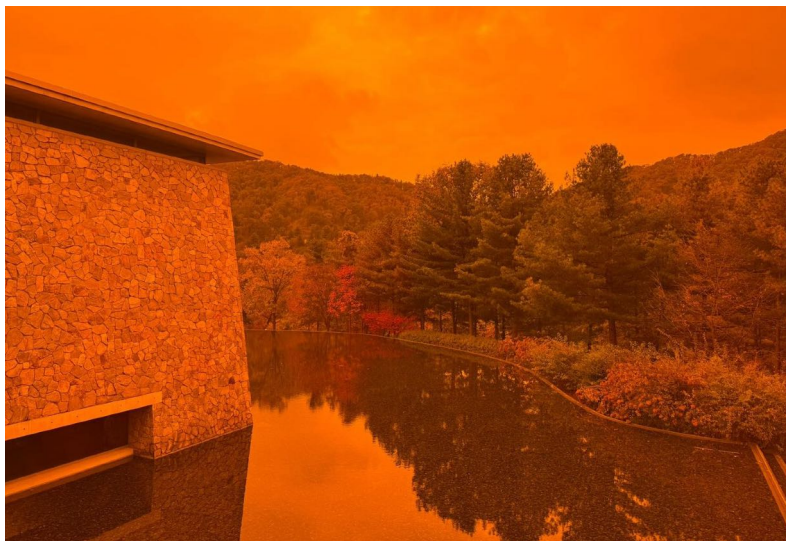


## 시월의 어느 멋진 날

이현애(반곡중학교 교사)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뮤지엄산 대표소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아침 일찍 일어났으나 강아지가 휴일임을 아는지 산책을 무려 한 시간 반이나 해서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고, 4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내비를 찍어 보니 거의 5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후다닥 뛰어나가 뮤지엄산에 도착하니 다행히 9시 20분. 춘천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춘천에서 올 반가운 선생님들 얼굴을 생각하며 약간 설렘을 느꼈다. 잠시 후 우르르 선생님들이 도착하고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다.

10월 말의 뮤지엄산은 가을로 성큼 들어서 있었다. 담쟁이를 비롯해 나무들이 곱고 노랗게 붉게 물들어 나뭇잎을 떨구고 있었다. 지난 9월 말에 찾았을 때 너무 좋았던 명상관 체험이 특히 기대되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깊은 명상에 빠졌었기에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였으나 이른 오전이어서 인지 깊은 명상에 빠지지는 못했다. 제임스터렐관은 볼 때마다 감탄과 감동을 하게 된다. 빛의 입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은 문과인 나에게는





너무나 불가사의한 말일 뿐 몸으로 체화되지는 않는다. 명상관도 제임스터렐 관도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안도 다다오도 제임스 터렐도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나 역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본다.

진정한 독서란 지식을 축적하는 '자기 강화'의 독서가 아닌  
진리의 불길에 나를 살라내는 '자기 소멸'의 독서다. 책으로의 도  
피나 마취가 아닌 온 삶으로 읽고, 잃어버린 것을 살아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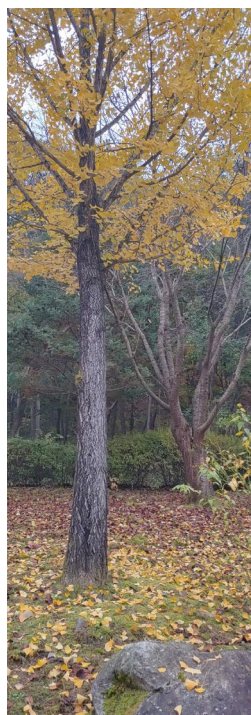
- 박노해, 『걷는 독서』 중에서

특별전인 우고 론다노네의 수녀와 수도승 조각전 역시 수녀와 수도승이 다르지 않음을, 초월적 존재를 탐구하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갤러리 2, 3은 원주지역 아이들이 생각하는 태양과 달 이야기를 그림 2천 장으로 전시하고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림들이 멋진 큐레이션을 거쳐 근사한 작품으로 변신했다.

반가운 선생님들과 하하, 호호 웃고 같은 원주지역에 있지만 그동안 따로 만나지 못했던 선생님과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뮤지엄산의 매력에 다시 한번 흠뻑 빠졌다.

# 가을의 빛깔 속으로

임효정(시민)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움을 향해 걷는 것이다.  
- 박노해, 『걷는 독서』, 77쪽

올해는 무더운 여름이 길었던 탓인지 가을을 무척이나 기다렸다. 이 가을이 훌쩍 가버리기 전에 가을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싶었다. 간절했던 마음이 통했는지, 좋은 님들이 함께 가자고 초대해 주셨다.

뮤지엄산에서 만난 화살나무는 활활 타오르며 시선을 끌었다. 바람이 건드릴 때마다 물 위로 꽃잎처럼 떨어지는 나뭇잎이 아름다웠다. 은행나무는 곧잎을 떨어뜨릴 기색도 없이 싱싱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과나무는 그동안 잘 살아온 걸 증명하듯 토실한 열매들을 자랑했다. 넘름한 군인처럼 서 있는 백송은 미술관을 잘 지키고 있었다.

우고 론디노네의 수도승과 수녀들은 가을 나무들과 어우러져 외로운 존재들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네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독하지만 자연 속에서 조화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초록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초록 수도승 앞에서 한 컷, 노랑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노란 수녀 앞에서 또 한 컷…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도 자연과 미술과 함께 작품이 되었다.

수타사 산소길에는 주황빛 단풍잎들이 벌써 많이 떨어져 내려 폭신했다. 어느 그림책에서 “나무들이 낙엽 이불을 덮었네” 하던 문구가 떠올랐다. 울겨울에 이곳 나무들이 춥지 않기를 바라며 가을 속으로 속으로 들어갔다. 은행잎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걸 보니 머지않아 비 오고 바람 불면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오겠지 싶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보다 조금 더 그런 것 같다.

하루 동안 다양한 빛깔을 보았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자주, 은회색, 갈빛, 주황, 하늘빛, 파랑, 검정, 흰빛… 자연의 색깔들과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느끼고, 그 속에서 기쁨이 일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친절의 선물들도 잊지 말아야지.



## 제5차 인문학여행

## 다녀왔습니다

<b>프로그램명</b>	제5차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		
<b>참여 단체</b>	금산초등학교, 동내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서상초등학교, 장학초등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봄내중학교, 봉의중학교, 우석중학교, 유봉여자중학교, 반곡중학교, 치악중학교, 춘성중학교, 봉의고등학교, 성수고등학교, 강원교육연구소		
<b>일시</b>	2024. 10. 27.(일) 08:00~17:30		
<b>장소</b>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뮤지엄산 - 홍천군 수타사 산소길 일원		
<b>참여 인원</b>	초·중등 교사 및 시민 31명		
<b>행사 일정 및 활동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강원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탐방 인문학여행</li> <li>• 세부 진행 일정과 활동 내용</li> </ul>		
	<b>시간</b>	<b>활동 주제</b>	<b>활동 내용</b>
	08:00	춘천 호반체육관 집결, 출발	만남 인사
	09:30	버스영화관 1: 안도 다다오 다큐 영화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삶과 건축 예술, 철학
	10:00	뮤지엄산 체험 및 답사 : 명상관, 제임스터렐관, 미술관, 박물관, 물의 정원, 돌의 정원 등	
	13:00	원주 출발	버스영화관 2
	14:00	점심 식사	홍천식당
	15:00	수타사와 산소길 답사	문화재와 산소길
	16:40	홍천 출발	소통 나눔 소감 나누기
	17:30	춘천 도착, 귀가	후기 쓰기 안내
<b>참여자 명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심금순, 유재학, 황현정, 신영숙, 유희순, 양혜선, 김미경, 김병임, 김소영, 김재순, 주민주, 정연실, 박명희, 박혜진, 최인숙, 이현애, 박영희 / 17명</li> <li>• 시민: 김경신, 김경은, 김 산, 김선희, 김효문, 박병두, 안상임, 원소연, 윤현준, 윤선미, 윤은환, 윤호경, 임효정, 한명숙 / 14명</li> </ul>		

프로그램  
사진



뮤지엄산-물의 정원



수타사 산소길



수녀와 수도승 연작-우고 룬디노네



수타 계곡-굉소 앞



원주시 1천 어린이 드로잉 전시회



수타사의 가을

## 1. 초등학교 교사

양혜선 비봉초등학교

유재학 금산초등학교

유희순 석화초등학교

이현숙 주봉초등학교

신영숙 장학초등학교

심금순 금산초등학교

황현정 동내초등학교

## 2. 중등학교 교사

김소영 남춘천여자중학교

김미경 남춘천여자중학교

김미지 소양중학교

김병임 남춘천여자중학교

김재순 춘성중학교

김정민 봉의중학교

김희선 남춘천여자중학교

라상숙 춘천고등학교

박영희 치악중학교

박혜진 유봉여자중학교

박명희 성수고등학교

양혜숙 방산중학교

이하나 소양중학교

이현애 반곡중학교

장만순 대룡중학교

정미자 남춘천여자중학교

정연실 봄내중학교

주민주 봄내중학교

지명숙 남춘천여자중학교

최경화 사내중학교

최인숙 봉의고등학교

한명숙 남춘천여자중학교

함광연 남춘천여자중학교

---

### 3. 학부모 및 시민

---

**김경신** 시민 책모임

**김경은** 강원교육연구소

**김덕성** 시민 책모임

**김두기** 시민 책모임

**김 산** 강원교육연구소

**김선희1** 시민 책모임

**김선희2** 시민 책모임

**김 영** 시민 책모임

**김유식** 시민 책모임

**김현숙** 시민 책모임

**김현호** 강원교육연구소

**김효문** 강원교육연구소

**박병두** 강원교육연구소

**박영선** 시민 책모임

**박준영** 시민 책모임

**박형미** 시민 책모임

**안상임** 시민 책모임

**원소연** 시민 책모임

**유상열** 시민 책모임

**윤선미** 시민 책모임

**윤은환** 시민 책모임

**윤호경** 시민 책모임

**윤현준** 시민 책모임

**이운옥** 시민 책모임

**이창래** 모두의부엌 춘천 대표

**임효정** 시민 책모임

**전경남** 강원교육연구소

**정재욱** 강원교육연구소

**정정순** 시민 책모임

**최영숙** 시민 책모임

**한명숙** 강원교육연구소

**황기면** 강원교육연구소

**황석용** 시민 책모임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수기집 3

펴 낸 날 2024년 10월 30일

펴 낸 이 서정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장)

프로그램 매니저 김효문, 한명숙(강원교육연구소)

제 작 여름 출판사

펴 낸 곳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033-248-3216~7





## 인문교육공동체 포문동워크숍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아젠다인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의 줄임말이자,  
한자로는 抱問童이라하여 순수한 물음을 품은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학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선생님과 학부모, 인문교육NGO단체와  
함께 인문강연을 듣고 토론하며 인문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같이 되새겨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 강원 교사·시민 인문학여행은

지역에 기반하여 강원 교육의 미래에 대해  
교사·시민 스스로가 생각하고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옛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강원의 역사와 문화, 일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삶과 교육 현장에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인문교육  
공동체  
포문동  
수기집3



979-11-90612-24-1 (05060)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